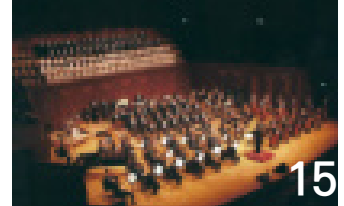


- 02 갤러리 용인 | 독수리의 꿈 / 김종경
- 04 초대시 | 열리지 않는 문 / 김윤배
- 06 용인의 창 | 문화 특례시로 가는 길 / 심언택
- 09 문화예술인물 인터뷰 | 영원한 마에스트로 정철주 / 박숙현
- 16 기획 | 용인지역의 가톨릭 성지
 - 16 골배마실 · 은이성지 / 정양화
 - 22 원삼 · 이동 가톨릭 사적지 / 김지혜
 - 34 손골성지 / 박정순
 - 42 김대건 신부의 출생지에 대하여 / 김장환
- 46 특집 | 용인의 숨은 보석 '서리 고려 백자 요지' / 강진갑
- 58 리뷰 | 포은문화제를 돌아보다
 - 58 '지역문화'와 함께 한 포은문화제 / 유기영
 - 66 포은문화제를 진단하다 / 김장환
- 70 비지정 문화재 | 한석봉의 글씨를 볼 수 있는 허엽 신도비 / 김정희
- 77 용인의 역사스토리텔링 | 용인의 오일장 '김량장'으로 구경 오세요~ / 이은성
- 82 책과 문헌 | '정보 노작 홍사용 문학 전집' / 박기정
- 86 세대공감 | 막걸리 이야기 / 남기주
- 92 사라져 가는 것들 | 양복점 / 박숙현
- 99 휴 & 힐링 | 포은 정몽주 묘역으로 떠나는 역사 나들이 / 김명수
- 104 전국역사문화기행 | 경남 함안 편 / 이미경
- 113 문화원 · 문화계 소식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전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전'이 2022년 7월 20~2023년 1월 24일까지 기흥구 백남준로 10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린 것과 함께 '백남준의 보고서 1968-1979'도 2022. 10월 13~2023년 3월 26일까지 열리고 있다. 위대한 비디오아티스트가 남긴 작품을 용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다. 1974년에 백남준은 '1930년대 미국이 '고속도로'를 건설해 경제 부흥을 이뤘듯, 이제는 '전자초고속도로' 구축으로 아이디어를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 오늘날 실현된 인터넷의 비전을 제시했던 전제적 인물이다.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전은 비디오와 빛으로 가득 찬 백남준의 영광스런 (옛) 설치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드문 기회로, '시스틴 성당' 등 대규모 미디어 설치 작업은 보는 내내 큰 감동이었다. | 글 · 사진 : 김종경

발행인 심언택 용인문화원장 **편집인** 정양화 용인문화원 부원장/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박숙현 용인문화원 이사 남기주 용인문화원 이사 유기영 용인문화원 이사 김정희 용인스토리텔링연구소장

기획/행정 이현구 이설아

발행처 용인문화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문화예술원 1층

전화 031.324.9600

팩스 031.324.9634

이메일 ycc50@hanmail.net

제작 북앤스토리 031.336.8585



열리지 않는 문

김윤배

문은 계급이다

마키아벨리의 문은 비의의 문이다

루터의 문은 성난 신의 문이다

광화문은 붉은 악마의 문이다

문 위의 문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롯데호텔 문이다

어느 문으로 드느냐가 신분을 나타낸다

브라만은 브라만의 문이 있고 선량들은 선량들의 문이 있다

노동자는 회장 전용 에레베이터를 탈 수 없다

문은 완강하다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절망하는 젊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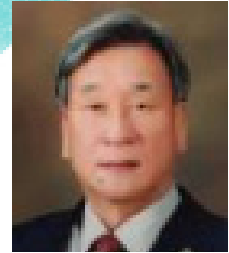
열리지 않는 문은 어느 곳에도 있다

© 김윤배 시인

『세계의 문학』을 통해 문단 활동 시작/『그녀들의 루즈는 소음기가 장착된 피스톨이다』,

『내 생애는 늘 고백이었다』외 다수

문화 특례시로 가는 길



심 언 택
용인문화원장

오늘날 전국 지자체들의 가장 큰 화두는 아마도 문화도시일 겁니다. 문화가 도시의 이미지 브랜드를 높이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가 지향하는 도시의 최고 가치 역시 문화도시 구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용인시도 2년 전부터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이나 미술관, 문화 커뮤니티 공간 등 각종 문화 기반이 취약하고 그 추진 기간이 짧다 보니 법정 문화도시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자생적 문화 단체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등의 한계로 인해 그 선정을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용인문화원장으로 취임한 지 2주년을 맞이하면서 용인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담백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역문화에 관한 한 아직 갈 길이 멀고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고장의 특산물을 개발하거나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상품화하여 관광 콘텐츠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결과로 지자체의 고유성이 결여된 획일적인 문화 이벤트나 지역축제의 난립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대급부로 지역문화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것이 자양분이 되어 문화적 자생력을 갖추게 된 지자체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용인시는 지금까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타 도시에 비해 문화부문의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과 인접해 있는 수도권 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서울 인구 분산 정책에 따라 급속한 지역 개발과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지방 행정이 경제 논리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난개발’의 대명사라는 불명예를 얻을 정도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가운데 재정 자립도는 전국 상위권의 수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어찌면 당연했는지 모릅니다.

늘어나는 인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형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도로를 개설하고 상가와 같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했던 것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 문화는 크게 위축되었고, 그런 만큼 시민들이 쾌적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는 줄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수원 및 고양, 경남 창원시와 함께 우리 용인시가 광역 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시 승격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전국 기초 지자체들 중 가장 앞서가는 선진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기반시설이나 문화 서비스 등 문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함께 승격된 다른 3개 지자체들과 과연 당당히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 비교를 해야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보아도 우리 용인시가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용인시의 장구한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용인특례시'가 곧 '문화특례시'라는 등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영역 구분에서 문화는 흔히 하위 영역으로 인식되었지만 오늘날의 문화는 다른 세 영역을 포괄하는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문화의 변동은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각 영역

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발전이 결국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화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용인시는 바야흐로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발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60~70년대까지는 기본적 의식주 문제가, 80~90년대에는 지역개발을 통한 산업화가 중심이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였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보다 풍요롭고 윤택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용인시가 지향해야 할 문화적 가치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도시'의 실현입니다. 그렇다고 꼭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 용인시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미래 가치가 바로 '문화도시'의 실현입니다.

그럼 용인시는 어떤 문화도시를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화도시 창조의 양상은 유사하게 보일지라도, 각 국가별, 지자체별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전통문화 유산에 강점이 있는 이집트와 그리스가 있고, 현대문화가 돋보이는 미국과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전

국 지자체들 중에서는 전통문화에 강점이 있는 경주나 부여, 전주시가 있고, 현대문화가 돋보이는 부천이나 포항시가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경우 전국 어느 지자체 못지않은 전통문화 요소들이 풍성하게 용해되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현대문화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문화 선진도시들의 특징이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전통문화 유산과 현대문화가 두루 녹아있는 우리 용인시야말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용인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도시를 시민 친화적으로 만들고, 걷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논리에 얽매어 도시경관에 대한 고민 없이 자동차 중심의 도로구조를 형성하다 보니 도심이 너무 삭막하고 걸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병풍처럼 들어선 아파트가 시야를 가리는 등 자연의 상당 부분 그 아름다움을 잃었고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조화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정비하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숲과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용인은 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삼국시대의 유적으로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그 자체로서 발굴되고 보

존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단순히 유적, 유물로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박물관 건립, 각종 민속놀이 복원, 문화재 정비 및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역사문화 자원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도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보다 문화 인프라가 분야별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분야별로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장르별로, 즉 각종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학관 등이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같은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순수예술 공연장에서부터 지역 거점 공연장, 그리고 아마추어나 동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두루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진도시, 일류도시는 단순히 덩치만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덩치에 걸맞은 문화적 토대를 갖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인구의 규모로는 전국 10대 도시에 해당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초고속 성장이 이루어진 탓에 문화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어려워졌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서비스도 타 도시에 비해 월등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인구 규모에 맞게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향수 기회를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일류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경향교향악단 지휘와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까지 영원한 마에스트로 정철주

박숙현 _ 작가





정철주 지휘자가 정상급 연주단체로 인기가 높았던 경찰교향악단을 지휘하는 모습

영원한 마에스트로 정철주(79). 현재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 겸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객석을 가득 메운 세종문화회관 무대 위에 선 국립경찰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정철주로 기억되고 있다.

25년간 몸담았던 국립경찰교향악단을 정년 퇴임 한 후 곧바로 민간오케스트라인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활약을 한 정철주 단장. 그가 지휘봉을 내려 놓은 지는 10년이 넘었다. 1986년 충남 대둔산 경찰 충훈탑 제막식 연주를 가는 도중에 불의의 교통사를 당한 후유증으로 2010년 본의 아니게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더 이상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그의 음악 인생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이때부터 지휘를 인계하고 단장 겸 음악감독을 맡으면서 용인필을 성장시키는 데 더욱 혼신을 쏟았다. 정철주는 자신의 자리를 이어 용인필을 키울 국내외 저명 지휘자를 초청해 풍부한 경험으로 지도를 하게끔 정성을 쏟아 짧은 시간에 용인필을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성장시켰다. 자신이 직접 지휘만 하지 않았을 뿐 그의 마음은 영원한 지휘자다. 그는 실력이 뛰어난 젊은 지휘자들에게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20년을 한결같이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놀라운 기획과 폭넓은 레퍼토리 이끌어

용인필은 지난 9월,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최현석 창작곡 ‘2022 관현악을 위한 아리랑 미르 용인’을 초연해 용인에 또 하나의 발자취를 남겼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중심, 용인…우리민족의 역동성이 넘치는 이곳! 선인들의 지혜와 숨결이 어린 풍요로운 이땅에 새로운 아침해가 떠오른다. 보라!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태양을…우리 모두 한민족의 번영의 새 역사를 위한 발걸음에 한마음으로 노래하자. 고난을 극복하고 얻은 환희의 찬가로써 승화를 이룬 아리랑 미르를…”

탄탄한 연주 실력을 갖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는 용인필은 특히 용인을 배경으로 한 이같은 창작곡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용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유일한 연주단체로 주목받고 있다.

“용인에 용인을 상징할 만한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창작곡을 만들어 이것을 하나의 자산으로 만들어 두기로 한 거죠.”

그동안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선보인 창작곡은 ‘용인의 빛과 소리 환타지’ ‘곰뱅이’ ‘희상’ ‘용인 하늘울림 땅울림 환타지’(20분 소요) 등으로 용인필을 특화시키면서 발표 때마다 연주회장을 찾은 청중을 감동시켰다.

정철주 단장은 20년을 한결같이 용인필의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기획과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을 매료시키는 무대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용인을 상징하는 창작곡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정철주 지휘자

최근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공연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용인필의 본격적인 연주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엄선된 63인의 전문 연주인으로 구성된 정상급 연주단체인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23년 새해를 여는 용인의 신년 음악회를 통해 용인의 한 해를 멋지게 장식한다.

용인필은 20년이 넘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오디션에 해외 유학파까지 좋은 단원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

용인필은 지금까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기획연주 등 380여 회에 이르는 공연을 했다. 다양하고 색다른 예술적 요소들을 결합 시키는 차별화된 무대와 다

채롭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중에게 깊고 넓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며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또 고전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유롭게 소화해냄으로써 음악 애호가들이 다양한 관현악의 세계를 경험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정철주와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만남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빛나는 찬사 뒤에는 항상 정철주 단장이 자리하고 있다. 그가 용인필과 인연을 맺은 것은 경찰교향악단을 정년 퇴직하기 2년 전인 2002년이였다. 그해 막 창단한 용인필 단장이 정철주 당시 국립경찰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찾아와 객원지휘를 부탁했다. 34명 단원 규모의 용인필의 초창기 상황은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인필 만으로는 연주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철주 단장은 경찰교향악단을 투입해 무대에 섰다. 용인여성회관에서 열린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2004년 정년 퇴임을 하자 용인필로부터 상임지휘자 요청을 받았다. 민간오케스트라를 키워보자는 뜻으로 승낙했다.

경찰교향악단 시절, 110명 4관 편성의 대규모 국립 단체를 이끌던 스케일과 전국을 대상으로 펼쳤던 화려한 연주 경험의 소유자를 지휘자로 모실 수 있던 용인필로서는 더 이상의 행운이 있을 수 없었다. 것처럼 유능한 선장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용인필의 탄탄대로를 예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경찰교향악단 시절, 안 해본 무대, 안 해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워낙 탁월한 기획력까지 겸비했던 정철

주 단장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자산은 무궁무진하다. 이 황금 보따리를 용인필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정철주 단장은 국립경찰교향악단 시절의 풍부한 경험과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용인필을 짧은 기간에 정상급 연주단체로 성장시켜 오늘에 이르게 했다.

2004년 용인필로 오게 된 정철주 단장은 오케스트라 단원 오디션을 통해 실력 있는 단원 선발부터 시행하고자 했다. 때마침 용인교향악단이 통합을 요청해와 용인필과 용인교향악단을 합쳐 용인시교향악단으로 재창단을 했다. 그 후 2009년 오디션을 통해 63명 정예 단원을 갖추고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철주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용인필은 그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했다.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정철주의 명성 덕도 한몫을 했을 터였다.

지금도 용인필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것은 정철주라는 우뚝한 선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적극적이고 젊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용인필 운

영을 위해 관심을 쏟고 있다. 남다른 아이디어와 운영의 묘안도 많다.

국립경찰교향악단을 경찰의 꽃으로 만든 명지휘자 정철주

정철주 단장은 30대 젊은 시절에 국립경찰교향악단에서 첫 지휘봉을 잡았다. 그때 그가 보였던 패기와 추진력은 대단했다.

정철주 단장은 1981년 8월 10일, 내무부 산하에 창설된 국립경찰악대 초대 상임지휘자로 임명됐다. 그때 정 단장은 육군본부 군악대 부대장을 막 전역한 직후였다. 육해공군 군악대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악대 초대 지휘자로 전격 특채가 됐다. 초창기에 경찰악대였으나 정철주 단장이 교향악단으로 바꿨다.

“군악대는 군가를 연주해서 군인의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하지만 경찰악대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좀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수준 있는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딱딱한 경찰에서 부드러운 경찰의 이미지로 순



정철주가 지휘한 세종문화회관 경찰의 날 기념 '민·경친선음악회'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소프라노 김혜정교수 협연 모습)

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군악대를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한거죠.”

국립경찰악대는 최초 영국 근위병 군악대 80명 체제를 본받아 80명에 예비병력 30명을 포함해 110명 체제의 관악기 편성을 갖췄다. 정철주 단장이 점차 이를 개편해 유휴 인력까지 포함해 현 파트 50명, 관 파트 60명으로 갖춰 야외 행사도 가능하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가능한 오케스트라 시스템을 갖췄다.

“경찰에서는 좋은 꽃이 생긴거죠. 매년 세종문화회관에서 4천석 객석이 꽉 찬 가운데 정기연주회를 가졌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부임하자마자 창단한 지 2개월도 안돼 악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10월 21일, 제36회 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 무대를 메머드급 무대로 대성공시킨 일이다.

세종문화회관 기념연주에 출연하기 위해 경찰가를 테마로 한 경찰교성곡을 이병욱 작곡가에게 의뢰해 곡을 완성했다. 부족한 악기들은 육해공군 군악대의 협조를 받았다. 80명의 연주 단원들을 편성해 연습을 했고, 합창단은 경찰대학생 120명(제1기)과 여경 80명을 합쳐 200명의 대 합창단을 편성했다. ‘얼굴’ 작곡가 신귀복씨의 합창지도도를 받아 마침내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올랐다.

좌우로 의장대가 기를 들고 들어오고, 200명의 합창단과 80명의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르자 객석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쏟아져나왔다. 세종문화회관을

놀라게 한 공연이었다. 무대 메인 행사를 끝냈을 때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당시 기념식 주관사였던 KBS 방송국 피디가 당초 악기도 부족하고 창단 2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지만, 막상 연습 과정을 보면서 욕심을 내 마지막 메인 무대를 장식했다.

정철주 단장이 부임 2개월도 채 안 돼 벌인 통 큰 행사였다. 대 성공이었다. 가자마자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때 작곡가며, 합창지휘를 맡았던 사람들까지 모두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립경찰교향악단에 25년 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세종문화회관 연주는 매번 초만원사례를 이뤘고, 정철주 지휘자는 풍부한 레퍼토리로 청중을 매료시키면서 가장 인기 있는 오케스트라로 자리 잡게 했다. 정철주 단장은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50여회 연주를 가졌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무대에 가장 많이 오른 지휘자로 꼽힌다.

국립경찰교향악단이 용인 구성읍에 위치한 국립경찰대학교 부속이었기 때문에 용인과 인연이 있었지만 용인에서 연주 활동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당시 용인은 예술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다. 초청 자체가 별로 없었고, 막상 초청 연주회를 할 때도 전국 문예회관을 순회했던 정철주 단장의 눈에는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초등학교운동장에 가설 무대를 만들어 연주하거나 문예회관에는 음향판조차 제대로 갖춰있지 못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 용인은 인구 110만명의 거대도시가 됐고 특례시가 됐다. 정철주 단장은 실력을 갖춘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마음껏 시민을 위해 연주하는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정철주 지휘 예술의전당 초청 교향악 축제 ‘민·경친선음악회’

용인의 가톨릭 성지 ①

골배마실 · 은이성지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용인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용인을 빼고는 천주교 전래와 수난의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 널리 알려지고 이제는 성인의 반열에 오른 김대건신부의 고향이 용인이고, 최초의 사목지 또한 용인이다. 신학생으로 선발된 곳도 용인이고, 사제가 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 신부로서 최초의 미사를 올린 곳도 우리 용인이다. 비록 새남터에서 피를 흘렸으나, 이 땅에 복음의 싹을 틔워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커다란 열매로 남았다.

정양화 _ 용인문화원 부원장





은이성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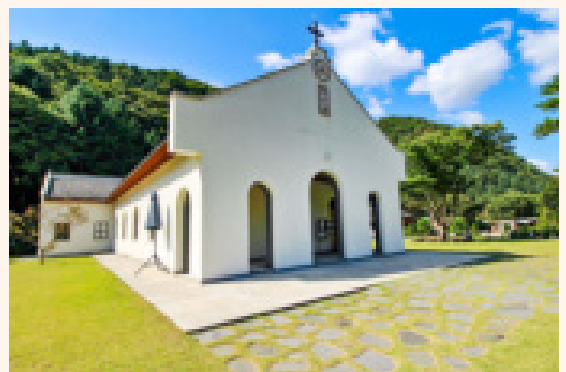
1. 두 마을 모두 깊은 골짜기

골배마실과 은이는 모두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딸린 마을이다. 남곡리는 양지면 소재지인 양지리 남쪽에 바로 인접해 있으며 과거 양지현의 관아가 있던 곳에서 채 4킬로도 되지 않는 가까운 곳이다.

남곡리는 남쪽에 문수봉에서 북쪽으로 뻗은 칠봉산 줄기를 중심으로 오른편에 골배마실이 있고 왼편에 은이성지가 있다. 칠봉산의 서쪽에는 어은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의 와우정사로 이어지는 은이고개가 있다.

골배마실은 ‘골+배마실’로 배마실의 안쪽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배마실은 뱀의실, 또는 배매실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한자로는 용곡(龍谷)으로 적는다.

배마실은 뱀의실, 즉 뱀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한자로



상해 김가향성당이 이전 복원된 모습

웁기면 사곡(蛇谷)으로 써야 하겠지만, 용곡으로 쓰는 것은 비슷한 종류 가운데 가장 큰 용을 가져다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배마실은 다른 풀이도 있는데 배를 매어 놓은 것과 같은 지형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마을안에 우물을 파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배에 구멍이 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마을에 나쁘다는 것인데 이런 풀이는 전국적으로 고루 찾아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마을 안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라는 것이고 이는 은이(隱里)의 풀이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은이 역시 깊은 골짜기로 한자를 기대로 풀면 ‘숨은 골’ 또는 ‘숨어 있는 마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골배마실과 은이는 모두 천주교 성지로 가꾸어져 전국에서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은이와 골배마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출신 성직자를 배출한 곳이고 최초의 사목이 이루어진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이다.

용인지방에 천주교의 전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천주교가 서학(西學)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천진암을 중심으로 신앙 운동이 태동했던 경기도 광주 등이 용인과 인접한 거리라는 사실로 보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일찍이 복음이 전해졌으리라 여겨진다.

특히 첫 박해인 신유박해 때부터 각지에 흩어진 천주교 신자들이 용인으로 숨어들게 되는데, 이 역시

한양이나 광주와 인접한 지리적 접근성과 한양 남쪽에서는 들 보다는 산과 골짜기가 많은 지형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용인지역에는 사리티, 은이, 골배마실, 한터, 떡뱅이, 한덕골, 손골, 고초골, 용바위, 모래실 등등 오래된 역사를 지닌 수많은 천주교 피란지가 남아있다.

2. 소년 김대건과 골배마실 성지

김대건 신부의 본관은 김해이고, 증조부는 김진후(金震厚, 비오, 1738~1814)이며, 조부는 김택현(金澤鉉)이다. 김제준(金濟俊, 이냐시오, 1796~1839) 성인과 모친 고 우르술라의 장남으로 충청도 솔피에서 출생하였다. 아명(兒名)은 재복(再福)이고, 족보명(族譜名)은 지식(芝植)이며 대건(大建)은 관명(冠名)이다.

김대건 신부의 가문에 처음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는 증조부 김진후이다. 그는 신해박해 때 체포되어 유배되었다가 충청도 해미에서 10년간의 옥중 생활중 1814년에 순교하였다. 후에 김대건 신부의 조부인 김택현과 가족들은 박해를 피해 충청도 솔피에서 용인으로 피신하여 이동읍 목리 한덕골을 거쳐 골배마실에 정착하였다. 이때 소년 김대건 신부의 나이가 7세였다.

골배마실 성지는 김대건의 소년 시절의 향취가 남아있는 곳으로 옛날부터 신자들에 의해 구전으로 김대건 신부의 집터가 있는 장소로 알려져 왔는데, 1961년 당시 양지성당 정원진 신부에 의해 발굴이 시작되어 돌절구와 갖가지 생활도구, 즉 맷돌, 우물



김대건기념관

터, 구들장 등을 발견했고 현재는 성지(聖地)로 개발되었다.

3. 한국인 첫 사제 김대건 신부와 은이성지

은이(隱里)는 ‘숨겨진 동네’ 또는 ‘숨어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은이는 신자들 사이에서 ‘응이’, ‘어니’, ‘어은이’라고도 불렸으며, 「좌포도청등록」에는 ‘언리’(彦里)로 나온다. 또 「대동여지도」에는 ‘어은산’(御隱山), ‘어은리’(御隱里)로 표기돼 있다.

은이가 한국 천주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1810년부터다. 북경 밀사로 활동하던 이여진(요한)이 이곳에서 살았다. 그리고 1824년 이전에 이미 은이에 교우촌이 형성돼 있었다. 현석문(가롤로) 성인은 매년 가을 은이로 내려와 몇 달간 머물면서 신자들을 가르치는 등 1830년대 은이 교우촌은 지역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였다. 또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주요 사목 거점이기도 했다.

은이는 김대건 신부가 세례성사를 받고 신학생 후보로 선발된 곳이며, 신부가 되어 돌아와 첫 사목활동이 이루어진 곳이다. 즉 김대건 신부가 유학길에

오르기 전인, 1836년 모방 나 신부로부터 세례성사와 첫 영성체를 받은 곳이다. 또한 최양업, 최방제와 함께 우리 역사상 최초의 신학생으로 선발된 곳이기도 하다. 이후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우리나라 천주교회 역사상 최초의 신부로서 첫 사목 지역이었고, 최초의 본당이였다.

이 시기에 김대건 신부는 서울과 경기 지방의 은석골, 텃골, 사리퇴, 검은정이, 떡뱅이(묵리), 한덕골, 미리내, 한터, 삼막골, 고초골, 용바위, 단내 등지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찾아 성사를 베풀고 사목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주로 험한 산길을 밤으로만 다니면서 사목활동을 했다고 한다.

김대건 신부가 은이를 중심으로 사목한 기간은 6개월 남짓인데 페레올 주교의 명으로 곧이어 조선에 입국하게 될 매스트로 신부와 최양업 도마 부제의 입국로를 알아보기 위한 준비를 하다 1846년 6월 순위도에서 포졸에게 체포되어 갓은 고초를 당하게 된다. 해주 감영에 이어 포도청으로 이송된 김대건 신부는 40여 차례의 모진 심문을 당하게 되고, 이 시기에 조정의 대신들에게 서양 학문을 일깨워 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당시의 심문기록을 보면 김대건 신부는 자신이 용인사람임을 밝히고 있다. 엄연히 양지현에 은이마을이 있는데도 용인이라고 말한 것은 한덕골에 살던 기억 때문이었을까? 자신을 용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데에 관심이 간다.

김대건 신부는 서양문물을 아는 인재로 활용하자는 일부 대신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결국 9월 16일

에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순교하게 된다. 백사장에 버려져 있던 김대건 신부의 시신은 떡뱅이(묵리)에 살던 이민식(빈첸시오)과 몇몇 신자들이 몰래 빼내어 10월 26일 미리내에 안장하게 된다.

김대건 신부가 사목활동을 다니던 길이자 순교 뒤에는 유해로 지났던 길은 김대건 신부의 신앙 열정과 순교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천주교인들의 순례길이 조성되어 있다. 은이 성지에서 미리내 성지에 이르기까지 지나는 세 고개를 신덕(信德)고개 (은이 고개), 망덕(望德)고개 (해실이 고개), 애덕(愛德)고개 (오두재 고개)라 이름을 붙이고 정상에는 김대건 신부의 순교 정신을 기념하는 비가 각각 세워져 있다.

4. 시민들이 함께 걷는 순례길

현재는 용인시와 천주교 수원교구가 함께 만드는 청년 김대건 순례길은 총 다섯 개의 코스로 만들어져 있고 은이성지에는 김대건 신부가 사제서품을 받은 중국 상해에 있던 김가항 성당이 이전 복원되어 있다.

2001년 도시 개발로 철거된 김가항성당을 실측 그대로 복원한 이 성당은 건축면적 540㎡, 지상 1층 규모로 250여 명이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복원된 성당 기둥과 들보, 동자기둥 중 일부는 김가항 성당 철거 당시 수습한 기둥을 가져와 재활용했다. 성당 옆 '김대건 신부 기념관'도 마련돼 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가 김대건 신부의 영성을 배우고, 신앙을 체험하기 위해 찾고 있다.

김대건 신부 순례길은 '청년 김대건 길'로 명명되



고 있으며, 일명 한국의 '산티아고길'이라 한다. 200여 년 전 김대건 신부가 첫 미사를 드린 곳이며 순교 후 신부의 시신이 옮겨진 길이므로 영광과 아픔이 고스란히 남겨진 역사의 길이다.

비록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지나볼만 하다. 크게 높지도 않고 지나는 주변의 풍광도 아름답다. 또한 중간에 와우정사와 같은 유명한 사찰도 있어 보고 느끼는 재미를 더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지나는 길이 되어 용인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용인의 가톨릭 성지 ②

원삼·이동 가톨릭 사적지

김지혜 _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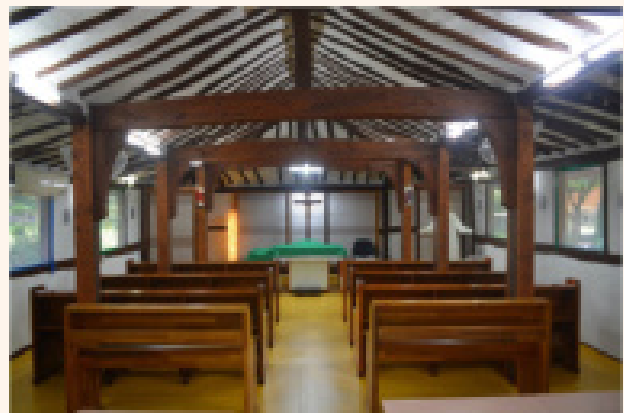
수원교구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공소가 있는 천주교 사적지는 원삼면에 있는 고초골 공소다. 이곳의 공소회장은 최근까지 최덕기 주교였다. 고초골 공소의 역사적 기록과 한옥 공소로 복원되기까지의 과정을 조사하여 남긴다.

한국인 첫 번째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가족이 최초로 터를 잡은 곳이기도 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형성한 한덕골 교우촌도 살펴본다. 이곳은 두 번째 신부 최양업과의 인연이 깊은 곳으로, 이동면 묵리의 광파리 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신부터’와 ‘붉은 고개’와 같은 천주교와 관련 있는 지명이 존재하는 사리티 공소에 대해 알아본다. 사리티는 초대 천주교 유입의 주역으로 이승훈·정약용과 함께 포교에 힘쓰다 순교한 권철신·권일신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동면 서리에는 공소가 여럿 있었는데 모두 사라지고 현재 사리티 공소만 남아있다.



고초골 공소 입구 안내판



고초골 공소 내부

수원교구 최고(最古) 한옥 공소, 고초골 공소

2018년 3월 9일 국가 등록문화재 제708호로 지정된 고초골 공소는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공소다. 최덕기 주교가 공소회장으로 머물며 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간이기도 하며 성지와 피정의 집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초골 공소는 이동읍 묵리 굴암골에서 문수산 터널을 지나 한적한 마을인 원삼면 학일리에 있다.

학일리에서 마을로 진입하면 문수산 끝자락 고초골에 다다른다. 고초골 입구에서 눈을 크게 뜨고 마을 안쪽을 바라보면 '고초골 피정의 집'이라는 안내판이 보인다. 10여 년 전만 해도 고초골은 이렇게 쉽게 닿을 수 있는 마을이 아닌 용인의 대표적인 오지였다. 경기도의 522억 투자로 2009년 개통된 이동면과 원삼면을 연결해 주는 도로 덕분에 가까운 마을이 된 것이다.

1. 고초골과 고초골 공소의 유래

고초골의 사전적 의미는 枯草로 시들어 마른 풀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고초골 공소의 지명에 관한 전설은 세 가지가 내려온다. 이곳 출신으로 병자호란 때 삼학사 중 한 사람이었던 추담 오달제 선생이 출생에 관한 것으로 그가 태어난 후 3일 동안 이곳의 풀이 말랐기 때문에 고초골이 되었다는 설과 병인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이 심한 고초를 겪어 고초골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높은 고개 마을을 뜻



고초골 공소 종탑

하는 고치(高峙)동이 고추로 변화되고 그 한자표기가 고초(枯草)로 바뀌어 고초골로 변했다는 설이다.

첫 번째 설인 추담 오달제와 관련한 것은 고초골의 지명에 병자호란의 아픔에 더해서 각색된 것으로 보인다. 추담의 부인인 의령남씨의 묘지에 있는 묘지명에는 추담이 서울에서 출생한 것으로 적고 있다. 또한 천주교 박해 때 많은 천주교인이 고초를 겪으며 마을 이름이 고초골이 되었다 하는 설은 마을 주민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사료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충청도의 양지군 전역과 죽산군의 근일면, 근이면, 근삼면, 원일면, 원삼면이 용인군으로 편입되었으니 고초골의 명칭은 <죽산부읍지>에서 찾을 수 있다. 1899년의 <죽산부읍지>에는 죽산군 원삼면 문촌리에 속한 고초(古草)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 내용이 맞는다면 고초골은 풀이 시들어 말라 죽었다는 枯草가 아니라 古草 혹은 高峙가 되어야 할 것이다.

풀이 말라 죽어 고초골이 되었든, 고초를 겪어 고초골이 되었든, 높은 골짜기를 부르는 말인 고치골이든, 고초골이든 이 마을은 문수산 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50~60호의 천주교 신자가 다수 사는 오지였다.

오지는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였으니 박해를 피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도는 신자들에게는 안전한 장소였다. ‘숨겨진 마을’인 은이 마을처럼 숨겨지길 바라며 골짜기 깊은 곳으로 숨어든 신자들이 용인에는 많았는데 고초골도 그런 마을 중 하나로 이

곳에 공소가 있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공소는 본당보다 작아 본당 주임신부가 상주하지 않고 순회하는 구역에 있는 천주교공동체를 말한다. 교우촌이 형성된 곳에서는 예배를 볼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동체는 작은 성당인 공소를 마련하게 된다. 원삼면 고초골에 자리한 공소는 수원교구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옥 공소로, 1866년 병인박해 때 천주교 신자를 처형한 기록인 「병인치명사적」에 거명된 곳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신 안드레아(고초골 거주, 서울에서 교수형), 박 바르바라(고초골 거주, 서울에서 교수형), 유군심 치칠로((고초골 거주, 해미에서 순교), 유군심의 아내(고초골 거주, 해미에서 순교), 유군심의 제수(고초골 거주, 해미에서 순교)와 같이 고초골 출신 5명이 처형된다. 한양과 해미에서 파견된 포졸들은 고초골 교우촌 천주교인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마을에 불을 지른 후, 교인들은 체포해 끌고 갔다. 체포된 신 안드레아는 당시 65세로 가족과 함께 고초골로 피신하여 다섯 달을 쫓기다가 포졸 10명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순교한 교인이고, 유군심 치칠로는 당시 39세로 고초골 출생으로 해미에서 파견 나온 포졸에게 체포되어 옷이 벗긴 채 공중에 매달려 채찍질을 당하다가 비신자인 양반의 도움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1867년 2월 포졸을 피해 홍주 대전골(당진군 합덕읍 대전리)에 숨어 살던 중 다시 해미에서 온 포졸에게 체포되어 아내와 과부가 된 제수와 조카들까지 체포되어 처형당한다.

「병인치명사적」에 의한 순교자의 기록이 그러하니 교우촌의 형성은 그 이전이 될 것이나 이 마을에

언제부터 천주교 신자가 거주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수원교회사 연구소 <상교우서>의 1893년~1937년 교세 통계표에 따르면 고초골 공소는 미리내성당 관할 공소로 1900년 78명이던 공소 신자는 1910년에는 140명, 1924년에는 226명, 1937년 242명으로 나타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선교의 자유가 허락되자 신자들이 유입되어 그 수가 증가하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공간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래서 영·정조 때의 무신(武臣) 이주국 장군 소유의 건물 중 하나를 해체하여 그 자재로 공소 건물을 지은 것이 지금의 경당 건물이다. 고초골 신자들은 경당 건물이 세워진 지 약 150년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고초골 공소의 역사적 기록

1) 조선대목구장 뒤편 주교 일기

제8대 조선대목구장 뒤편은 조선 선교사로 재임하는 동안 교회 활동 및 선교사에 대한 업무 보고 내용 등을 기록한 일기를 써왔다. 1902년 11월 서울 남부 지역 사목 순방 일기에 따르면 '1902년 11월 11일 수종을 앓고 있는 박 야고보 회장택을 찾아보기 위해 은이 마을에 묵었다'하고 '14일 옹기마을(현 원삼면 사암리)에 잠시 들렀다가 마지막 산을 넘기 전에 고초골 공소에서 잠시 멈추었다. 여기에서 교우들에게 국수를 대접받았다. 산을 넘으니 미리내였다. 현재의

본당은 1884년 방문했던 공소 집보다 조금 아래쪽, 큰 골짜기 안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2) 조선 세 번째 사제 강도영 마르코 신부 서한집

강도영 마르코 신부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최양업 신부의 뒤를 이어 동료 강성삼과 정규량 네오 신부와 함께 세 번째로 사제가 된 분이다. 그의 서한에 따르면 1916년 2월 16일 뒤편 주교에게 편지 쓴 장소는 고초골 공소였다. 1921년 8월 29일 미리내에서 드브레 주교에게 쓴 편지에서는 작은 경당이 있는 3곳 중 하나로 고초골 공소를 언급하며 미리내에서 10리 거리에 있다고 소개했다. 1922년 5월 뒤편 주교에게 보낸 연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학일리 공소에는 소년, 소녀를 위한 학교가 한 개씩 있어 기도와 문답과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년 학교에는 20명, 소녀 학교에는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미리 내에도 역시 남녀, 두 개의 학교가 있어 남학생은 30명, 여학생은 대략 10명입니다. 결혼 안 한 동정녀들이 선생인데 의·식만 해결해 줍니다..... 학일리 여학생들은 선생의 양식만 해결하고 옷은 제가(=강도영 신부) 제공합니다."

1924년 12월 22일 미리내에서 쓴 120번째 편지에서는 "예수 성탄 침례에 박(동헌) 마르코 신부(당시 미리내 보좌신부였고 후에 양지분당 초대 주임신부가 된)가 교우들의 요청에 따라 고초골 공소로 가서 성사를 주고 대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신묘년 3월 16일 입주상량

3. 고초골 공소의 특징 및 현황

설립된 해는 선교가 공인된 1891년으로 추정한다. 기둥에 마룻대를 올리면서 날짜와 내용을 적어 붙이는 글인 상량 목서에 '신묘년 3월 16일 입주상량'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건축 자재는 학일리 서북쪽 문춘리에 있는 조선 영조와 정조 시대에 활약했던 무신인 이주국(李柱國) 장군의 고택에 속했던 잠실(蠶室) 혹은 부속 별채 가운데 한 채를 헐어낼 때 생긴 부재였다고 한다.

1891년 경당은 정면 3칸, 측면 5칸의 전체 면적 80㎡ 규모로 초가집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몇 차례의 보수를 거쳐 변형되어 최근까지만 해도 목조 한옥의 지붕은 팔작지붕, 함석 기와로 되어 있었다. 2000년 지붕 교체 시 앞쪽에 뒷마루를 설치하고 지붕을 이어내림지붕으로 가설되면서 변형이 시작된 것이다. 2004년 기와를 올렸고, 2013년 지금의 팔작지붕으로 바뀌었다. 전체적인 모습은 최초의 원형을 잃지 않았지만 원래 초가였던 건물에 기와를 올리고, 일부 부재의 교체로 내부 기둥과 대들보 일부가 보강된 것이다. 2019년 6월 19일 보고한 용인 천주교 유적 학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초골 공소 연혁 및 수리 기록은 다음과 같다.



복원 전 고초골 공소의 모습. (2022년 11월 기와의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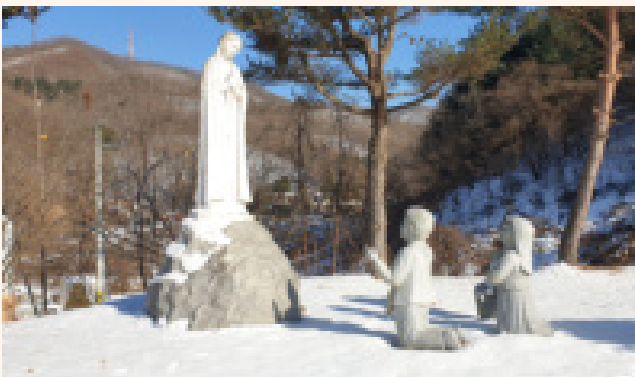
연대	이 력
1891년	안 군수택(이주국 장군 생가) 뒤에 있던 잠실을 헐어다가 건축(목조초가)
1998년	기둥 4개소 교체 및 천장보수(합판덧댐)
2004년	지붕교체(함석→기와), 바닥교체(마루→콘크리트+장판마감)
2005년	기둥보강(기와하중문제), 기단 시멘트 시공, 창문 보수, 기둥 페인트칠
2013년	지붕교체(기와→함석강판)
2018년 3월 9일	등록문화재 제708호 지정

수원교구와 용인시는 2020년 고초골 공소의 복원을 결정하고, 설계와 문화재청 예산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해체 보수공사 실시 설계’ 작업을 진행하여 2022년 12월 현재 복원 공사가 완료되었다. 1891년 공소의 모습인 초가의 한옥, 출입구 변경 복원 등을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초창기 모습으로 복원된 것이다.



복원된 고초골 공소의 모습. (2022년 12월 초가의 공사)

한국인 최초 사제 김대건의 가족이 용인에서 처음 정착한 한덕골 교우촌



용인 시내에서 이동면 묵리 방향으로 10 km가량 가면 ‘피난 교우촌 한덕골’이라는 표석을 볼 수 있다. 이 표석이 알려주는 화살표를 따라 1.3km 올라가다 보면 ‘산골짜기’ 느낌이 물씬 나는 길과 함께하게 된다.

묵 4리에 속하는 한덕골은 한국의 첫 사제인 김대건 신부 가족이 충남 당진 우강면 송산리 솔피에서 박해를 피해 피난 온 곳으로 더욱 유명해진 장소이며, 최양업 신부와도 인연이 깊은 교우촌이었다.

1. 한덕골 지명 유래

이동면 묵리는 본래 용인현의 상동촌면에 속하였던 마을로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묵동 일부와 장촌, 거문정, 굴암, 한덕, 묵방, 염치 등을 합쳐 부르는 지명이다. 이곳은 용인에서 가장 깊은 계곡이 주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북쪽의 굴암산과 남쪽의 시궁산, 삼봉산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 경사가 급하고 골짜기의 폭이 좁아 경작지는 많지 않다.

원래 한덕골은 윗마을 광파리골과 아랫마을 한덕골을 합쳐서 부르던 이름으로 그중 교우촌은 윗마을인 광파리골을 말한다. 이름도 특이한 광파리

골은 광팔곡(廣八谷)을 일컫는 말이다. 마을 주변에 여덟 곳에 이르는 골짜기가 있어서 팔곡(八谷)이며, 그 여덟 골짜기 중 가장 넓은 골(谷)에 마을이 있다하여 광팔곡 혹은 광파리골로 불린 것이다.

그만큼 한덕골 교우촌은 사방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2. 두 신부의 한덕골 인연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 1821~1846)의 아명은 재복이로 그의 조부는 김택현(金澤鉉, 1766~1830)이다. 김택현은 박해를 피해 온 가족을 이끌고 충남 당진 우강면 송산리 솔피를 떠나 서울 청파로 피난갔다가 용인 한덕골로 내려와 터를 잡는다.

팔곡(八谷) 중에서도 가장 골이 넓다는 광파리골로 들어 온 김대건 신부의 가족은 처음에는 기거할 집이 없어 성애골이라고 하는 마을 근처 골짜기로 들어가 생나무에 칙으로 엮어매고 역새 풀을 덮어 만든 집에서 살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1835년 무렵 용인 골배 마실로 이주하기 전까지 꽤 오랜 기간 김 신부의 가족이 교우촌을 일군 곳은 한덕골이었고, 조부와 숙부의 묘가 있는 곳도 한덕골이었다. 김대건 신부의 족보에 의하면 조부 김택현과 숙부 김제철(金濟哲, 1803-1835)의 묘가 한덕동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崔良業, 토마스, 1821~1861) 신부의 큰아버지 최영겸 일가가 1937년부터 정착해 살았던 곳도 한덕골이다. 기해박

해 때 최양업 신부의 아버지 최경환과 어머니 이성례가 순교하자 최양업의 막내 동생 최신정은 큰아버지 덕인 한덕골에서 성장하게 된다. 1849년 4월 15일 중국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최양업은 이듬해 귀국하여 한덕골에서 큰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상봉한다. 이후 최양업 신부는 자주 한덕골 교우촌에 들러 성사를 주곤 하였다고 한다.

3. 한덕골 성지 조성

세월이 지나 잊힐뻔한 한덕골을 발굴하고 성지 조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은 한의사인 인천교구의 김진용 씨였다. 평화신문 2000년 12월 10일 자에 따르면 그는 교회사 연구와 성지개발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한덕골 사적지의 역사를 찾아내고 한덕동 일대의 부지 603평을 손수 매입하여 수원교구에 기증하였다. 순교사적지를 관리하는 천리성당은 2006년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6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대형 십자가와 야외 제대, 그리고 양옆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 상을 설치하고 안내판을 세워 한덕골 교우촌 사적지를 조성하였다. 2010년 5월에는 파티마의 성모상을 설치하여 축복식을 했다. 현재 최양업 신부의 동상은 천리성당으로 모셔져 있고, 김대건 신부의 동상과 대형 십자가와 성모상이 한덕골 교우촌 성지를 지키고 있다.

전설의 공소, 사리티 공소



현재 사리티 공소 전면



사리티 공소 안채

이동면 서리의 사리티 공소는 천주교 박해 당시 200여 호의 교우가 숨어 살았던 규모가 꽤 큰 공동체였으며 지금도 공소가 보존되어 있다. 또한 신부와 관련된 ‘신부터’, ‘붉은 고개’와 같은 지명이 존재하고 있고, 김대건 신부의 사목 활동지 중 하나로 구전되고 있으나 조명받지 못하고 전설이 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곳이다. 용인문화원에서 2018년 서리 마을지를 집필한 후 4년 만에 다시 찾은 이동면 서리의 사리티 공소는 종탑이 없고, 종탑 틀 위로 까마귀 몇 마리가 놀이터 삼아 날아들고 있었다.

1. 사리티 지명 유래 및 사리티 공소 유래

사리티는 처인구 이동면 서리의 상반 마을을 가리키는 말로 막다른 마을을 뜻한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고, 한쪽만 틈이 있어 마을로 들어가는 길도 하나뿐일 정도로 오지를 말한다.

이곳에 천주교 신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언급은 권일신 이후였다. 1791년 진산사건으로 인한 천주교 탄압으로 고초를 겪고 귀향을 가던 권일신이 용인군 구성면에서(현 수지구 죽전동) 장독으로 객사하자 그의 자손들이 시신을 선산에 안치하고 박해를 피해 사리티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1860년 호조판서 조일의 손자 조면이 천주교에 입교하여 박해를 피해 사리티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그는 1898년 사리티 공소를 건립하고 초대 공소 회장이 된다.

서리 지역에 신자들이 모여 공소를 건립하니 공소가 여럿 있었다. 1896년 뫼텔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은 강도영 마르코 신부의 서한집에 따르면 서리에는 사리티 공소, 조이골 공소, 승방뜰 공소, 새터, 안터, 더욱골 공소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현존하는 곳은 사리티 공소뿐이다.

수원교회사 연구소의 <상교우서> 신자 통계에 따르면 사리티 공소는 1893년에 신자 수가 43명에서 1900년에 158명으로 증가한다.

2. 신부와 관련된 지명

마을 입구에(서리 137번길) 들어서서 안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신부터'(서리 1046번지)로 불리는 야트막한 동산이 나온다.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 신부가 머물던 공간이라 하여 '신부터'라 한다. '신부터'에 온 신부는 대단한 분이거나 하루 이틀 머물던 공간이 아니었을 듯싶다. 멀지 않은 동산 옆으로 고갯길이 있는데 이 고개를 '붉은 고개'(서리 산87-1, 산 86-1)라 부른다. '붉은 고개'는 유명한 신부가 사리티 공소로 왔다 밤중에 호랑이에게 물려 피를 흘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때 끌려가던 신자들이 피를 흘려 고개가 피로 물들었다 하는 설이 있다. 둘 다 천주교와 관련된 설화요, 신부와 관련된 설화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설화의 주인공은 페레올 주교 이거나 김대건 신부인 것으로 추정되나 문헌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페레올 주교는 1838년 기해박해 1년 전 파리 외방전교회의 신부가 된 뒤, 조선 선교사로 파송 명령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입국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다가, 1845년 김대건 신부의 안내로 해로를 통해 충청도를 거쳐 서울로 들어와 비밀리에 각지를 돌며 신도들을 격려하였다. 김대건 신부의 사목지로 기록된 곳은 서울 둘우

물골, 양지 배마실, 은이, 양지 터골이기에 사리티는 김 신부의 사목지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시 김대건 신부가 사목 활동했다는 삼덕고개에 사리티가 인접하고, 초대 교회의 주역인 이승훈·정약용과 함께 포교에 힘쓰다 순교한 권철신·권일신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사리티를 사목 지역에서 제외했을리 만무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3. 문헌에 따른 사리티 공소와 현존하는 사리티 공소

뫼텔주교가 1902년 11월 17일 남긴 일기에 의하면 "네 개의 작은 신자 마을들이 협의해서 같이 사용할 작은 경당을 거기에다 지었다. 그것은 'ㄱ'자 형으로 지어졌는데 남자들은 3칸짜리 한쪽을 사용하고 여자들은 2칸을 사용하고 있다. 성당으로 쓰이는 작은 방은 양쪽으로 다 통해 있다. 견진자는 40명가량. 저녁때 갖등이의 짐꾼들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그러니 내일 떠나기 위해서는 사리티 교우들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강도영 마르코 신부는 사제 서품받고 안성 미리내 본당에 부임하여 34년간 사목 활동하며 양지, 죽산, 이천, 광주, 용인, 양성 일대를 관할하였는데 그의 서한집에는 사리티 공소가 '사리치'로 언급이 되고 있다.

사리티 공소는 1866년 병인박해 이후 호조판서 조일의 손자인 조면 바오로에 의해 1898년경 초가집으로 지은 것으로, 이후 초가집이 낡고 허물어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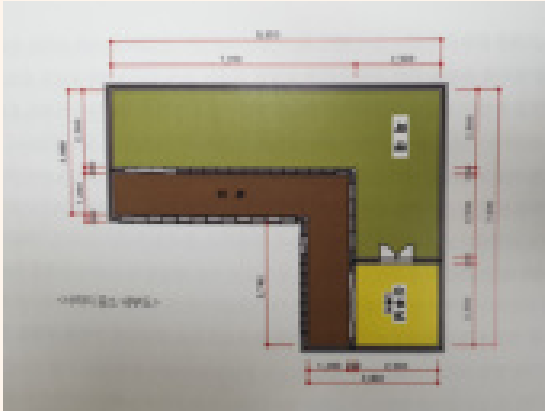


김남수 안젤로 교구장께서 사리티 공소에 대해 용인성당에 보낸 라틴어 문서: 1978년 4월 29일 수원교구 김남수 안젤로 교구장께서 용인성당에 보낸 라틴어 문서다. 80년대 이전교회 문서는 국내용이라 해도 라틴어로 작성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에 대한 축하 인사와 더불어 성체를 보존할 수 있다는 교구장 주교의 확인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제가 상주 하지 않는 공소의 경우 반드시 주교의 성체 보존과 감실 허가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했기에 이 문서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1977년 마룻대를 상량하며 기와를 얹고 재건하였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1990년경 기와를 전면 보수 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상량대에는 1977년 6월 11일 이란 날짜가 새겨져 있다.

1990년대 초, 기와 보수는 서리 지역 지장사의 성정 스님이 사리티 공소 회장을 찾아가 자발적으로 후원한 500만 원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내 종교가 귀하듯 다른 종교를 귀하게 여긴 것뿐 특별한 것이 없는데 어찌 이리 오셨소.” 말씀하시는 성정 스님은(지장사, 80세) 천주교 역사의 상징이자 기도의 장소인 공소가 폐가가 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당시 500만 원이 거금인 줄 알지만 아까운 줄 모르고 드렸다고 한다.





사리티 공소 내부도



사리티 공소 내부

현재의 공소는 초기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ㄱ’ 형태의 건물에 남녀 교우가 나누어 출입했던 문이 있으며 신부의 제의실을 겸한 고해성사를 위한 별도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 제대에서 바라보는 정면이 남성 신자들의 자리이며 제대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여성 신자들이 착석하는 자리다. 대문을 바라볼 때 좌측에 흰색 예수상이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보고 서 있다. 입구는 시멘트 담과 철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철문 위에 철탑 종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2022년 12월 현재 종탑 없이 초록 대문만 존재한다. 현재 종은 천리성당의 구(舊)성당 복원에 쓰이기 위해 옮겨져 있어 철재만 공소 입구 왼편 바닥에 세워져 있다.



권철신·권일신 일가의 7대손 권순일의 아버지(권군성 1914~1984) 회갑연을 사리티 공소에서 치르고 찍은 가족사진이다. 사진 상부 중앙에 종과 목패가 있는데 이 목패에 천주교라고 적혀있다. 1977년 재건 전 초창기 초가집 공소의 모습이다.

용인의 가톨릭 성지 ③

손골성지

박정순 _ 삼가초등학교 교사

손골성지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광교산(光橋山, 582m) 동편 기슭에 위치해 있다. 손골이라는 지명은 향기로운 풀이 많아 ‘향기로운 골짜기’라는 뜻으로 손곡(蓀谷)이라 하던 것이 ‘손골’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소나무가 울창한 골짜기라 하여 송골(松谷)이라 하던 것이 ‘손골’로 변음되었다는 설이 있다. 특히 과거에는 ‘소리울’이라 불리었다고 하는데, ‘소리울’은 ‘송골’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즉 소나무가 울창한 골짜기라는 뜻이거나 소나무 숲이 울타리마냥 마을을 둘러쌌다 해서 ‘솔울’이었다가 ‘소리울’이 되었을 것이다.

손골 교우촌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교회사 측면에서 보면 손

골 교우촌은 매우 유서 깊은 성지라 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회 두 번째 방인(邦人) 사제인 최양업 신부가 여기서 여러 해 동안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인 사제는 그 나라 출신의, 그 나라의 사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방인(邦人) 사제인 김대건 신부도 용인 사람이다. 이어서 파리외방전교회 다블뤼 신부(Daveluy, 1818-1866)가 손골에서 머물렀고, 페롱 신부(Feron, 1827-1903), 칼레 신부(Calais, 1833-1884), 그리고 조안노 신부(Joanno, 1832-1863)가 조선에 잠입해서 여기서 조선어와 풍습을 익혔다. 그 다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는 오매트르(Aumaitre, 1837~1866) 신부였으며 마지막은 도리 신부(Dorie, 1839-1866)이다.





손골성지 옛모습(박해 이전)

1. 교우촌의 형성과 규모

지금은 도시화의 흐름을 타고 손골성지 주변에 수 많은 주택과 빌라가 들어서고 있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매우 외진 마을이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산속 외진 골짜기이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교우촌(敎友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교우촌이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모여 사는 마을을 가리킨다.

손골 교우촌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교우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신해박해(1791년) 때부터였다. 특히 초기 교회 가장 큰 박해였던 신유박해(1801) 이후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나 충청도 등으로 숨어들어 교우촌을 이루며 살

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에서도 박해가 일어나 이번에는 지방에 살던 신자들도 이주해야 했다. 어떤 신자들은 서울 가까스로 이동하여 교우촌을 이루며 살았는데, 신자들 상호간 연락도 되고 서로 도우며 신앙생활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해박해 이전에 이미 서울 가까이에 교우촌이 형성되었다.

교회사의 흐름에 따라 유추해 볼 때 손골 교우촌은 적어도 기해박해(1839년) 전후에 형성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병인박해 이전에 이미 손골교우촌은 안정적이었던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아니라면 기해박해 직후에 생겼을 것이다. 1831년 조선대리감목구(朝鮮代理監牧區)가 설정되



다블뤼 신부



페롱신부



최양업 신부

고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울 근교에는 교우촌이 많이 형성되었다. 선교사들이 자연스레 서울 중심으로 사목을 하게 되자 신부들 가까이 있어야 성사나 미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서울 근교에 교우촌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병인박해 때 손골에서 체포되어 새남터에서 순교한 도리 신부의 편지에 따르면, 도리 신부가 손골에 체류할 당시 손골에는 신자들만 살고 있었고 모두 12가구였다고 한다. 그리고 박해가 끝난 다음 1900년 하우현에 본당이 생겼을 때 그 소속 공소(公所)로 편입된 손골 교우촌의 신자가 47명이었다.

이렇게 볼 때 손골에는 적어도 45-50명 정도의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 같다. 도리 신부의 말에 따르면, 손골의 교우들은 주로 담배 농사를 하며 근근이 생계를 꾸려갔고, 논이 조금 있기는 하였지만 홍수로 폐허가 되어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생활을 하며 살았다.

2. 손골에 머물렀던 선교사들

천주교 박해가 한창인 가운데 서양 선교사들이 입국하게 되면 안전한 곳에서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했다. 우선 새로운 언어와 풍습을 익혀야 했고, 조선에서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다.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머물면서 도움을 받으려면 신자들만 모여 사는 적합한 교우촌을 찾아야 했을 것이다.

손골 교우촌은 그런 면에서 선교사들의 신뢰를 받았던 것 같다. 박해 시기인 1857년부터 1866년까지 여러 명의 선교사가 손골에 거처하며 신자들의 도움 속에 적응 기간을 거쳤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도 여름철이 되면 손골을 찾아와 피정도 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도 하였다. 이는 손골 교우촌의 신자들이 신앙이 깊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손골에 머무는 동안 좁은 방에서 조선의 말과 풍습을 익히

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방이 곧 경당이었다. 방에 널빤지로 제대를 만들어 흙벽에 고정시키고 그곳에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한국 교회사 관련 자료 중에서 손골이 처음 언급된 것은 다블뤼(Daveluy, 安敦伊) 신부의 편지이다. 다블뤼 신부가 1853년 9월 18일 부모에게 보낸 편지의 발신지가 손골이었다. 또 1850년 페레올(Ferreol, 高) 주교의 명령으로 서울 근교에 머물며 어린 소년들을 모아 라틴어를 가르쳤는데 그곳을 손골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다가 손골이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에게 조선어와 풍습을 익히는 장소가 된 것은 1857년이다. 1854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제4대 조선 대목구장 베르뇌(Berneux) 주교는 페롱(Feron, 權) 신부가 1857년 3월 입국하자 그를 손골로 보냈다. 그래서 맨 처음 손골 교우촌에 거주하면서 조선어를 익힌 선교사가 페롱 신부이다. 그런데 페롱 신부가 손골을 찾았을 때 이미 최양업 신부가 손골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손골과 상당한 인연을 가지고 왕래를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최양업(1821~1861) 신부는 김대건 신부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로 1836년 은이성지에서 당시 김대건, 최방제와 함께 마카오 유학을 떠나 1849년 변문 의주를 거쳐 한국하여 열두 해 동안 사목한 다음 1861년 경북 문경에서 병사하였다. 최양업의 제수인 송 아가다(1853년 동생 최신정과 혼인)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 땅 소리울에서 시숙 신부를 1859년

경신박해 이전까지 모셨다고 했는데, 정양모(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신부는 '소리울'이 바로 '손골성지'라고 주장한다.

1861년 4월 7일 서울 베르뇌 주교택에는 새로 입국한 선교사 4명이 도착했다. 이들 중 조안노(Joanno, 吳) 신부와 칼레(Calais, 姜) 신부는 손골로 배치되었다. 조안노 신부와 칼레 신부가 손골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힌 기간은 1861년 4월 말부터 그해 말까지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안노 신부와 칼레 신부가 손골에 있던 1861년 성모승천 축일 때는 베르뇌 주교와 랑드르(Landre, 洪) 신부가 손골로 두 선교사를 찾아와 함께 머물며 휴식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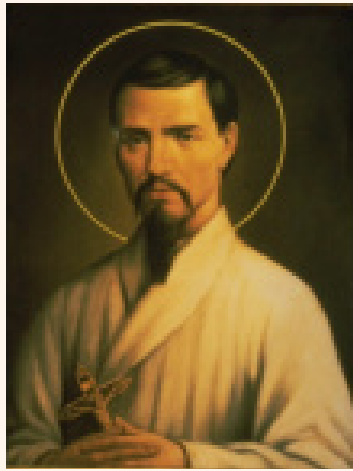
조안노 신부와 칼레 신부 다음으로 손골 교우촌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힌 선교사는 1863년 6월 23일 입국한 오매트르 신부였다. 오매트르 신부는 서울에서 한 달가량 지내고 1863년 7월 말경 손골에 왔다. 오매트르 신부의 손골 생활은 1864년 10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손골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기 위해 손골에 마지막으로 온 선교사는 도리 신부이다. 도리 신부는 1865년 6월 23일 오후 5시경 손골에 왔고 열심히 조선어와 풍습을 익히던 중 병인박해 때 체포되어 순교했다.

3. 손골 교우촌의 순교자들

손골 교우촌과 관계있는 순교자로는 우선 도리(Dorie Henry, 1839-1866) 신부와 오매트르

(Pierre Aumaitre, 1837~1866) 신부가 있다. 도리 신부는 1866년 2월 27일 오후 1시경 체포되어 3월 7일 서울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오매트르 신부는 도리 신부 순교한 후인 3월 11일 충남 거더리에서 체포되어 3월 30일 보령 갈매못에서 순교하였다. 두 순교자 모두 103위 성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오매트르 신부



도리 신부

두 성인 신부들 말고도 손골교우촌에서 선교사들의 지도를 받았던 신자들 중에도 순교한 이들이 여럿 있다. 병인박해가 시작되자 도리 신부는 손골교우촌에 함께 있던 신자들을 모두 손골에서 떠나게 한 뒤 홀로 남아 있다가 체포되었다. 손골교우촌 신자들은 도리 신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골을 떠났지만 다른 곳에 가서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많이 순교하였다. 그 중에서 다음의 삼대(三代)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이요한, 아들 베드로, 손자 프란치스코 3대가 손골에서 살다가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가족은 용인 남성골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아들 베드로가 용인 포교에게 체포됐다가 석방됐고, 1867년 10월에는 3대가 모두 체포됐다가 다시 석방됐다. 이후 아산 일북면 쇠재(현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로 다시 이주해 살던 중 1871년 4월 13일 서울에서 내려온 좌포도청의 포교와 아산 포교가 함께 들이닥쳐 가족 3대가 체포되었다. 아산 관아로 압송된 가족은 문초와 형벌 가운데서도 천주교 신자임을 분명히 밝혔다. 아산 관장이 “왜 3대가 함께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손자 프란치스코가 나서서 “아무리 3대라도 뭇

이 다 따로따로이니, 만 번을 죽는다더라도 은혜로우신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소”라고 하며 신앙을 고백했다. 이에 가족은 서울 좌포도청으로 압송되었고, 좌포도청 관리가 “3대를 함께 죽일 수는 없다”며 배교하라고 강요하자 “이처럼 좋은 때를 늘 기다려 왔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요한과 아들 베드로, 손자 프란치스코는 함께 1871년 5월 8일 순교했다. 당시 손자 프란치스코는 20세였다.

4. 순례지가 된 손골

손골이 순례지가 된 데에는 참으로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한국에서가 아니라 도리 신부의 고향에서 주도하여 순례지가 된 것이다. 도리 신부는 프랑스 방데(Vendée) 지방의 생 툴라르 드 팔몽(Saint-Hilaire de Talmont) 본당 출신이다. 죠셉 그렐레(Joseph Grelet)라는 신부가 1956년부터 1966년까지 이 본당의 주임으로 있었는데 도리 신부를 비롯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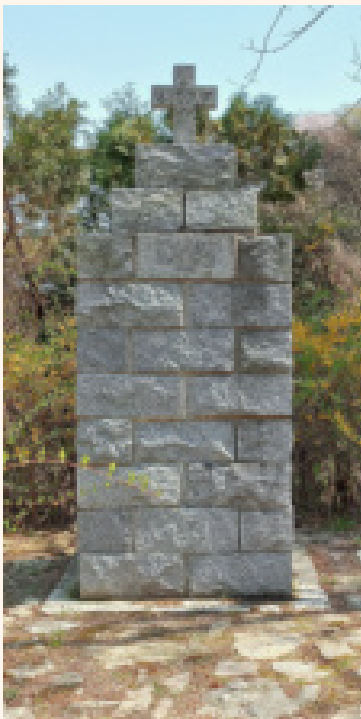
한국 순교자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럴레 신부는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순교 100주년이 되는 1966년 이전에 도리 신부 등 병인박해 순교자들이 시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교황청 시성성(諡聖省)을 비롯하여 프랑스 주재 교황대사, 한국 주재 교황대사, 프랑스 주교회의, 한국 주교회의 등에 편지를 보내 시복을 속히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렇게 노력하던 그럴레 신부는 1963년경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손골을 순례하고 1964년 『조선, 순교자들의 땅(La Corée, Terre de Martyrs)』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1966년에는 도리 신부 순교 100주년을 맞아 도리 신부가 살았던 손골과 도리 신부의 고향 프랑스 방데 지방의 딸몽을 연결하였다. 도리 신부

의 부친이 사용하던 화강암(granit) 맏돌에서 똑같이 생긴 십자가를 두 개 만들었다. 그런 다음 하나는 고향에 두고 다른 하나는 한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도리 신부가 탄생한 곳과 도리 신부가 선교하러 와서 생의 마지막을 보냈던 곳을 연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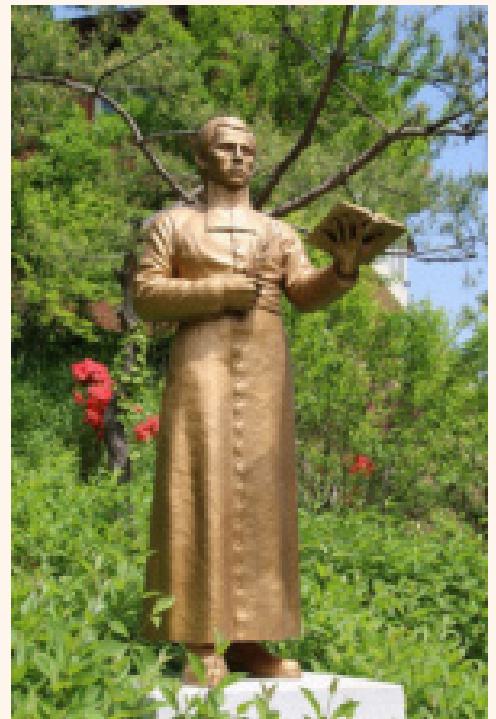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돌 십자가 하나는 1966년 3월 8일(원래 순교일은 3월 7일인데 프랑스에서는 8일로 잘못 알고 있었다)도리 신부 순교기념일에 도리 신부 생가 벽에 모셨다. 그리고 한국에 보내온 다른 돌 십자가는 당시 손골 공소(公所)를 사목하던 수원 복수동 본당 주임 류봉구(아우구스티노) 신부가 받았다. 류봉구 신부는 그 돌 십자가를 근거로 손골에 도리 신부의 순교를 기념하는 비(碑)를 세웠다. 한국산 화강암으로 큰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



도리 신부 현양비



도리신부 고향에서 보내온 돌 십자가



오메트르 신부상



손골기념관



기념관 내부

을 쌓아 탑 모양의 현양비를 세웠던 것이다. 이 비의 맨 꼭대기에는 팔뚝에서 보내온 돌 십자가를 올려놓았고 이 비는 1966년 10월 24일 축복되었다.

이렇게 현양비를 만들면서 손골 순례가 시작되었고 손골에서 도리 신부를 적극적으로 기념하게 되었다. 도리 신부의 순교 정신을 현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직접 손골을 순례하기까지 한 프랑스인 그렐레 신부의 수고가 이런 결과를 낸 것이다.

손골이 순례지로 발전하는 데에는 프랑스 쪽의 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돌 십자가를 받은 류봉구 신부의 수고도 있었다. 그리고 파티마 성모 프란치스코 수녀회 창립자 이우철 신부의 수고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순교자의 후손인 이우철 신부는 고아들을 위해 성심원을 창립하였는데, 서울 잠원동에서 수지 동천동으로 성심원을 옮겨 파티마 수녀들과 함께 운영하였다. 1988년 성심원 후원자들로 구성된 성심가족회에서 손골을 개발하기 위해 성지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교구의 인준을 받아 198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성심가족회에서는 1991년까지 손골에 경당을 짓고 대형 십자가와 성모상 등을 건립하였다. 또한 도리 신부 순교현양비도 세웠다. 이렇게 하여 손골이 순례지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파티마 수녀원에서는 1997년부터 손골에 수녀를 파견하여 신자들의 순례를 돕고 있다. 그리고 수원교구에서는 그로부터 8년 후인 2005년부터 손골에 전담 신부를 두고 있다.

5. 맺는 글

손골은 선교사들이 언어와 풍습을 익히면서 선교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곳이었다. 박해가 극심한 시기였던 만큼 선교사들이 활동에 앞서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그곳이 바로 손골이었다. 손골은 선교사들이 보기에, 교우촌 중에서도 신심이 깊은 이들로 형성된 믿을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손골은 경기 지역 사목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선교사들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기도 했다.

손골성지를 상징하는 인물이 도리 신부인만큼 그의 기념관이 있다. 비록 임시 건물이고 또 작지만 소장품에는 귀한 것들이 많다. 먼저 도리 신부의 친필 편지 원본이 3통 있다. 특히 도리 신부가 1865년 10월 16일 손골에서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 이 친필 편지 원본들은 2007년 10월 17일 도리 신부가 소속되었던 뤼송(Luçon)교구에서 손골을 순례하면서 기증한 것이다.

또 도리 신부가 신학생 때 집에서 쓰던 침대보도 있다. 이 침대보는 도리 신부의 누이이며 대모(代母)인 뿔린느 도리(Pauline Dorie)의 후손들이 보관하

고 있다가 2007년 뤼송교구 순례단과 함께 손골에 왔을 때 기증한 것이다. 또 도리 신부가 신학생 때 쓰던 책들도 있다. 이 책들은 도리 신부 생가에 보관되어 있던 것인데 손골 도리 신부 기념관으로 기증한 것이다.

성당 뒤편에는 무명 순교자들이 안장되어 있다. 이들도 손골의 신자들이었다. 비록 순교자들의 이름조차도 남아 있지 않지만, 그들이 지켜낸 신앙은 여전히 향기로운 골짜기 손골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



무명 순교자 묘

용인의 가톨릭 성지 ④

김대건 신부의 출생지에 대하여

김장환 _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용인은 조선시대 정신문화의 뿌리를 내린 역사 인물들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고장이다. 조선 500년의 통치이념이었던 성리학의 초석을 다진 ‘동방이학의 시조’ 포은 정몽주 선생, 16세기 이후 점차 관념화되고 있는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실사구시 학문(실학)의 비조(鼻祖) 반계 유형원 선생,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로서 가톨릭의 피(씨앗)를 뿌린 김대건 신부가 바로 그분들이다.

세 사람 모두가 조선시대를 이끌어 온 사상체계의 효시로 인식되고 있는 인물로서 용인에 영면하고 있거나 용인이 탄생지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용인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용인시민들조차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톨릭 역사상 매우 중요한 성지임에도 관련 유적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선양사업은 지극히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본인은 김대건 신부가 용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는 기존의 학설을 넘어 그가 용인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사료나 행적을 통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김대건(金大建) 신부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

보겠다. 그는 1821년 8월 21일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솔피에서 아버지 김제준(金齊俊)과 어머니 고(高) 우르술라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세 때인 1827년 정해박해(丁亥迫害)를 피해 고향 솔피를 떠나 유랑하다가 서울 청파동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다시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한덕동을 거쳐 조부가 사망한 뒤 골배마실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15세 때인 1831년 모방(Maubant, P.) 신부에 의해 신학생으로 발탁, 최방제(崔方濟), 최양업(崔良業)과 함께 필리핀 마카오 신학교에서 중등과정의 교육을 마친 뒤 철학과 신학을 이수하였다. 1844년 만주에서 부제(副祭)가 되었고, 1845년 상해 금가항(金家巷)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의 집전하에 신품성사(神品聖事)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되었다.

같은 해 한국으로 돌아와 은이성지 등에서 사목 활동을 펼치다 이듬해인 1846년 5월 체포되었고, 9월 16일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되었다.

그러면 김대건 신부의 출생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가톨릭 관련 논문이나 문헌자료들은 대부분 그의 출생지를 당진 솔피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미 정설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될 만한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김대건 신부의 출생지에 관한 몇 가지 기록이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방 신부가 1836년 12월 3일 신학생 선서를 받고 조선신학교 교장에게 보낸 서한으로 ‘충청도 면천 솔피 출신의 김 안드레아(김대건의 세례명)’라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페레올 주교가 프랑스로 쓴 〈순교자들의 행적〉이라는 기록에 ‘안드레아는 1821년 8월에 충청도에서 출생하였다.’라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김대건 신부가 당진 솔피 출신이라는 몇몇 기록이 더 있지만, 이 기록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제3자의 기록이라는 점과 가톨릭 교회 측의 주장이라는 사실이다.

반면 김대건 신부가 직접 증언한 내용의 기록에는 그의 출생지가 용인이다. 그것도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관찬 사서의 하나로 국보 제153호이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일성록(日省錄)〉에 있는 내용이다.

현종 12년(1846) 5월 30일 자 ‘좌우포청 사학죄인 김대건 등 공초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渠本非他國人卽朝鮮龍仁地胎生姓金名再福(그는 본디 타국인이 아닙니다. 곧 조선 용인 땅 태생입니다. 성은 김이며 이름은 재복(본명)입니다.)

金大建~我國龍仁胎生隨入洋人解得方語而思慕故國獨自出來納告渠果是龍仁胎生則卽金濟俊之子也(김대건은 우리나라 용인 태생이며 서양 사람을 따라 들어가 서양말을 해득하고 고국이 그리워 홀로 나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가 과연 용인 태생이라면 그는 곧

김제준의 아들입니다.)

같은 〈일성록〉의 기록 중에도 당진에서 이주해 온 아버지 김제준에 관해서는 ‘그는 용인에 산다’(渠居生于龍仁)라고 ‘거생’으로 표기하면서도,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는 ‘용인 땅에서 태어났다’는 ‘용인지태생(龍仁地胎生)’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그의 출생지가 용인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 보인다. 더욱이 〈헌종실록〉에도 ‘대건은 용인사람’(大建以龍仁人)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정사(正史)에 해당하는 관찬 기록에는 모두 ‘용인 태생’, 또는 ‘용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교회 측의 기록에만 유독 ‘충청도 솔피’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성록〉의 글은 김대건 신부가 직접 증언한 내용의 기록이며, 반면 당진 솔피 출신이라는 자료들은 모두가 제3자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모나 조상이 살아온 곳을 가리켜 고향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가 용인에서 태어났어도 주위 사람들은 그를 당진 사람으로 인식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번에는 김대건 신부 집안의 종교 활동 내력과 그의 가족이 박해를 피해 언제 당진을 떠났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족이 당진을 떠난 시점이 언제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된다.

김대건 신부의 가족이 고향을 떠난 것은 1827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이 맞다면, 그가 1821년 8월 21일생이므로 그는 당진에서 태어났고, 7살에 고향을 떠난 것이 된다. 그러나 1827년에 당진을 떠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고 막연한 추정일 뿐이다.

김대건 신부의 가계를 살펴보면, 증조부가 김진후, 조부 김택현, 부는 김제준이다. 증조부 김진후는 네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종현, 택현, 한현, 희현이었고, 이 중 둘째 택현이 김대건 신부의 조부이다.

김대건 신부의 집안에서 최초로 천주교를 신앙한 사람은 그의 백조부 김종현과 조부 김택현이며, 뒤이어 증조부 김진후도 아들의 권유로 천주교를 신앙하게 되었다. 증조부는 1791년 신해박해 때 체포되어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1801년 신유박해 때 다시 체포되어 유배를 갔다가 풀려나 다시 1806년 해미진영에 체포되어 9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1814년 10월 20일 옥사하였다.

그런가하면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조부의 동생) 김한현은 안동 우련밭이라는 곳에서 17년 동안 숨어

살다가 1815년 을해박해 때 체포되어 대구에서 순교하였다. 그렇다면 증조부는 1798년이나 그 이전에 이미 고향을 떠난 것이다. 이로 미루어 이 집안은 박해로 인해 이미 이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김대건 신부의 조부인 김택현은 언제 고향을 떠났을까? 우선은 1791년 신해박해 때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당시 내포 지방에서는 김진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온갖 고초를 당했다. 김진후 보다 먼저 천주교를 신앙한 김종현과 김택현이 체포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런데 김택현이 체포된 기록은 당시에 없고 그 이후에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때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증조부 김한현이 1798년이나 그 이전에 고향을 떠나 안동 우련밭에서 17년 동안 은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김대건 신부의 조부, 김택현이 이주해 온 한덕골성지 (<https://blog.naver.com/9396477/222539604998>)



김대건 신부가 잠들어 있는 미리내성지 (<https://blog.naver.com/9396477/222539604998>)

또 김택현이 1791년경 고향을 떠났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 그의 첫 번째 부인인 경주 김씨가 1791년 26세로 사망했는데, 김씨의 묘가 온양군 남하면 용개동(현 아산시 도고면)에 있다는 사실이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 부인을 위해 명당을 찾아 멀리 온양까지 가서 묘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령 조부 김택현이 1791년 신해박해 때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증조부 김한현이 고향을 떠난 1798년, 증조부 김진후가 체포된 1801년, 또는 유배 후 다시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게 된 1805년, 아니면 옥사하던 1814년, 혹은 증조부 김한현이 순교한 1815년에는 적어도 고향을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집안 사람들이 연이어 체포되고 순교하는 상황에서 김택현만 온전했을 리 없고,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1827년까지 고향에 남아 있었을 까닭이 없다. 더구나 1827년의 정해박해는 전라도 곡성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충청도 내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갑자기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김택현은 그의 아들 김제준과 함께 빠르면 1791년, 늦어도 1815년에 고향을 떠나 유랑하다가 서울 청파로 올라가 몇 년을 살았고, 이후 보다 안전한 용인 땅(이동읍 묵리)으로 이사하여 1821년에 아들 김제준이 김재복(김대건 신부의 본명)을 낳았던 것이다.

용인의 숨은 보석 '서리 고려 백자 요지'

강진갑¹⁾



국보 68호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12세기 고려 청자문화 절정기의 작품으로, 풍만하면서도 유연한 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세련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12세기 고려 청자의 우수성은 10세기 용인 서리 등지에서 비롯된 청자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1. 머리말

용인에는 숨은 보석이 있다. 1989년 사적 329호로 지정된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이다. 고려 건국 직후인 10세기에 시흥, 배천 등지와 함께 한국 도자기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도자기는 10세기 하이테크이다. 용인은 10세기 한국 하이테크 문화산업이 시작된 지역이다.

용인에 천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새로운 하이테크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2019년 용인시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였다. 반도체는 21세기 하이테크이다. 용인시 원삼면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는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대

규모 프로젝트이다.²⁾ 용인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야할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이다. 10세기 하이테크 중심지였던 용인에 21세기 하이테크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용인시는 1990년대에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라는 보물을 가공하지 않고 원석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는 용인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다행히 용인이 2010년대 중반에 들어 이 가마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원석을 보물로 가꾸고 있다.

1) 문학박사,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 한국향토사연구전국연합회 이사장 · 뉴스더원 객원논설위원, 경기대 교수와 인문콘텐츠학회장, 경기학회장,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장을 지냈다. 『문화자치 시대의 한국 지역학』(2022), 『인천의 잊혀진 실학자 소남 윤동규』(2022), 『과천문화원 30년사』(2021), 『경기 천년의 문화사, 조선후기~현대』(2018) 외 역사학과 지역학, 지역문화 관련 40여 권의 저서가 있다.

2) 『반도체 클러스트' 용인 결정을 환영한다』, 『경기신문』 2019.2.21.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전경



용인서리 고려백자 요지에서 출토된 백자 및 청자 조각

용인시는 '반도체 중심 미래 용인 르네상스'를 새로운 도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과거 역사의 결과이고, 미래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역사는 미래를 여는 창이다. '용인 르네상스'의 진정함 힘은 역사에서 나온다, 그런데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기뻐하면서, 용인 역사가 품고 있는 하이테크의 역사를 놓치고 있다. 21세기 용인의 하이테크 역사는 10세기 용인 하이테크 역사의 부활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용인이 아픈 기억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진정한 의미의 르네상스를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작성하였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살펴본다. 이어 2000년대 경기도가 도자기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인 도자기 엑스포에 용인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과와 결과를 서술한다. 끝으로 21세기 새로운 하이테크 역사를 쓰고 있는 용인시가 10세기 하이테크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를 보

석으로 가꾸어 '용인 르네상스'를 이루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 도자 역사의 개막 : 고려 초 용인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지다

1) 10세기의 '하이테크' 도자기가 용인에서 생산되다

10세기 용인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졌다. 용인은 시흥, 배천 등지와 함께 한국 도자기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도자기는 10세기 하이테크이다. 21세기 들어 용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10세기 하이테크 중심지였던 용인에서 천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새로운 하이테크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용인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

다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기뻐하면서, 용인 역사가 품고 있는 하이테크의 역사를 놓치고 있다.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전 인류는 진흙을 불에 구운 토기를 그릇으로 사용하였다. 토기의 출현은 인류에게 진보를 가져다주었다. 토기를 그릇으로 사용하면서 인류는 식량을 보존하고 안정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는 토기를 사용하고 농업을 하면서 지구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도자기의 출현은 인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었다. 진흙에 유리질의 유약을 발라 1,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낸 도자기는 전체가 유리질 덩어리처럼 단단하였다. 도자기는 토기와 달리 용기에 담은 물기를 빨아들이지 않아 인류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약이 빚어낸 아름다움으로 인해 예술품이 되었다.³⁾

20세기의 대표적인 예술비평가인 허버트 리드는 "한 나라의 예술과 그 감수성의 정밀함은 그들이 만든 도자기에 의해 판단하라"고 하였다.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지가 한 나라의 문화의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도자기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10세기 그 기술이 고려사회에 전해져 한국에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용인과 시흥 배천 등지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선진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나라의 기술과 문화 수준이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고려 초 용인 일대의 기술과 문화 역량이 당대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국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

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초인 10세기 1,200도 이상의 고화도로 자기를 제작할 기술을 가진 나라는 고려와 중국뿐이었다. 유럽에 도자기 열풍이 불은 것은 16~17세기이며, 일본도 우리보다 약 700년 뒤에 도자기를 제작할 수 있었다. 10세기 고려 초 용인 일대에서 펼쳐진 도자기 제작은 당 시대 세계에서 최고의 하이테크 그 자체였다.

12세기가 되면 고려 도공의 도자기 기술은 예술의 경지에 다다라서, 신비로운 비색이 뿜어내는 청자를 생산하였다. 당시 청자 제작은 중국의 최첨단 선진 기술이었다. 맑고 푸른 빛깔의 청자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고려와 중국뿐이었다. 고려가 중국의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⁵⁾ 고려청자는 당대 최고의 도자기 기술을 자랑하던 중국 인들도 감탄하여 '천하 제일'이라고 평가하였다.⁶⁾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10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까지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양질의 청자와 백자를 생산하였다.⁷⁾ 12세기 초가 지나면서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는 그 수명을 다하였다. 고려청자의 제작 기술은 전라남도 강진, 무안 등지로 이전되었다. 전성기의 고려청자가 생산된 곳은 용인이 아니다, 그러나 12세기 '천하 제일'로 평가된 고려청자는 10세기 용인의 도자 문화가 있어 가능하였다.

5) 김영미, 2022, 「용인 서리 가마터 출토 백자의 특징」, 『용인 고려백자 요지의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용인문화원·경기학회·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용인고려백자연구회, 4쪽.

6) 김재열, 앞의 글, 7쪽.

7) 강진갑·김금향·김영미·신영주·이채정, 2022, 『용인 고려 백자 문화보급 활성화 컨설팅』, 한국도자재단, 12쪽.

3) 김재열, 2001, 「도자기와 경기도」, 『경기도자사』, 경기문화재단, 6쪽.

4) 김재열, 위의 글, 4쪽.

2) 잊혀진 용인 서리 가마터의 발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다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가 천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30년대이다. 일본인 도자 사학자 아사카와 노리다카(淺川伯教)에 의해서이다. 이후 1960년대에 정양모가 고려 초기 백자 가마터를 재확인하면서 학계에 널리 알려졌다.

이후 호암미술관이 1983년과 1984년에 서리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세 차례 발굴조사를 하였다. 발굴조사에서 40m에 이르는 벽돌가마 존재가 확인되면서 학계는 용인 서리 가마터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용인 서리의 가마터가 한국 도자문화 형성기의 대표적인 가마터라는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는 1989년 1월 14일 국가 사적 329호, ‘서리 상반 고려백자 요지’는 1997년 12월 10일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용인에는 이 가마터 외에도 고려 백자와 청자, 분청사기, 그리고 조선백자와 도기, 옹기 등 다양한 종류의 가마터가 67개 분포되어 있다.⁸⁾

그런데 용인시는 한국 도자 문화 형성기를 대표하는 도자기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지 못하였다. 1989년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가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서리 588번지, 서리 산23-1번지 일대 4,168㎡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그 주변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당연한 후



용인 서리 상반 고려 백자 요지

속 절차인 문화재 보호 구역 지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주변 지역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2017년이다.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리 고려 백자 요지 주변에 건축물이 새로 신축되었고, 가마터 바로 인근 서쪽에까지 단독주택과 축사가, 북쪽에 축사 건물이 들어섰다.

용인 서리 일원에는 사적으로 지정된 고려백자 요지 외에도 많은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었다. 1999년 발간된 『용인의 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시에 44곳의 가마터가 있고, 서리 일원에만 최소 13곳에서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이 중 해솔리아 골프장 공사 사업부지 내 가마터, 서리 상반 고려백자 요지 일부는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가마터에 대한 현황 파악과 추가 조사가 이루어

8) 위와 같음.

어지지 않았다.⁹⁾

용인 역사에서 고려 초 10세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이다. 도자기 제작 기술이라는 하이테크가 중국에서 들어와 한반도 중부에서 꽃을 피우고, 그 중심에 용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인은 이를 간과하였다.

이는 용인에 아픈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도자 엑스포 잔치에 용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3. 용인의 아픈 기억

1) 2000년 경기도 도자 엑스포가 이천, 여주, 광주에서 열린다

2000년 '세계도자기프레엑스포'의 성공에 힘입어, 2001년 8월 10일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에서 '세계도자엑스포2001경기도'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흙으로 빛는 미래'를 주제로 하는 이 행사는 경기도가 "도자의 역할과 미래를 제시하고, 세계 도자 계에서 한국 도자의 종주적 지위를 회복하며, 한국 도자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도자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관광산업 진흥과 경기도 동부권 지역을 도자기 벨트로 개발한다"는 취지로 개최한 것이다. 주 행사장은 경기도 이천시 설봉공원이었고, 공동행사장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문화 특구와 여주시 신륵사 국민관

광단지 등이었다. 그런데 '한국 도자의 종주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열리는 이 행사에 정작 한국 도자 문화 역사가 시작된 용인은 초대받지 못하였다.



'세계도자엑스포2001경기도' 공식마스코트 '토야'

용인이 빠진 이 행사는 2001년 10월 28일까지 80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제1회 세계도자비엔날레를 비롯하여, 세계 우수 박물관이 소장한 명품을 소개한 세계도자문명전, 동북아시아 도자문화를 재조명한 동북아도자교류전, 20세기 후반 도자예술을 보여주는 세계현대도자전, 세계 도자 디자인을 선도하는 디자이너가 참여한 세계도자 디자인전 등이 진행되었다. 공식 마스코트인 '토야(TOYA)'는 방문객의 인기를 독차지하였다.¹⁰⁾

용인이 '세계도자엑스포2001경기도'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1년 전인 2000년 10월 '세계도자기프레엑스포'가 개최되었는데, 경기도 이천시 설봉공원과 여주시 신륵사 앞, 광주군 곤지암 등 세 곳에서만 열렸기 때문이다.

'세계도자기프레엑스포'는 '세계도자엑스포2001경기도'를 1년 앞두고 리허설 차원에서 열린 행사이다. 엑스포 운영의 노하우를 쌓고, 이천, 여주, 광주 3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

9) 이서현, 2022, 「용인 서리고려백자요지 정비 사업 운영 현황과 방향」, 『용인 고려백자 요지의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용인문화원·경기학회·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용인고려백자연구회, 20~21쪽.

10)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제점을 사전 예행 연습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세계도자기프레엑스포’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 위원회가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 3개 시가 독자적으로 개최한 이천도자기축제, 여주도자기박람회, 광주 분원 왕실도자기축제를 통합하여 개최한 행사였다.¹¹⁾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의 공식 집계된 관람객 수는 606만 명이다. 당시 경기도 관람객 목표는 400만 명이었다. 이 목표가 무리라는 반응이 일반적이었는데 50% 초과하였으니 큰 화제가 되었다.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작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이천, 여주, 광주 3개 도시에서 격년제로 개최되었는데, 이 역시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를 주관한 (재)세계도자기엑스포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03년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에 500만 명, 2005년 열린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에 400만 명이 관람하였다.¹²⁾

2) 용인시가 도자기엑스포 참여를 시도하다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가 개최되기 전 용인시는 ‘용인 서리 상반 고려 백자 요지’를 발굴조사하고 관광 상품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참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¹³⁾

2000년의 ‘세계도자기프레엑스포’와 ‘세계도자엑

스포2001경기도’가 개최되기 직전인 1990년대 용인의 도자 문화, 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1989년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유적에 대한 추가적인 학술 발굴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역사적 가치를 학계, 시민, 언론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은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당시 용인의 노력은 1999년 용인시가 용인문화원과 한신대학교와 공동으로 용인 도요지 지표조사를 실시한 정도였다.¹⁴⁾ 이 정도로는 한국 도자사에서 용인이 지니는 위상을 세상과 공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기도가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를 개최하고 도자 문화, 산업 발전의 거점 도시로 삼은 이천, 여주, 광주는 이미 도자 문화, 산업이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그런데 용인시는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를 계기로 지역의 도자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상품화하려고 하니 그 컨셉트가 경기도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용인시가 1989년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가 사적으로 지정된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도자 문화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세우고, 가마터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를 하고 그 가치를 세상과 공유하였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3) 이천, 여주, 광주가 한국 도자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다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는 국제적으로도 호평받았다. 2007년 열린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

11) 「세계도자기프레엑스포」,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12) 「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객 500만 명 이상 방문 “역대 최대 성공”」, 『NEWSIS』 2007. 5. 24.

13) 이서현, 앞의 글, 22~23쪽.

14)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한신대학교박물관, 1999, 『용인의 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

레' 당시 다테하타 아키라 일본 국립오사카국제미술관장은 “도예계 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대중적으로도 커다란 반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 뉴욕 NYU 주디 슈왈츠 교수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해를 거듭하면서 전시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며 “동에서 서로 간 수출 도자의 경로를 보여주는 전시의 연출과 도록 등 모든 것이 훌륭했다”라고 평가하였다.¹⁵⁾

2000년대 초에 이루어진 경기도의 일련의 도자 행사는 언론과 일반인들에게 이천, 여주, 광주가 도자 문화와 산업 중심지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언론은 ‘이천 설봉공원과 여주 강변 관광지, 광주 곤지암 문화특구’가 ‘한국 도자기의 3대 메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¹⁶⁾

‘세계도자엑스포2001경기도’ 개최를 계기로 경기도 도자기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둔 경기도의 도자문화 진흥 및 산업 발전 정책은 이천, 여주, 광주 3개 도시를 거점 도시로 하여 추진되었다. 2002년에 개관한 3개의 도자 기반 시설도 이 3개 도시에 만들어졌다. 이천 세계도자센터, 광주 조선관요 박물관, 여주 세계생활도자관이 그것이다.

한국도자재단의 전신은 1999년에 설립된 ‘세계도자엑스포2001경기도조직위원회’이다. 이 조직은 2002년 상설조직인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되었다. 2008년 도자진흥재단으로, 2009년에는 한국도자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경기도 도자문화

진흥의 중심 기관으로 발돋움하였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 전역의 도자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특이하게도 사무실이 이천, 여주, 광주 3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는 경기도의 도자 진흥 정책이 3개 도시 중심으로 추진된 것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¹⁷⁾

경기도의 도자 문화, 산업 발전 정책이 이천, 여주, 광주 3개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3개 도시가 도자기와 관련된 역사가 있고, 도자 문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천과 여주는 도자산업이 발달해 있었다. 광주는 조선시대에 분원이 설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3 도시의 공통점은 지역의 도자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3개 시는 독자적으로 이천도자기축제, 여주도자기박람회, 광주 분원 왕실도자기축제를 꾸준히 개최해 왔던 것이 그 예이다.

4) 용인을 위한 변명: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

1990년대 이후 용인 사회는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인구가 폭증하였다.

용인 인구는 1950, 60년대에 변함없이 10만 명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용인 인구가 10만 명 선 넘어선 것은 1970년대 들어서이다. 1990년에 18만 7,977명이 되었다. 이 정도 인구 증가도

15) 「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객 500만 명 이상 방문 “역대 최대 성공”」, 『NEWSIS』 2007. 5. 24.

16) 「오는 10월 '프레 도자기엑스포' 열려」, 『연합뉴스』 2000. 8. 2.

17) 「연력」,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cof.org/07info/03_03.asp)

타 도시와 비교하면 빠른 편이다. 그러나 용인의 이후 인구 증가와 비교하면 완만한 증가세라 표현할 수 있다.

용인 인구는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10년 단위로 2배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1990년대 서울 인구 분산 정책이 추진되었고, 풍선효과로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용인 인구가 늘어났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여기저기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용인 인구는 2000년에 40여 만 명이 되었고, 2010년에는 85만여 명이 되었다.

2010년대 들어 용인 인구의 폭증 현상은 멈추었다. 2020년 용인 인구는 109만여 명이였다. 2010년에 비해 28% 정도 늘어났다. 도시 소멸이 논의되는 시기에 이 정도 인구 증가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완만한 편이었다.¹⁸⁾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용인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팽창에 따른 각종 개발과 도시 기반 시설 조성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용인시는 1970년까지는 조용한 농촌 도시였다. 1970년대 이후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인구 폭증은 용인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도시개발을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인식되었다.¹⁹⁾ 용인시는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를 비롯하여 용인시 소재 문화재를 용인의 가치 있는 문화 자산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18) 강진갑, 2020, 「용인특례시 시대에 대비한 용인문화원 발전 방향- 문화원 분원 설립과 독립원사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 『용인문화』 55집, 용인문화원, 45~46쪽.

19) 이서현, 앞의 글, 16쪽.

용인시는 ‘세계도자엑스포2001경기도’ 참여가 좌절된 이후 뒤늦은 감이 있지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용인 서리 상반 고려 백자 요지’를 보존 정비하고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와 마찬가지로 고려 전기 백자 생산 가마이고, 왕실 납품 제기가 출토되어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었다. 1997년 12월 10일 용인시는 ‘용인 서리 상반 고려 백자 요지’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적 보존 정비 방안은 추진되지 못하였고, 2010년 유적은 복토되었고, 현지 보존 처리되었다.²⁰⁾ 이는 2000년대 초 용인시의 도자 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행정 행위였다. 당시 용인시의 행정력이 인구 급팽창에 따른 행정 수요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물론 문화재청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4. 용인의 변화와 발전

1) 10세기 하이테크 중심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정비, 활용

2015년 이후 용인시의 도자 문화유산에 대한 행정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용인시는 2015년 서리 고려백자 요지 정비 계획에 착수하였다.²¹⁾ 국비의 지원

20) 이서현, 위의 글,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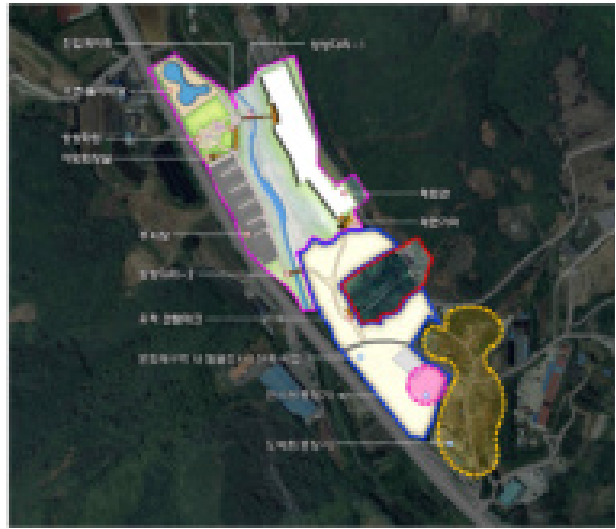
21) 용인시, 2015,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을 받아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17년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주변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문화재의 안정적인 발굴과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다.

용인시는 2020년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시굴 조사를 하였고, 2022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고려왕실의 제기(보(簠)와 궤(簠))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 유적의 역사적 가치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이어 임시 홍보관을 개설하고 출토 유물에 대한 설명과 홍보영상 등을 상영하여 유적의 발굴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노력을 하였다.

한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서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기 위한 유적의 체계적 활용 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용인시는 '서리 고려백자요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관광 계층으로 어린이층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교육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재현 가마를 만들어 유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생적 도자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도예촌 조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²²⁾

용인시에 따르면 서리 고려백자 요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는 총 20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2027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²³⁾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 계획 도면

2) 용인에 21세기 하이테크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용인은 21세기 하이테크인 반도체 선도도시이다. 현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용인시와 용인 시민의 기대 속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약 415만㎡ 규모로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내 최초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다. SK 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총 4개소의 반도체 생산 공장(Fab)을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시설 1개(FAB) 건설시 약 128조 원의 생산 유발, 47조 원의 부가가치유발, 37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 2.5조 원의 조세 기여액이 예상된다.²⁴⁾

용인에 자리를 잡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1983

22) 용인시, 2019, 『서리 고려백자요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86~188쪽.

23) 이서현, 앞의 글, 27쪽.

24) 「건국 이래 최대 반도체 투자 집중 용인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 『이데일리』 2023. 1. 18.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감도(사진 용인시)

년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태동한 요람이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1992년 세계 최초 64M D램 개발, 1992년 D램 시장 1위 달성, 1993년 메모리반도체 분야 1위 달성 등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였다. 2022년 8월 삼성전자는 기흥캠퍼스에 10만 9천㎡ 규모 R&D 단지를 착공하면서 제2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R&D 단지에는 메모리·팹리스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등 반도체 R&D 분야의 핵심 연구가 이루어진다.²⁵⁾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런데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자체의 작품이 아니다. 이는 기업과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그입지가 용인시로 정해졌을 뿐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시에 들어서면 용인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이제 용인은 명실 공히 하이테크의 본산지가 되는 것이다.

21세기 하이테크 본산이 될 용인이 주목하고 부활

25) 위와 같음.



삼성전자 64K DRAM(국가등록문화재. 1983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상용화된 반도체).

시켜야 할 역사 자산은 고려 초, 용인에서 이루어진 10세기 하이테크인 도자기 문화이다.

5. 맺음말 : 용인문화의 새로운 정체성 ‘10세기와 21세기가 만나는 하이테크 도시 용인’ 만들기

2022년 용인시는 특례시가 되었다. 2022년 7월에 시작된 민선 8기 용인시는 시정 비전을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로 설정하였다. 르네상스는 문예 부흥이다.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란 뜻이다²⁶⁾. 용인시가 르네상스를 시의 비전으로 설정하려면 논리적으로 용인 역사에서 한 시기 융성하였으나 쇠퇴한 문화가 무엇인지

26) 「부흥」, 『네이버 사전 국어사전』

를 찾는 일부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르네상스'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인 역사에서 융성하였다가 쇠퇴한 대표적인 문화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와 용인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용인 서리 상반 고려백자 요지'로 상징되는 고려 초 도자 문화이다. 용인에는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가마터가 모두 67기 확인되었으며, 용인 서리에서 확인된 가마터만 19기이다.

10세기 고려 초기 용인에서 형성된 한국 도자 역사는 한국을 세계에서 두 번째 도자기 생산 국가로 만들었다. 세계도자사에서 그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고려청자 역사도 10세기 한반도 중서부 지역의 가마터에서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청자를 생산한 용인 서리의 고려시대 가마터가 있다. 이 가마터는 고려 초 10세기 하이테크의 상징이고, 21세기 하이테크 본산이 될 용인이 주목하고 부활시켜야 할 역사 자산이다.

이제 용인은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10세기와 21세기 하이테크 도시 용인'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용인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쉽지 않지만 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20세기 말 용인이 서리 고려 백자 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지 못해 21세기 초에 겪었던 아픈 기억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서리 일대를 고려 백자 역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일이다.

다행히 현재 용인시는 서리 고려백자 요지 일대

에 대해 학술발굴을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발굴이 끝나면 여기에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용인 서리에 역사문화 공간이 조성되면 '도자 문화 발상지 용인'으로 용인의 도시브랜드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용인이 현재 진행하는 서리 일대의 백자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역사문화 공간 조성 계획은 문화재청과의 협력을 통한 통상적인 사업 방식이다. 즉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재 발굴 및 보존 활용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전국의 문화재를 보호 활용하여야 하기에 용인의 도자 문화유산만을 지원할 수는 없다. 용인이 도자 문화유산을 용인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지원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예산 확보는 문화재청을 포함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용인시가 독자적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도자문화 산업 전반을 담당할 도자문화산업 사업단 또는 도자문화팀과 같은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 부서는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를 포함한 용인의 도자 문화유산 조사·정비·활용사업, 도자 산업 활성화 사업, 용인의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등의 사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예사와 전문직 공무원 등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²⁷⁾

고려 초의 용인 도자 문화는 현재 용인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중

27) 이서현, 앞의 글, 28쪽.

요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용인시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²⁸⁾ 그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용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용인이 새롭게 주목해야할 역사문화자원은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려 도자문화이다. 현재 용인시는 용인의 미래 지도를 바꿀 프로젝트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역사문화적 기반으로 10세기 하이테크 고려 도자문화를 주목하고, 이를 용인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적인 역사 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2022년 하반기 한국도자재단의 요청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용인 고려 백자 문화보급 활성화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²⁹⁾ 이 보고서는 용인의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인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10세기 하이테크 고려 도자 문화사업을 주목하고, 용인을 고려 도자문화 도시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중단기적으로 도자엑스포를 개최하고, 현재 개최되고 있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참여한다. 용인고려백자축제를 활성화시킨다. 공모전, 도자 캠프, 도자 전문페어 등의 도자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행한다.

둘째, 용인 서리 요지 복원, 활성화이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아직도 그 전모가 파악되어 있지 않

은 용인의 가마터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발굴 현장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를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때, 고려 백자 예술 공간 성격도 함께 지닌 공간으로 조성한다. 용인 서리 도자 박물관을 건립한다.

셋째, 용인 도자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이다. 먼저 용인의 도자문화 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도자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용인시·도자업체·한국도자재단·용인 시내 소재 대학 도자관련 학과 및 연구소를 연결하는 용인 도자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연구진이 한국도자재단만이 아니라 용인시 담당 부서, 용인의 도자 공예인들과 협력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작성한 것이다. 용인시는 2022년 10월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내용에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다.³⁰⁾ 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용인 고려 백자 문화보급 활성화 컨설팅 보고서』가 용인 도자문화산업 진흥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도록 한다.

28) 「용인특례시 예비문화도시 또 '탈락」, 『용인신문』, 2022. 10. 17.

29) 강진갑·김금향·김영미·신영주·이채정, 2022, 『용인 고려 백자 문화보급 활성화 컨설팅』, 한국도자재단.

30) 「김상수 용인시의원 발의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2022. 10. 26.

포은문화제를 돌아보다 ①

‘지역문화’와 함께 한 포은문화제

제18회 포은문화제 10월 14일(금)부터 3일간 열려

유기영 _ 용인문화원 이사

용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로서 18회를 맞은 포은문화제가 10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곡로 포은 정몽주 선생 묘역에서 개최되었다.

고려시대 충신이며 동방이학의 시조로서 조선 성리학의 기반을 마련한 포은 정몽주 선생의 지고한 정신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포은문화제는 2013년 제1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을 받은 용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이다.

그러나 2019년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롭고 신선한 변화를 시도한다는 의도에서 ‘포은대학교’라는 부제를 달고 행사장을 대학 캠퍼스로 운영한다는 새로운 콘셉트의 포은문화제를 준비했지만 중부지방 축산농가 돼지열병으로 인해 행사 1개월을 남기고 전면 취소하게 되었고, 이듬해인 2020년부터는 코로나19가 창궐하여 3년여 동안 열리지 못하거나 비대면으로 일부 행사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것이 2022년 5월부터 코로나19가 완화된
 어 비로소 정상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하
 지만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19로 인해 다시금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 신중하게 준비해야만
 했던 제18회 포은문화제는 짧은 준비 기간이었음에
 도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18년 이후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던 포은문화제
 를 다시금 개최하면서 지역문화의 재발전이라는 측
 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
 였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포은문화제를 다시금 돌
 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전염병을 넘어 4년만에 돌아오다

축산농가의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포은문화제가 4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
 다. 일정별로 진행되었던 세부 내용을 소개해 본다.

행사 첫날인 14일(금) 오후 1시부터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열렸다. 2015년부터 전국 대회로 치
 러지는 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일본에서 제일고포가
 참여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경연대회이다. 전국에서
 많은 국악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민요, 판소리,
 풍물, 가야금, 국악 관현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경연이 개인부, 단체부로 나뉘어 펼쳐졌다. 금년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탓에 아쉽게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30여 개 팀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파 종약원 이사장 등이 축하 및 환영사를 했고, 축하 공연으로 국악인 김영임 명창을 비롯하여 서한우 버کم춤과 춤너울무용단의 태평무 등 국악공연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가수 전영록을 비롯 국악인이며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수, 2020년 용인가요제 대상 수상자인 유금덕의 대중가요 공연도 열렸다.

둘째 날인 10월 15일(토)에는 오전 10시부터 정몽주 선생 추모제례가 열렸다. 포은 선생 묘소에서 열리던 추모제례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메인 무대로 장소를 옮겼다. 집례자의 홀기 낭독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구성된 3명의 헌관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제례를 올리는 가운데 단하에서는 집박의 지휘를 받아 악사들이 제례악을 연주하고, 그 음악에 맞춰 무용수들이 일무(佾舞)라는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매우 장중하고 화려하였다.

오후 2시에는 KBS 역사저널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건국대 신병주 교수를 초청하여 ‘정몽주 선생의 생애와 조선 성리학’이라는 주제의 명사 특강이 진행되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이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불리게 된 연유와 동방이학의 시조로서 조선시대 통치이념인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한 흥미로운 강연이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명사 특강은 포은문화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프로그램이다.

이어 11시에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심언택 원장의 기념사에 이어 시장, 시의회 의장, 영일정씨 포은공

오후 3시부터는 무르익어 가는 가을의 정취를 천상의 하모니와 함께 하는 가곡 합창제가 용인시 관내 4개의 여성 및 혼성합창단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먼저 용인문화원 실버합창단이 나훈아의 ‘영영’과



김종환의 '바램'을 들려주었고 수지 실버합창단이 김효근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임금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을 들려주었다. 세 번째는 용인문화원 합창단이 '미녀와 야수' OST와 김희조의 '추천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지여성합창단이 김소월의 시 '못잊어'와 전래동요를 편곡한 '두꺼비 문지기'를 들려주었다.

둘째날 마지막 순서로 5시부터는 금년도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용인시 대표로 출전한 용인청소년연희단의 '용구놀이', 즉 '용인의 거북놀이' 민속 공연이 열렸다. 용구놀이는 용인의 옛 명칭을 딴 것으로 지역 곳곳에 전승되어 온 거북놀이의 민속을 재구성한 것이다. 용인청소년연희단의 '용구놀이'는 2022년도 경기도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상(3위)을 수상하였다.



행사 마지막 날인 10월 16일(일) 오전에는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제18회 전국 한시백일장이 열렸다. 전국의 유림 200여 명이 참가해 포은 선생의 충효예(忠孝禮) 정신을 주제로, 정해진 시제와 압운에 따라 한시를 짓는 백일장이었다. 이번 한시백일장의 壯元에는 경기도 안양시 유덕성씨가 차지하였다.

낮 12시부터는 왕안숙 경기민요 명창의 경기소리 공연에 이어 처인구 모현읍 특산물로 청경채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결성한 청경채 밴드 멤버들이 출연하여 7080 가요와 함께 악기 연주 실력을 뽐내는 기회를 가졌다.

오후 1시부터는 용인시 민속놀이 큰 잔치로 제7회 용인시민속예술제가 열렸다. 보리타작을 재현한 타맥놀이를 비롯하여 백중 호미씻이, 용구두레농악, 백암농요의 공연이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58호 줄타기의 명인 김대균 초청 공연이 대미를 장식하였다.



한편 잔디밭 소공연장에서는 포은 골든벨을 비롯하여 거리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또 체험 및 전시부스에서는 규방공예, 도자기, 탁본 등 전통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용인의 역사인물을 조명하는 특별전도 열렸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운영했던 포은학당은 시민이 포은 선생 콘셉트로 참여하여 다양한 부문의 지식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지식 나눔터'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물론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이었고 준비나 홍보 기간이 짧았던 터라 의도했던 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통해 각 부문으로 인식이 확산된다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역문화(전래 민속놀이)를 품다

제18회 포은문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용인민속예술제>를 포은문화제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용인민속예술제>는 금년으로 7회를 맞는 행사이지만 지금까지 별도로 운영되어 오거나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처인성문화제의 부대 행사로 열리기도 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문화원 내부에서조차 회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럼에도 <용인민속예술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열리는 용인시민의 민속놀이 축제이며, 차기년도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출전할 용인시 대표를 선발하는 중요한 민속놀이 경연대회이기도 하다.

그런 <용인민속예술제>를 포은문화제에 접목시킴으로써 민속예술제가 세인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더불어 포은문화제의 프로그램도 이것으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포은문화제와 민속예술제가 함께 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전승 보존하는 계기가 되고 전통문화를 지향하는 포은문화제도 그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 출연한 4개의 민속놀이 영상은 용인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타맥놀이



먼저 세시풍속보존회의 타맥놀이는 가을에 심은 보리를 초여름에 거두어 탈곡하는 것으로, 보통 보리타작이라고 한다. 보리타작을 하는 시기는 6월 6일 경으로, 절기상으로는 망종에 해당한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망종을 '보리망종'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모내기 끝나는 시기가 바로 보리타작이 시작되는 망종이다. 타맥놀이는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이다.

민속놀이 내용은 보릿단을 풀어헤치고 농군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도리깨질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박자를 맞추며 타맥요를 부른다. 메기는 사람이 선창을 하며 도리깨질을 하면, 받는 사람이 받아서 후창을 하면서 똑같은 곳을 때린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도리깨질을 하며 부르는 노래를 타맥요라고 한다.

타맥놀이는 세시풍속보존회 김연희 회장이 각종 문헌 조사와 함께 이동면 묘봉리 지역 주민들의 증언과 시연을 토대로 발굴하여 보존해 오고 있는 민속놀이이다.

◇ 백중 호미씻이



이어서 백암농악보존회의 백중 호미씻이를 소개한다. 백중 호미씻이는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에 전승되고 있는 민속놀이이다. 백중은 농부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농사일을 하다가 음력 7월 보름에 일손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날로, 농민들의 여름철 명절이다.

그런가 하면 호미씻이는 모심기 이후 논매기를 마친 농부들이 백중을 맞이하여 사용하던 호미를 씻고,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농사일에 지친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즐기던 민속놀이이다.

먼저 세벌 논매기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 마을 산당에 올라가 고유제를 지내고 냇가에서 호미를 씻게 된다. 호미를 씻은 후에는 머슴들의 씨름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우승한 머슴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가 상으로 주어지게 되고, 머슴은 송아지를 끌고 마을을 돌며 주민들이 주는 술과 음식을 먹는다. 이때 풍물패도 함께 마을을 돌며 흥을 돋우고 사람들은 풍물패를 따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질탕하게 하루를 즐기는 민속놀이이다.

백중 호미씻이는 백암면 장평리 고 차용성 선생이

백암농악과 함께 전승해 오던 민속놀이로 오늘날에는 그의 아들인 차진복씨가 그 맥을 잇고 있다.

◇ 백암농요



흰바위농악단의 백암농요는 처인구 백암면에서 논농사를 지으며 부르는 노래이다. 논농사를 짓는 순서는 맨 처음 못자리를 하고, 그 모가 자라면 모를 찌서 다른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를 한다. 모를 심고 나면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논매기를 하는데, 보통은 세 번을 맨다.

모판에서 모를 찢 때 부르는 소리를 「모찌는 소리」라 하고, 이어 모내기가 시작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누어 「모심기 소리」를 한다. 모심기가 끝나고 20여 일이 지나면, 논에 잡풀이 돋기 시작하여 논매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논매기를 애벌매기, 두 번째를 두벌매기, 세 번째를 세벌매기라 한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논매기 소리」이다. 애벌매기 때는 느린 가락으로 부르지만, 두벌, 세벌매기 때는 가락이 점점 빨라진다.

백암농요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모리잡

가의 명인 박상옥 선생이 젊은 시절 채록한 것으로 최오영 선생이 그 맥을 잇고 있다.

◇ 용구 두레농악



용인전통연희원의 용구 두레농악은 수지구 동천동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농악이다. 여기서 ‘용구’라는 표현은 용인의 옛 명칭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레’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힘든 일손을 돕기 위해 만든 공동체 조직으로서, 남자들은 협력하며 논농사를 짓고, 부녀자들은 길쌈을 매던 전통적인 노동조직이다.

용구 두레농악은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에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판굿을 벌이며 한바탕 어울리던 전통놀이로서 용인전통연희원 박창배 대표가 동천동 하손곡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농악을 직접 발굴하여 보존하고 있는 민속놀이이다.

◇ 용구놀이



그런가 하면 둘째 날인 10월 15일(토) 오후 5시부터는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용인시 대표로 출전한 용인청소년연희단의 ‘용구놀이’가 특별공연으로 펼쳐졌다. 용구놀이는 ‘용인의 거북놀이’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고려시대에 용인땅을 ‘용구현’이라 불리었던 것에서 옛 명칭을 딴 것이기도 하다. 거북놀이는 8월 한가위나 정월 대보름이면 지역 곳곳에서 연희되었던 용인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놀이 전통이 끊어져 더 이상 전승되고 있지 않지만 용인청소년연희단이 수년 전부터 각종 사료와 지역민들의 고증을 거쳐 일련의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용인청소년연희단의 ‘용구놀이’는 2022년도 경기도민속경연대회에서 우수상(3위)을 수상하였다.

포은문화제를 돌아보다 ②

포은문화제를 진단하다

김 장 환 _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포은문화제의 어제와 오늘

오늘날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저마다의 특성과 환경에 따른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유산, 인물, 이야기 등을 내세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의 정립과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용인에서도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인 포은 정몽주 선생을 선양하는 포은문화제가 20여 년 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다. 2003년도에 시작된 포은문화제는 금년 18회를 치르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변화가 있었다.

초창기에는 모현면민이 중심이 되어 하루 일정으로 행사를 치르다가 2008년도에 와서 당시 큰 장애 요소였던 행사장 내 양계장 철거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하면서 일정을 3일로 늘리게 되었다. 동시에 행사 각종 경연대회와 교육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교육문화축제라는 콘셉트로 축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축제 참여 인원도 2~3천 명에서 3~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2013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014년부터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중시 여겼던 성리학 의식인 관혼상제(冠婚喪祭)를 테마로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를 재현하는 전통문화의 전승 보전을 행사 주제로 설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콘셉트가 가능케 된 것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에 사는 최계순 여사가 5천만 원을 기탁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부 5쌍을 선정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식을 치러주게 되면서이다. 이때부터 행사 때마다 매년 5쌍씩 혼례를 치러주고 제주도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주었다.

2019년에는 근 15년 동안 운영해 오던 기본 콘셉

을 과감하게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획자를 외부에서 영입해 '포은대학교'라는 명칭의 부제를 달고 행사장을 대학 캠퍼스로 개조하여 젊은이들이 함께 즐기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그해 여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축산농가 돼지열병이 점차 확산되면서 행사 1개월을 남기고 전면 취소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전년도에 기획했던 행사 방식을 다시금 추진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연초부터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였고, 코로나19는 2021년에도 종식되지 않으면서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진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추상적으로만 생각해 왔던 온라인 행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 시대의 문화사업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과 함께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3년여 동안 열리지 못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포은문화제를 금년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다만 2019년 준비했던 과감한 변화를 무리하게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기존의 콘셉트를 유지하자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리하여 천장행렬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용인시에서 유치한 경기도체육대회와 불과 1개월여 간극을 두고 진행되다 보니 행사 준비가 매우 촉박하게 이루어졌고, 코로나 19로 인해 다시금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4년이라는 공백이 손끝을 무디게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행사를 준비하면서 포은문화제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지금까지 근 20년여 년을 유지해 오면서 축적된 행사의 전통성도 변화의 당위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변화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지만 포은문화제의 근간을 이루는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포은문화제의 과제

2003년도에 시작하여 금년으로 19회를 맞이하게 되는 포은문화제는 '정몽주'라는 역사 인물을 통해 충절 및 성리학과 연관된 사례(四禮) 등의 고유한 소재를 내세우며 일반 축제와 차별되는 전통문화 요소를 강조해 왔다. 역사인물 축제라는 뚜렷한 성격과 목적을 지니고 있고 더욱이 행사장이 신성한 묘역이라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영역이나 확장성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축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일탈성이나 유희성과 같은 영역은 일종의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포은문화제' 하면 떠오르는 추모제례, 천장행렬, 한시백일장 등은 포은문화제의 핵심 콘텐츠가 되었고, 축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심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즉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20년이라는 연륜 속에서 포은문화제를 상징하는 전통이 되었고, 이제는 그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 식상한 사람들은 포은문화제가 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2019년에는 기획자를 공모하여 ‘포은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행사장을 낮에는 대학 캠퍼스로, 밤에는 캠핑장으로 개조하여 참가자들이 학과별로 학습을 하거나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준비작업을 통해 카운트 다운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당시 여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돼지열병이 갑자기 확산되면서 행사는 취소되었고, 다시금 준비할 겨를도 없이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덮치고 말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축제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 축제를 하나의 상품으로 비유한다면,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축제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이끌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제, 소재, 형식, 무대와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기획을 잘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하여 잘 팔릴 수 있는 멋진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잘 팔리지 않는다면 왜 팔리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아내고 끊임없는 수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축제라는 상품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재고품으로 다시 판매대에 올려지는 것이 특징이다. 재고품임에도 가격 조정도, 상품 내용의 변화도, 하다못해 포장마저도 바뀌지 않는 오래된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전국적으로 난무하는 축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역성과 독창성이라 생각한다. 한마디로 축제에 자기 색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제에 자기 색을 입힐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면 '지역문화'를 과감히 접목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용인의 고유한 민속문화를 접목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포은문화제의 구상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포은문화제의 사업 기획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무국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운영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러나 사무국은 축제 기획의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는 조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지역축제에만 수개월을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더욱

이 오늘날 고도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축제 기획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몫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함평 나비축제, 무주 반딧불이축제, 보령 머드축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모두 전문가들에 의해 기획된 축제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축제 공간의 확장 또는 장소의 이전을 통한 접근성 확보이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포은문화제를 운영해 온 정몽주 묘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은 신성한 선현의 묘역이라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프로그램 구성에 제한이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확장성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매년 겪는 문제이지만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차 없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몹시 불편하다는 점은 최악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포은문화제가 20년 전처럼 지역민들이 모여서 치루는 동네잔치가 아닌 이상, 또 포은문화제가 용인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사장 공간을 확장하거나 제2의 공간으로의 이전, 또는 이원화를 통한 과감한 변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초당 허엽 신도비

용인의 비지정문화재 한석봉의 글씨를 볼 수 있는 허엽 신도비

김정희 _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조선시대 비문의 서자(書者) 및 전자(篆者)는 당대의 명필가에게 부탁하여 쓰여졌다. 남응운(南應雲 1509~1587)의 전(篆)과 한호(韓濩 1543~1605)의 서(書)는 조선중기 최고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한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평생 힘을 들인 글씨는 서화담(서거정)의 비석이다”라고 했는데 후세 사람들은 “이 글씨는 안평대군 이후 한호의 첫번째 서법으로 한석봉이 쓴 초당선생 허엽신도비체로 삼는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뿐 아니라 대동야승 죽창한화(竹窓閑話)에는 “한호는 송도사람으로 호는 석봉이다. 필법이 힘차고 아름다워 기이한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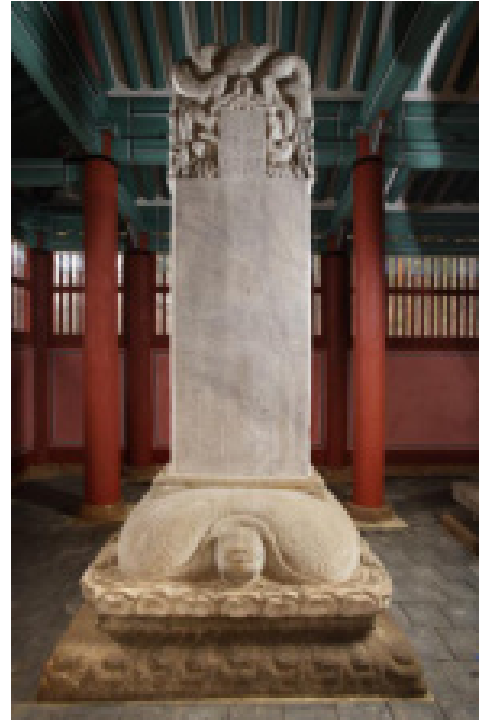


구례 윤문호공 신도비 보물
출처 : 한국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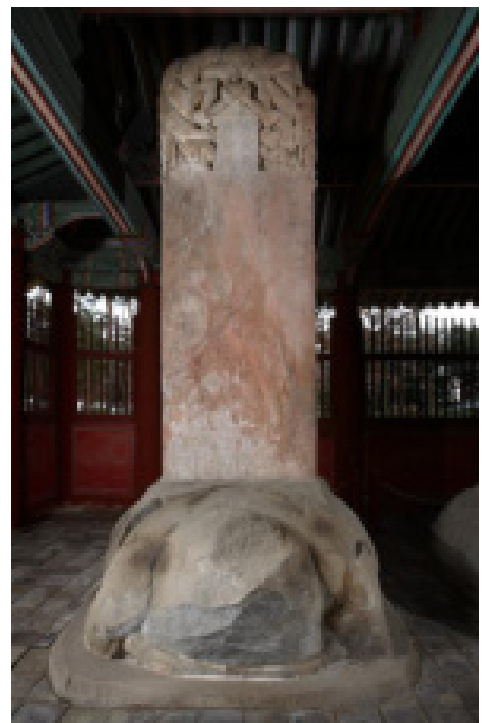
(體)를 얻었는데 그의 아들과 아우로서 한호의 필적을 간직한 자가 있으면 모두 부관(수령)에게 빼앗겨서 글자 하나 종이 한 쪽을 보존한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이 수령을 보면 슬퍼하고 분하게 여기니 어찌 탄식할 일이 아닌가?”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당대에서도 크게 선호하였던 글씨로 이름난 한호의 육필이 용인에 전한다.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있는 초당선생 허엽의 신도비와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정옥형 신도비가 그 주인공이다. 이외에 한호의 필적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용인시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중회 묘비 전면 종액의 글씨인데, 이것은 한호의 글씨를 집자하여 새긴 것이다.

조선시대 비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규정과 양식을 가지고 있다. 묘비 종류는 기본적으로 묘표, 묘갈, 신도비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인 종류와 차이점이 있고 규정이 있지만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며, 시기마다 변하고 있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 비문의 전면에 쓰인 서체는 해서가 제일 많았다. 대체로 조맹부체, 한석봉체, 왕희지체, 안진경체를 많이 썼으며, 단아하고 강건하며 맑고 해서로 쓴 모양이 바른 필체를 선호하였다. 예서도 부분적으로 썼는데 독특한 팔분예서를 중심으로 썼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 보물
출처 : 한국문화재연구소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 보물
출처 : 한국문화재연구소

으며, 이는 조선 중~후기 율곡학파에서 많이 나타났
다. 전서는 비문보다 비액으로 많이 썼다. 이들 서체
는 공통적으로 성리학적 미감과 선비정신을 드러내
기 적합한 서체를 중심으로 선호했음을 볼 수 있다.

비액은 석비의 표제를 기록하는 양식으로 전서를
많이 사용하므로, 흔히 두전(頭篆)으로 부르지만 드
물게 해서나 예서로 쓰기도 한다.

이러한 묘비 중에서 신도비(神道碑)는 사자(死者)
의 묘로(墓路), 즉 신도(神道, 신령이 지나가는 길)인
무덤 남동쪽 지점에 남쪽을 향하여 세운 비석이다.
묘 주인의 삶을 기록한 내용을 비문으로 새긴다.

중국의 진송(晉宋, 5세기 초) 때 비롯되어 황제 및
제후들이 모두 신도비를 세웠다. 처음에는 그 각문
(刻文)이 다만 ‘모제(某帝)’ 혹은 ‘모관신도지비(某官
神道之碑)’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한(漢)나라 양진(楊
震) 때 종2품 이상의 품계를 지녔던 사람에 한하여
세웠다.

신도비를 묘의 동남쪽에 세우게 된 것은, 지리가
(地理家)의 말에 따르면 동남쪽을 신도라 하기 때문
이다. 후한(後漢) 때에는 묘 앞에 길을 트고 석주(石
柱)를 세워 표하였던 것을 신도라 칭하였으나, 진송
이후 비각(碑刻)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동문선(東文選)》 등의 문
집에 비문(碑文) 형태로 전하며 당시는 3품 이상의
관직자 무덤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문
종은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
고, 공신이나 석학(碩學) 등에 대하여는 왕명으로 신
도비를 세우게 하였다. 이렇듯 조선 초기에는 종2품
이상을 지낸 인물에 한해 신도비를 세울 수 있었으
나, 1675년(숙종 1년) 이후부터는 정2품 이상 관직

을 지냈거나 정2품 이상으로 추증된 인물에 한하여
비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비는 조선시대 왕릉의
신도비로서 태조의 건원릉신도비(建元陵神道碑)와 태
종의 헌릉신도비, 세종의 영릉신도비(英陵神道碑)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또, 사대부의 신도비로 구례
의 문효공 윤효손의 신도비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데, 조선시대 이후 관직으로 정2품 이상의 뚜렷한 공
업과 학문이 뛰어나 후세의 사표(師表)가 될 때에는
군왕보다도 위대할 수 있는 일이라 하여 신도비를 세
워 기리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대부의
신도비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용인의 신도비로는 조광조 신도비(경기도 기념물
제169호), 이석형 신도비(경기도 기념물 제171호),
정옥형 신도비(경기도 자료 제91호), 이주국 신도비
(용인시 향토 유적 제4호), 정윤복 정호선 신도비(용
인시 향토유적 제 47호)가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그 외에도 정몽주 신도비, 이재 신도비, 허엽 신도비
등 많은 신도비들이 있다.

신도비에 새기는 글(비문)은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 비액(碑額) : 신도비의 제목과 같다. 인물의 간략
한 직함, 시호, 이름 등을 담는다.
- 비제(碑題) : 인물의 전체 직함을 적는다. 끝에
‘神道碑銘并序(신도비명병서)’라고 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 찬자(撰者) : 신도비 비문을 지은 사람의 직함과
이름을 적는다.
- 서자(書者) : 신도비 비문 내용을 붓으로 쓴 사람
의 직함과 이름을 적는다.



허씨 5문장 묘소 전경

- 전자(篆者) : 신도비 비액 부분을 전서체로 쓴 사람의 직함과 이름을 적는다.
- 서문(序文) : 신도비 주인공의 생애, 경력, 가계, 업적 등을 적은 부분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 명문(銘文) : 인물의 행적을 전통적인 시 형식으로 요약한 부분으로 신도비 비문의 핵심이다.

처인구 원삼면 맹리 일대는 양천허씨가 입향하여 450여 년 이상 세거하는 동족촌으로 맹골과 능안마을은 전적공파의 파조인 허창(許菴)의 묘가 조성된 이후 후손들이 들어와 세거하게 되었다. 후손들의 증언에 따르면 허창의 상여를 충주로 운구할 때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부근에서 쉬었다고 한다. 그 때 회오리바람에 상여 위의 구름차일이 날려가 떨어진 곳이

지금의 묘 자리라고 한다. 지관에게 보이니 명당이라고 하여 그 자리에 묘를 쓰고 이후 자연스럽게 후손들이 세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현재 허균과 허씨 5문장이 있는 세장지로 유명하다. 원래 경기도 시흥군 서초리(현 서울시 서초동)에 있던 묘역이 경부고속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1968년 초당 허엽 선생의 유허지인 원삼면 맹리로 이전했다. 이곳 묘역에는 묘를 이장한 것을 기념하는 천봉 기념비를 비롯해 허엽 신도비, 허난설헌 시가비 등이 세워져 있다.

초당 허엽(許曄, 1517년 12월 29일 ~ 1580년 2월 4일)은 양천허씨 시조인 허선문의 20세손이다.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성리학자로, 자는 태휘(太輝), 호는 초당(草堂),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나식(羅湜), 이



허엽의 묘소



허성의 묘소



허봉의 묘소



허균의 묘소

여(李翕), 서경덕과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이언적을 사숙하였으며 진사시에 합격한 뒤 1546년(명종 1)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명종 때 관직에 올랐으며 동서 분당 때는 동인에 가담하였다. 문과급제 후 1551년 부교리를 거쳐 1553년 사가독서한 뒤 장령(掌令) 때 재물을 탐하였다가 파면되었다. 1559년 필선(弼善), 1560년 대사성, 1562년 지제조(知製敎)를 거쳐 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이 되었다.

1562년 경연관 재직 중 윤근수·구수담(具壽聃)·허자 등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다시 파직당했고 1563년 초 복직되고 곧이어 삼척부사로 부임하였으나, 과격한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어 다시 파직되었다. 그 뒤

복직하여 1568년(선조 1) 진하부사(進賀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대사간에 올라 향약(鄉約)의 시행을 건의하였다. 1575년 을해당론으로 동인과 서인의 당쟁이 시작될 때 동인에 가담했다. 이후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동지중추부사로 전임되었다.

글재주와 문장력이 뛰어나 아들 허성, 허봉, 허균, 딸 허난설현과 함께 허씨 5문장가로 명성을 날렸다.

초당 두부를 모르는 사람이 드물다. 강릉의 맑은 물로 두부를 만든 초당 허엽(1517~1580)을 비롯해 그의 아들 허성(1548~1612), 허봉(1551~1588), 딸 허난설현(1563~1589), 막내아들 허균(1569~1618)

에 이르는 가족 모두가 조선 당대의 명문장가로서 세상에서는 이들 소문난 천재 집안을 칭송했다.

이들 허씨 5문장이 용인 처인구 원삼면 맹리 한 자리에 모여져 있다.

초당 허엽은 동인의 영수였고, 큰아들인 허성은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린 뒤 남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지냈다. 둘째 아들 하곡 허봉은 허난설헌과 허균의 정신적, 학문적 스승으로 학문이 높았던 인물이다. 동인의 선봉이 되어 율곡 이이의 근무태도를 규탄했다가 역으로 유배당한 뒤 방랑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했다.

홍길동전을 지은 비운의 천재 허균의 묘는 그가 역모죄로 처형을 당했기에 시신이 없는 허묘다. 호는 교산으로 당시 정부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다수의 글을 남겼으며 소설, 한시, 문학비평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반역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했다. 역적으로 형을 당했기 때문에 저작들은 모두 불태워지고 일부만 남아 전해진다.

초당 허엽의 묘표를 보면 중간이 부러진 것을 이은 흔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들 허균이 역모로 처형되자 허엽의 묘표가 두 동강이 나서 땅에 묻히는 화를 당한 것으로, 묘표의 뒷면에 균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 묘표 옆에는 허균의 어머니 강릉김씨의 묘표가 서 있지만 봉분은 없다.

또한 이곳에는 허균의 누나이자 조선 중기의 여류 시인인 허난설헌의 시가비가 있다. 시가비는 1969년 6월 1일 국어국문학회에서 건립했는데, 좌측 상단에 한견고인서(間見古人書), 즉 “한가로울 때에는 옛 사람들의 글을 읽는다”라고 쓴 허난설헌의 친필을 새겨 놓았다. 뒤편에는 감우感憂(느낀대로 노래함) 연시의 첫 연을 새겼다.



허난설헌 시비



정옥형 신도비각 (경기도자료 제 91호)



석봉 한호의 글씨체
출처 : 한국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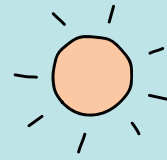
석봉 한호의 글씨를 볼 수 있는 허엽의 신도비는 옥개형(屋蓋形)의 지붕돌이 덮여 있으며 전면에는 <慶尙道觀察使 草堂先生 神道碑銘(경상도관찰사 초당선생 신도비명)>이라 쓰여 있다. 선조15년(1582)에 건립된 허엽신도비는 높이 173cm, 너비88cm, 두께 14cm로 조선조의 명신 노수신(盧守愼)이 찬(撰)하였고, 석봉 한호(韓濩)가 서(書)했으며 남응운(南應雲, 1509~1587)이 전액(篆額)하였는데 모두 정승의 반열에 있던 학자이자 명신이었다. 이 비는 금석문집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비문은 풍마우세로 거의 판독이 어려울 지경으로 퇴락해 가고 있다.

한석봉은 조선시대의 추사 김정희와 견주어지는 명필가이다. 명나라의 저명한 학자인 왕세정(王世貞)은 “성난 사자가 돌을 헤치는 것 같고, 목마른 천리마가 강물로 달려가는 것 같다”고 석봉의 글씨를 격찬했다. 또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의 장수 이여송, 마귀와 사신으로 온 등계달, 양찬 등도 한석봉의 글씨를 요청해 받아 갔다고 한다.

한석봉의 글씨를 누구보다도 알아준 사람은 조선 국왕 중에서도 유난히 글씨를 잘 썼던 임금 선조였다. 선조는 한석봉의 대자(大字) 글씨를 보고 “기이하고 장대하기가 측량할 수 없다”고 찬탄했다. 고을의 수령들은 자손들의 집을 뒤져서 글씨를 빼앗아 갔다고 한다.

그와 같은 필적이 440여 년 풍상을 겪어 오면서 전해오고 있는 이 문화유산을 방치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석봉 한호의 글씨로 쓰여진 ‘정옥형 신도비’는 경기도자료 제91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를 받고 있지만, 한석봉체를 널리 알린 초당 허엽신도비는 비각하나 없이 방치되고 있어서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다면 신도비 표면의 글씨는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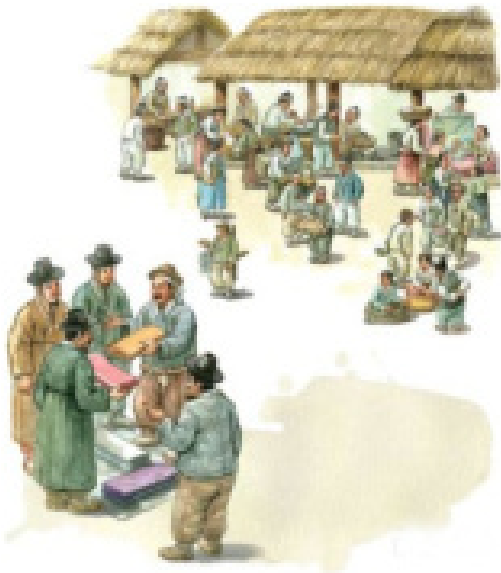
초당 허엽 신도비가 하루빨리 문화재로 지정되어 석봉 한호의 글씨를 오래도록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용인의 오일장
‘김량장’으로
구경 오세요~

이은성 _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시장은 여러 사람이 모여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를 말한다. ‘市’는 ‘시장’이나 ‘저자’라는 뜻으로, 금문에 나온 ‘市’는 본래 ‘兮’(어조사해)와 ‘止’(그칠지, 발지)가 결합한 모습이다. 즉,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니 이것은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곳이 시장이다. 조선시대 시장은 크게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나뉘었다. 상설시장은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 있었는데 서울 시전인 육의전이 대표적이었으며, 정기시장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오일장(5일장), 7일장, 10일장, 15일장, 연시(年時) 등이 있었으나 오일장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오일장이 보편적이었던 이유는 상인 입장에서는 상품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접한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가깝게 열리는 장이 더욱 편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오일장은 대체로 하루 만에

걸어서 왕복해야 했기 때문에 30리 내지 60리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다. 장시는 임진왜란 이후인 16세기 말 증가하기 시작하여 17세기 말에는 보부상의 영향으로 오일장이 일반화되었다. 18세기 말에는 금난전권의 폐지로 상업활동이 자유로워져 이 무렵 전국적으로 약 1천 개가 넘는 정도로 장시가 성행했다.

용인의 오일장

‘국가정책도 경기도의 장터를 어쩔 수 없었다’

16세기 한양으로 가는 물자가 중간에 지체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 장터 개설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¹⁾ 경기도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가 유입되는 통로였으며, 용인 역시 그러한 통로의 대로에 위치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로변에는 주요한 역과 원이 발달했다. 용인의 원에는 옛 구성 연원의 보시원, 신갈의 원기, 원터의 흥화원, 금령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원은 17세기를 거치면서 상업의 발달로 서서히 쇠퇴했고 이를 대신해 ‘주막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장시도 급격히 늘어났으나 19세기 말까지도 큰 장터 몇 곳을 제외하고 상설점포는 거의 없었다고 하니, 대부분의 장시는 정기시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용인에는 용인현 소재지의 현내장과 김량장, 남사 지역의 도촌장, 양지방면의 개천장(개나리장)과 배감

1) 경기의민속문화 5, 2015, p147



백암장의 특색인 싱싱한 모판의 모습
사진 출처 : hk_food

장(백암장) 등이 있었다. 이후 개천장은 폐지되었으나 나머지는 그대로 지속되다가 도촌장과 현내장이 사라졌고, 김량장과 백암장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송전과 원삼, 모현지역에 새로운 모습의 오일장이 들어서기도 하였다.²⁾

용인의 오일장 장세를 보면, 1794년 한 해 동안 총 216냥의 장세를 수납했다고 한다. 이 금액은 경기도에서 720냥의 안성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액수였다고 하니 용인 오일장은 경기도에서도 손꼽히는 장시였음을 알 수 있다.³⁾

현재 오일장이 열리고 있는 지역 날짜를 살펴보면, 김량장(=용인장.5.0일), 백암장(1.6일), 모현장(2.7일), 원삼(3.8일), 송전장(4.9일)

* 송전장과 모현장은 1960, 1970년대 장시 날짜와는 변동이 있다.

2) 용인시사편찬위원회,〈용인시사〉1, 2006, p557~562

3) 시장과 시장사람들. p15

상설시장인 ‘용인중앙시장’과 상생하는 ‘김량장’

김량장은 처인구 김량장동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열리는 오일장이며, ‘용인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즉 김량장은 시장의 이름이면서 동네 이름이기도 하다. ‘김량장’은 ‘김량이 장을 열어서 김량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금령역이 있었고 이곳에 장이 열려서 김량(금령)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문헌 자료인 《용인현읍지》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금령역(金嶺驛)’이 ‘김량역(金良驛)’으로 처음 표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김량장’과 ‘김량(금령)역’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김량천을 중심으로 오일장이 서기 시작했으며, 1911년 일제강점기에 기흥구 마북동에 있었던 용인군청이 김량장으로 옮겨오면서 빠르게 발전했다. 김량장은 용인중앙시장 인근 금학천 변을 중심으로 매달 ‘5’와 ‘0’으로 끝나는 날짜에 열린다. 금학천을 끼고 쪽 늘어선 노점상들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300여 개는 족히 넘으리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와 볼거리 등이 다양해 이제는 용인 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즐겨 찾는 용인의 대표적인 오일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36년째 오일장에서 만물을 팔고 있는 만물상회 사장은

“오일장에 장사하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0년을 넘게 장사하고 있죠. 제가 1986년부터 용인중앙시장에서 장사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장의 건



1930년대 김량장

물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라며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용인장에 더 애착이 간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상설시장의 상가 상인과 같은 고객을 두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기에

2018년 협약을 통해 경쟁보다는 서로 상생하기로 의기투합했다. 그래서 그런지 용인의 오일장에 가면 왠지 모르게 더 활기가 느껴지는 듯하다.



금학천 변의 오일장 풍경들

대표적 용인 근대 인물 노작 홍사용의 작품 정보 전집 ‘정보 노작 홍사용 문학 전집’

박기정 _ 언론인

암울한 식민지 치하에서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정신을 노래한 노작 홍사용(1900~1947). 일제강점기 민족의 수난과 울분을 소년의 성장 과정을 통해 노래한 시 ‘나는 왕이로소이다’로 널리 알려져 있는 민족시인 홍사용은 용인에서 출생한 용인의 대표적인 근대 인물이다.

특히 2022년은 노작이 창간을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한 문예동인지 ‘백조’가 창간 10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다. 그러나 2022년에조차 용인에서 노작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용인에서 노작은 완전히 잊혀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조’ 창간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정보 노작 문학전집 두 권이 화성에 위치한 노작홍사용문학관에서 발간됐다.



노작의 30대 때의 모습
사진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시인 홍사용

노작은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 151번지 용수골에서 태어났다. 풍수지리적으로 용의 머리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용수(龍首)골에서 출생한 노작의 생가는 현재 오간 데 없고 푼말도 없지만 151번지라는 번지수만큼은 그대로 살아있어 위치는 가늠할 수 있다.

노작 홍사용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 구금을 당했다. 일제에 대한 분노와 걱정으로 일관한 노작은 47세라는 짧은 일생 동안 일제에 항거한 민족시인이었으며, 그의 문학 활동은 민족운동이었다. 노작은 일제강점기에 단 한 줄의 친일 집필 활동도 거부했다. 노작 초기 연구자인 최원식 교수는 최근 발간된 ‘정보 노작 홍사용 문학 전집’에서 노작은 온 몸으로 3.1운동의 아들이라고 했다. 최원식 교수는 특히 동인지 ‘백조’를 3.1운동과 등가물이라고 했다.

당시 3.1운동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문학운동으로 전환해 동경에서 ‘창조’(1919)를 창간한 데 이어 경성에서 ‘폐허’(1920), ‘백조’(1922)가 창간됨으로써 이들 동인지 트로이카를 축으로 신문학운동이 전



노작의 유고집이자 첫 단독 저서인 '나는 왕이로소이다'(근역 서재, 1976). 사진 출처 : 정본 노작 홍사용 문학 전집

개됐다. '백조' 창간에는 노작 홍사용, 박종화, 박영희, 나도향, 현진건, 이상화, 노자영, 이광수, 오천석 등이 동인으로 참여했다.¹⁾

우리나라 시문학사의 거목으로 한국 근대 낭만주의 문학운동을 이끌었던 노작 홍사용. 3.1운동 이후 민요시운동을 펼치는 등 민족정신을 잇는 문학 활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초창기 극회인 토월회 동인으로 활동하는 등 그는 다방면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민족정신의 맥을 이어 나갔다.

정본 홍사용 전집 발간

올해 노작홍사용문학관(관장 손택수)이 노작 문학 세계를 집대성한 '정본 노작 홍사용 문학 전집 1~2권'(서해문집)을 발간했다. 노작홍사용문학관은 노작이 창간했던 '백조' 복간에 이어 노작이 남긴 작품들의 정본 발간을 기획, '백조' 창간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정본 노작 문학전집 두 권을 정성스레 선

1) 정우택 『정본 노작 홍사용 문학 전집2』 '홍사용의 매체 운용과 문학 기획으로서 시'

보였다.

1권은 '정본 노작 홍사용 문학 전집'이다. 편찬자는 최원식(문학평론가,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박수연(문학평론가,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노지영(문학평론가,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허민(노작홍사용문학관 사무국장, 성균관대학교 외래교수) 등이다. 750여 쪽에 이른다.

2권은 '정본 노작 홍사용 문학 전집 2-노작과 '백조' 문학연구'이다. 420여 쪽에 이른다.

이번 정본 문학 전집은 한국 근현대 시사(詩史)에 다양한 문학적 족적을 남긴 노작 홍사용의 작품 세계



를 모두 모아 독자에게 널리 소개한 의미 깊은 작업이다. 또한 문학사적 의의를 정리하고, 노작 연구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처럼 대단한 작업을 노작문학관이 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어디에서 하면 어떠랴. 이미 다양한 노작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 노작문학관은 노작의 본적지인 화성 돌모루에 위치해 있다. 생가인 용인 용수골과 본적지인 화성 돌모루는 행정구역상으로 나뉘어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지척이다. 노작 본적지는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492번지. 석우리는 속칭 돌모루로 불리며 남양홍씨 집성촌이다.

이번에 발간된 ‘정본 노작 홍사용 문학 전집’은 노작의 시 36편, 소설 6편, 산문 13편, 희곡 4편, 평론 2편, 기타 3편 등 64편의 전 작품을 수록했다. 또 노작 문학 해설, 생애와 작품 연보, 화보, 노작 추모의 글, 노작 관련 근현대 비평·기사·연구 목록, 노작의 다양한 활동 이미지를 비롯해 국내 최초로 노작의 육필 시조집 ‘청구가곡’을 완벽해 수록했다.(김하라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역주)

특히 노작 홍사용의 ‘청구가곡 초고’를 비롯해 기존 전집들에 수록되지 않은 근대 초기 노작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 라디오, 영화 등 다양한 매체 활동과 작사를 통한 음반 참여 활동, 각종 공연에 참여한 내역 등을 밝혀, ‘매체’에 대한 노작의 폭넓은 관심도 조명했다. 한편, 책 말미에 노작의 작품 전반에 관한 해설을 수록해 독자의 편의를 도왔다.

‘정본 노작 홍사용 문학 전집 2-노작과 ‘백조’ 문학 연구’에는 초기의 노작 연구부터 현재까지의 학술

적 성과, 그리고 백조 문학 연구를 아우르는 연구서를 수록했다.

제1부 노작 연구의 시작 파트에서는 홍사용 문학의 민요와 시조를 살펴보고 있다. ‘홍사용 문학과 주체의 각성’(최원식), ‘청구가곡’과 홍사용(임기중)을 실었다.

제2부 낭만과 저항: 노작 문학 재조명 파트는 홍사용이 한국 낭만주의 문학의 큰 별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홍사용의 매체 운용과 문학 기획으로서 시’(정우택), ‘홍사용 시의 ‘눈물’과 시적 실천으로서의 민요시’(송현지), ‘홍사용 소설의 낭만적 정치성-시(극)적 전략’(허희), ‘내면의 발견과 배경으로서의 고향-‘백조’ 시기 홍사용 문학에 나타난 고향을 중심으로’(윤지영)를 게재했다.

제3부 노작 문학의 다층적 성격과 문화정치 파트에서는 홍사용의 가요운동과 희곡 운동의 양상과 의미를 다뤘다. ‘노래의 기억과 영원의 귀향’(박수연), ‘홍사용과 구술문화 전통의 의미’(구인모), ‘노작 홍사용의 연극 세계’(윤진현), ‘시인 홍사용 희곡의 메타리적 요소’(손필영)를 실었다.

제4부 1920년대 한국근대문학장의 형성과 ‘백조’의 위치 파트에서는 당대의 제도와 문화적 흐름을 다룬 연구들로 이뤄졌다. ‘백조’의 양면성-근대문학의 건축/탈건축(최원식), ‘3.1운동과 동인지 세대’(권보드래), ‘백조’, 왕복 승차권(최가은), ‘키워드를 통해 보는 근대 잡지의 문예사조적 특성-‘백조’와 낭만주의를 중심으로’(도재학), ‘동인지 ‘문우(文友)’와 다점적 혼종의 문학’(이경돈)을 실었다.

이번 전집 작업에는 한국 근대문학 연구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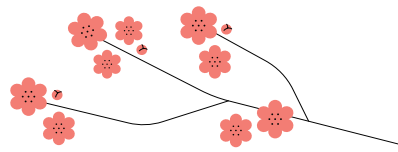


이 모든 사업을 기획 추진한 손택수 관장은 “노작 문학관이 들어선 지 십 년이 지나서야 정보 전집을 내는 일에 부끄러움을 떨칠 수 없다”며 “이 전집을 통해 지역의 인문지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나아가 한국문학 연구가 보다 폭넓은 지평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에서는 노작 탄생 100년을 기해 지난 2000년 6월에 용인문인협회, 용인문학회, 용인문화원, 용인향토문화지킴이시민모임 등 문학단체와 문

화예술인이 모여 노작 홍사옹 생가 복원을 위한 청원서를 지자체에 올린 바 있었다. 무관심으로 끝나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다. 노작은 근대 시인 중 유일하게 알려진 용인 출생 시인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 문학계의 관심이 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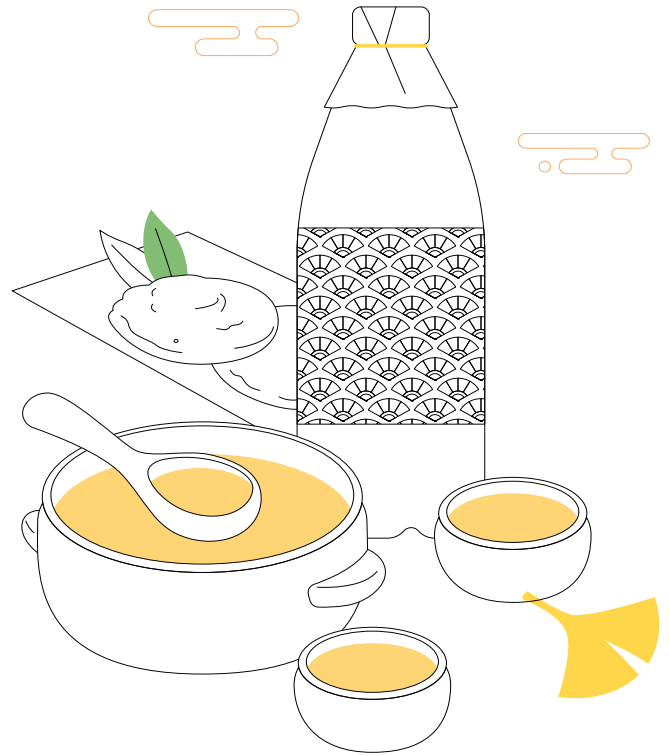
당시 용인문학회는 종합문예지 ‘용인문학’ 4호(2000년)에 ‘노작 홍사옹 생가를 찾아서’를 특집으로 게재한 바 있다.



세대공감 (世代共感)

막걸리 이야기

남기주



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비로운 물질로 문화와 계급의 높고 낮음에 영향받지 않고 인류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하물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의 이적(異跡)이 쓰여있기도 하다. 한마디로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취하는게 술이다. 여기서는 우리의 고유주요 별주(別酒)인 막걸리의 dots자리를 펴고자 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술이라면 막걸리라 할 것이다. 갈증을 풀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데, 시름을 달랠 때, 길흥사에서 서민과 애환을 함께 해온 술, 막걸리는 확실히 한국적인 술이다. 우리 국토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는 민족주(民族酒)라 할 것이다.

막걸리는 고두밥(지예밥)에다 누룩을 섞어 빻은 술을, 오지그릇 위에 정(井)자 모양의 경그레를 걸고 체로 막 걸러 뿌옇고 텁텁하게 만든 술이 우리의 전통

방식이라 한다. 술이 다 익어서 맑은 술을 떠낼 때 용수를 박아서 떠낸 것은 맑은 술이고, 물을 더 넣어서 걸쭙하게 걸러내면 막걸리가 만들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이다.

지상에 소개된 누룩 만드는 방법을 보면, 백미 세말을 잘 씻어 물에 하룻밤을 재우고 다시 씻어 곱게 가루를 낸 후, 이 가루를 물로 되게 반죽하여 주먹만 큼씩 뭉쳐 짚으로 엮고 빈 섬(짚으로 만든 자루)에 담아 더운 온돌방에서 띄운다. 이때 자주 뒤집어 주면 누렇게 뜨게 된다. 누룩을 쓸 때는 껍질을 벗겨내어 쓰게 되는데, 처음 뭉칠 때 질게 하면 속이 썩어서 좋은 누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초기에 주세를 부과하며, 주세령에 따라 많은 전통주가 증발하기도 하였고 이후에 다시 등장한 것도 있다 전한다. 막걸리는 다르게 탁주(濁酒),

탁료(濁醪)라고도 부른다. 1961년 이후 미국에서 들여온 밀가루를 써서 만든 막걸리가 선을 보이면서 이후에 옥수수, 고구마, 보리쌀 등 술한 변천을 거쳐 오늘에 이른다. 개방 물결을 타고 외래 주류가 등장하면서부터 막걸리는 한때 쇠퇴의 길을 걷기도 하고, 특유의 약점인 산패(酸敗)의 파고를 넘기기 힘들었고 대개는 소주를 즐겨 마시면서 굴곡의 길을 거쳐 오늘날에는 다양한 막걸리가 등장하고 있다. 과학적인 원료의 개발 그리고 제조공정 개선 등으로 주질(酒質)의 향상과 장기보존으로 상품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쟁점은 막걸리의 저가인식(低價認識)이 지배적이라는게 문제이다. 곳곳에 이름난 막걸리가 존재하지만, 주류시장에서 점유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좋은 막걸리는 감(달甘), 산(실酸), 신(매울辛), 고(쓸苦), 삼(뚫을瀰)미가 잘 어울리고 적당히 감칠맛과 청량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속담에 “시거든 뚫지나 말라”는 말이 있는데, 막걸리의 맛은 대부분 시고 뚫다. 그렇다고 감미료가 들어간 막걸리가 더 좋다는 말은 아니다. 최고의 관건은 부연 유백색(乳白色)이 잘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희옅스름한 빛이 오래 감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전통 가양주(家釀酒) 방식으로 쌀로 지은 고두밥과 누룩을 사용해 술을 담가 드시는 맥도 있기는 하다. 무형의 문화유산이자 가내의 비기(祕記)로 전수되어온 방법일 것이다. 봉제사 접빈객(奉祭祀 接賓客)을 소중하게 여겼던 지난날에야 술이 빠질 리가 없었을 것이다.

막걸리 원료는 찹쌀이 가장 좋은데 밀가루나 녹말을 원료로 했을때에는 쉽게 가라앉고 만다. 그래서

막걸리잔에 따라 놓고 열변을 토하다 보면 윗물은 맑아지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 빛깔을 되찾아 마시는 진풍경이 등장한다. 막걸리 특유의 감칠맛과 향은 쌀로 만들었을 때 가장 좋다. 다른 술과 달리 원료중에 당분등이 완전히 다 발효가 되지 않으며, 발효가 안된 성분도 걸쭉하게 남게 된다. 막걸리는 한 모금씩 마시면 그 진미를 알기 어렵다. 혀에 닿는 감촉과 목에 넘어갈 때의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대폿잔이 필요한 것이다. 70년대까지는 용인시장통에 왕대폿집이 꽤 있었다. 격자창으로 된 미닫이 출입문에 붉은 글씨로 “왕대포”라고 써놓은 것을 많이들 기억할 것이다. 왕(王)대포는 큰 술잔을 뜻한다. 여기에서 등장하는게 양재기(洋瓷器)이다. 누린것이 변색되면 회색이 된다. 양은(洋銀) 그릇은 구리에 니켈과 아연을 섞어 만든 합금이다. 주전자와 도시락 그릇이 눈에 삼삼할 것이다. 용인초등학교 건너편 튀김골목에서는 냉장된 병막걸리가 많은 젊은이를 유혹하기도 했다. 맥줏병을 재활용해 막걸리를 넣은 것이다. 막걸리의 안주로는 빈대떡, 두부김치 그리고 동태찌개가 사랑을 받아왔다. 퇴근길에 막걸리 한잔은 불로장생주라 일컫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다. 흔치않게는 막걸리에 밥을 말아 드시는 분도 계셨다.

막걸리를 영양이 높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성분이 탄수화물로 칼로리가 많다. 열량이 마시는 빵이라는 맥주보다 더 높다고 한다. 농부들이 바쁜 일손을 멈추고 한 사발의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이 풍류만이 아니고 한끼 식사와 비등하다. 그래서 농주(農酒)라고도 부르는게 아닌가 싶다. 한때 시골 동네에서는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평상에는 동네 사위들이 울

때 막걸리 한말은 으레 어른 접대용으로 놓아 두곤 하던 예도 있었다.

더구나 고 박정희 대통령이 농민과 함께 막걸리를 나누는 사진은 상당한 각인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가난하고 친할 때 고생을 함께 겪어온 아내’ 조강지처(糟糠之妻)의 조강은 ‘술지게미와 쌀겨’를 뜻한다. 알다시피 술지게미는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이다.

술은 만민이 즐겨하니 술한 이야기가 댘돌았다. 일컬어 반야탕(般若湯), 미혼탕(迷魂湯), 망우물(忘憂物), 곡차(穀茶)등으로 언어의 유희를 자아냈다. 반야는 지혜를, 미혼은 정신을 흐리고, 망우물은 근심을 저버린다는 풀이가 있으며, 곡차는 술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고려가요 청산별곡(靑山別曲)의 8연에 보면 다음과 같다.

“가더니(가다 보니) 불룩한 독에
 독한 술을 빚는구나.
 조롱박꽃 같은 누룩 냄새가 매워
 나를 붙잡으니 난들 어찌하겠는가.”라고 끝을 맺는다.

그리고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한시 타맥행(打麥行, 보리타작)의 첫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新藜濁酒如漚白(신추탁주여동백)- 새로 걸러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영고
 大碗麥飯高一尺(대완맥반고일척)- 큰 사발에 보리

밥, 높기가 한 자로세.”

막걸리에 보리밥등 당시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시어를 써 그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행(行)은 한시의 형식 중 하나로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이라 한다.

대표적인 주당으로 반승반속의 진묵(震默, 1563-1633)대사가 있었으니 바다를 술통으로 삼았다 한다. 전설의 인물이다. 그 외에도 등장할 위인(?)이 계시겠지만, 막걸리하면 또 한사람 호기발동의 일인자 천상병(千祥炳, 1930-1993) 시인을 빼놓으면 섭섭할 것이다. 그는 “막걸리”라는 시의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였다. “막걸리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다.”라고. 그래서 어떤이는 술이란 공학(工學)과 인문학(人文學)이 함께하는 문화라고 했던가.

5~60년대 혼탁한 선거는 고무신과 막걸리 선거로 비유되기도 했었고, 연.고전(延高戰)에서는 맥주와 막걸리가 비교되기도 했다. 또한 비교적 술이 약한 부류에서는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어서 시원하게 마시곤 했다. 요즘에 유행하는 소맥과 같다고 보면 되겠다. 이름하여 ‘막사이’라고 하는데, 시원을 찾자면 필리핀 대통령을 지낸 고 라몬 막사이사이(1907-1957)에서 차용된 것이다. 썩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워낙 ‘막사이사이 상(賞)’이 유명하다보니 예전 대학가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언제나 젊은이는 신조어와 은어를 즐기지 않는가.

대중가요 중에는 이용복의 ‘막걸리 추억’과 강진의 ‘막걸리 한잔’이 있다. 술 하면 거품이 많다. 누구는 말

술이라느니 아무리 마셔도 꼬떡없다는 등의 부풀림이 나타난다. 모두 허세이다. 술 마시고 멀쩡한 사람은 없다. 그런 연고로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기고 갔다.

‘두번 어린이가 되는 것은 노인만이 아니고 술취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용인지역의 막걸리 역사를 되짚는데는 ‘해동(海東) 양조장’을 뛰어 넘어서는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 상호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추측으로는 ‘발해(渤海)의 동쪽, 우리나라’의 뜻이 가장 어울릴 듯 하다. 정치영역에도 참여했던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출신의 조성우씨와 부인 이영란 여사가 있었다. 지금의 처인구 우리은행 자리이다. 양조장에 들어서면 통풍과 채광을 고려한 특이했던 건물과 그 웅장했던 술독이 눈에 선하다. 이제는 기억 저편에 서 있다. 말통이라 부르는 20리터들이 술통을 짐 자전거에 대여섯 통씩 싣고서 배달을 하던 동네 어르신이 생각한다.

용인 시장통에서 출발하여 비포장도로를 달려 사방술도가에 배달을 하였다. 석양주(夕陽酒)가 생각나면 아들, 손자에게 주전자를 들려 심부름을 시키면서 “잔돈은 네가 가져라”하던 어른이 많이 계셨을 것이다.

오늘 용인지역의 막걸리 원재료 및 함량 표시에 보면, 입국(粒麴)을 쓰는 곳과 누룩을 쓰는 곳이 있다. 입국은 한자로 ‘날알 립에 누룩 국’을 쓴다. 일본식 누룩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팽화미(膨化米)가 가미된다. 팽화미란 빵튀기(튀밥)를 말한다. 한마디로 압력용기 속에서 튀긴 쌀이다. 또한 정제수(精製水)를 사용하는데 증류수와 탈이온수를 정제수라 한다. 대부분 밀을 함유하고 합성감미료를 사용하며 산도 조절을 위해 젖산과 구연산을 사용하기도 한다. 경기지역의 어느 막걸리는 특이하게 우유를 사용하는 측도 있다. 유통기한은 10도 이하의 냉장 보관이면 30일 정도이며, 시중 판매가격은 1.7L들이가 3,000원



해동양조장(1960년대) : 해동양조장은 막걸리를 주조해 판매하던 곳으로 현 처인구 김량장동 롯데시네마 맞은편 ‘우리은행’자리로 전해지고 있다. 출처 : 용인신문(용인, 그 위대한 여정)

미만이다.

용인의 막걸리와 더불어 인근의 막걸리로는 서울 탁주, 포천의 이동막걸리, 양평의 지평막걸리, 진천의 덕산막걸리와 단양의 대강막걸리가 있으며, 지역적 다양성은 언제나 존재해 왔다. 알콜 도수는 대개

6%-7% 내외이다. 막걸리의 맛은 대동소이(大同小異)일까 아니면 대동단결(大同團結)일까. 누구나 술맛을 이야기 하지만 정작 물어보면 우물쭈물 하는게 보통이다. 다양하기도 하고 주관적인 입맛에 쉽게 말하긴 그럴 것이다. 우문에 현답을 바라는게 아닐까.

용인지역의 막걸리는 다음과 같다.

* **원삼 막걸리** : 원삼양조장,공빙우리술 주식회사/처인구 원삼면 고당로 15번길 7



원삼양조장



* **용인 처인성 생막걸리** : 처인성주조/처인구 원삼면 미평로 81번길 38-2



* **백암 막걸리** :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26번길 24



백암양조장 전경과 김명환 사장(1960년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용인 백암양조장의 옛날 전경과 사장이었던 김명환씨의 모습. 지금까지도 용인의 대표적인 막걸리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초창기 백암양조장과 대표 사진
출처 : 용인신문(용인, 그 위대한 여정)



* **용인 막걸리** : 용인합동양조장/
포곡읍 금어리 568-1

* **신갈 막걸리** : 신갈수지합동양조장/기흥구 공세로 230



신갈수지합동양조장



여기에 한석봉(1543-1605)의 시조로 막걸리 이야기의 자리를 걷고자 한다.

“짚 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술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아희야 박주산채¹⁾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1) 박주산채(薄酒山菜 : 맛이 변변하지 못한 술과 산나물, 차림상의 겸손을 뜻한다.)

양복점

글·사진 | 박숙현 _ 작가

남성 맞춤 양복점은 기성복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사양길로 접어들기 시작해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직종이 돼 버렸다. 기성복이 등장하기 전에는 남성들은 양복을 모두 양복점에서 맞춰서 입었다. 양복뿐만이 아니라 남방, 와이셔츠, 교복은 물론 재건복까지 맞춰 입었다. 그야말로 양복점 호황기였다.

1961년 재건운동국민본부에 의해 재건 운동이 일어났다. 재건운동은 거주장스럽고 활동하기 불편한 생활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신생활복, 일명 재건복 입기 운동을 전개했다. 1965년 7월 8일 국회에서 '신생활복 착용



65년 맞춤 양복점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김종학 용인 '문화라사' 대표가 제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2022년 김명수 작가 촬영)

안'을 통과시켰고, 이어 제 3공화국 시절에는 보편적 복장이 한복에서 양장으로 바뀌었다.¹⁾

1970년대부터 결혼문화도 구식 결혼에서 신식 결혼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한복 대신 양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렸다. 양복점이 호황을 이룰 수밖에 없는 계기는 이처럼 도처에 있었다.

나들이할 때 정장을 차려입고 나서던 문화도 한몫 거들었다. 요즘이야 좋은 옷이 흔한데다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외출복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지만 당시 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서던 시대였다.

양복지 생산도 한몫을 거들었다.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양복지를 생산하지 못했다. 정식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품도 아니었다. 밀수로 들여 오던 시절이었다. 1950년대 말에 가서야 제일모직과 경남모직이 우리나라 양복지 생산에 들어가 6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양복지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한일합섬과 한국나이롱(코오롱)이 폴리에스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²⁾ 이들 섬유재벌 등장은 양복지 생산에 날개를 달아 양복점 호황에 부채질을 했다.

기성복 등장과 맞춤 양복점 쇠퇴기

맞춤 양복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기성복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우리나라에 기성복 시대를 처음 열기 시작한 분은 용인 분이다. 기성복 매장인 한국양

복총판을 운영한 분으로 1970년대에 서울 청량리에서 기성복 공장을 운영했다고 전해진다. 이분이 운영하는 한국양복총판에는 용인 출신의 후배들이 많이 고용돼 이분의 덕을 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1970년대는 기성복을 사 입기는 다소 이른 시기였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기성복을 사 입어도 돼나”하는 의문을 가지던 시절이었다. 당시는 ‘양복은 맞춰 입는 것’이라는 개념만 있을 때였다. 따라서 그때만 해도 맞춤 양복점은 그다지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제일모직과 반도상사(LG상사의 옛 이름) 등 섬유재벌들이 기성복 시장에 뛰어들자 상황이 바뀌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기성복 시대가 열리고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맞춤 양복점을 운영하던 사장들은 제일모직 원단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사실 섬유재벌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도도한 흐름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소비자들은 처음에 기성복이 등장했을 때는 기성복을 외면했지만 점차 편리한 기성복에 점수를 후하게 주기 시작했다. 양복을 맞추려면 양복점에 가서 재는 것부터 다시 가봉을 하러 가야하는 등 오가는 불편과 시간 소요가 컸지만, 기성복은 다 만들어져 걸려 있는 옷을 꺼내 입기만 하면 됐으니 편리함과 신속함을 비할 데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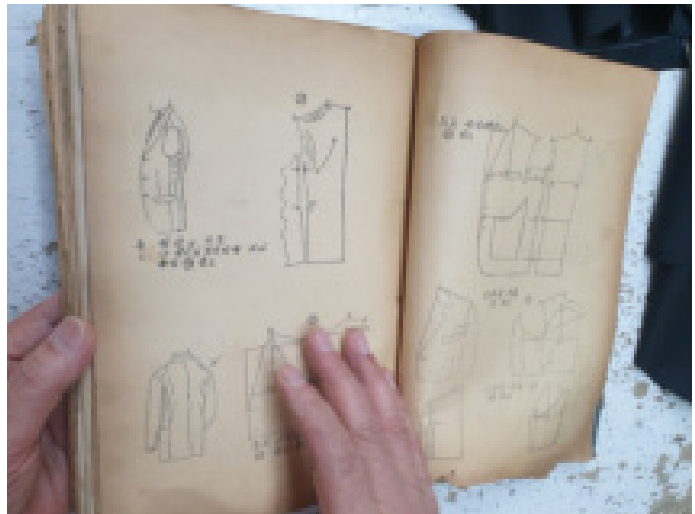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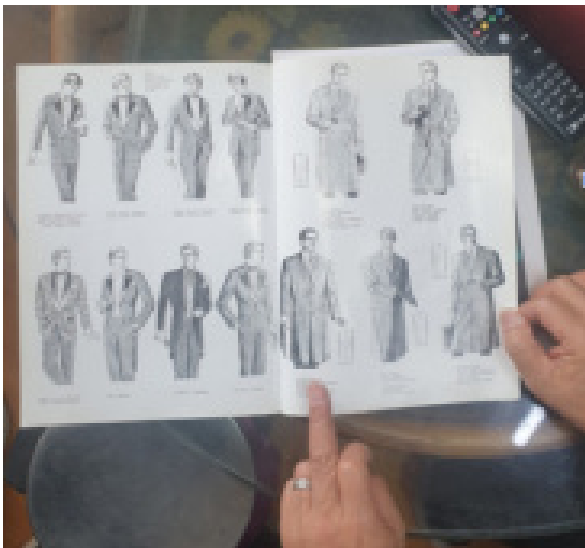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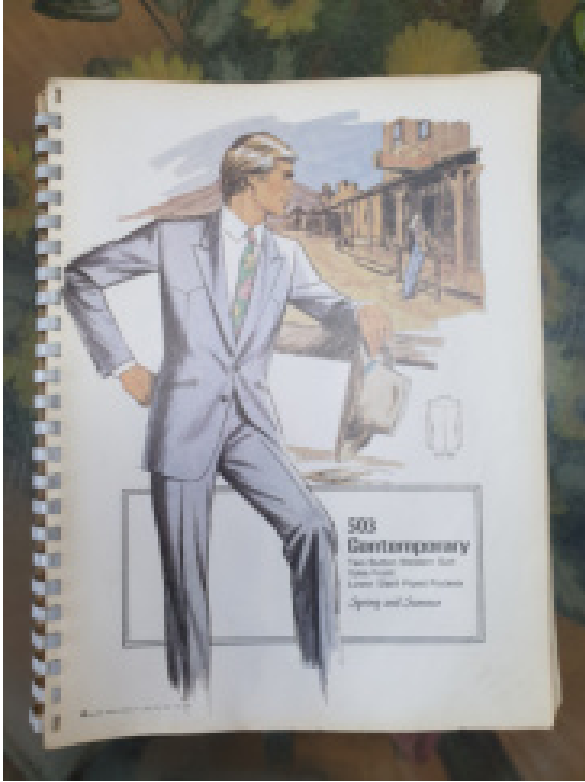
결국 기성복이 급속하게 자리를 잡았고, 맞춤 양복점들은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성복을 당해낼 수 없었다. 원단 생산도 이분화 돼 있어 기성복 원단은 맞춤 원단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기성복들이 애당초 가격을 높이 책정하고 세일을

1) <https://blog.naver.com/telience92/222146983766>

2)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YTT_board&wr_id=919

○ 사라져가는 것들



김종학 문화라사 대표가 60~70년대에 활용했던 디자인 패션 잡지와 디자인 교본(용인 '문화라사' 김종학 대표 소장 자료)

많이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빅 세일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아니란다. 맞춤 양복이 보다 저렴하고 품도 난다는 것이다. 특히 기성복은 품이 조금 넓어도, 소매가 조금 길어도 수선 없이 입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맞춤 양복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조금만 커도, 조금만 길어도 트집을 잡던 사람들의 마음이 기성복 등장과 함께 유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도 맞춤 양복점은 그 사람의 체형을 커버까지 해주면서 땀시 있게 딱 떨어지는 양복을 내놓는다.

어찌했든 맞춤 양복점 시대는 저물고 기성복 시대가 크게 도래했다. 결국 그토록 성황을 이루던 맞춤 양복점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이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기계가 양복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양복 장인이 손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마무리한 수제 맞춤 양복에 비할까 싶다.

용인 중앙시장 근처 양복점 거리 사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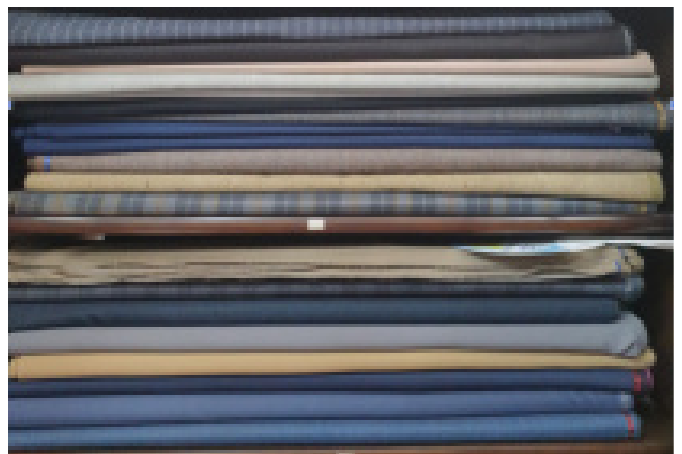
최근에는 패션과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층 사이에서 차별성 있게 양복을 맞춰 입는 것은 물론 양복점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회생을 기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문화라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단 샘플책



문화라사 내부 모습



진열돼 있는 양복지 원단(사진은 용인 '문화라사' 원단)

다. 앞으로 맞춤 양복점의 맥이 끊어지기 전에 젊은 층들이 정통 장인들의 실전의 솜씨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대학 디자인과에서 배운 이론에 수 십년 현장에서 쌓아올린 장인의 양복 만드는 노하우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정통 장인들의 연령이 고령에 접어들고 있으니 현장의 노하우를 물려받으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대를 이어서 가업을 전승하는 일본의 경우는 1000년 넘는 가게가 있고 100년 넘는 가게쯤은 무수하다지만 우리나라는 100년 넘도록 가업을 계승하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대를 잇는 일이 어려우니 정책적으로 사회적인 전승의 길이 열리길 기대해본다.

신사의 나라 영국의 고급 양복점이 몰려 있는 런던 새빌 로우 거리처럼 대한민국, 좁게는 용인에도 다시 양복점 거리가 생겨날 날을 기대해도 될까. 영화 '킹스맨'에도 등장하는 새빌 로우 거리는 여전히 성업중이다. 새빌 로우는 일본식 발음으로 사비로라다. 1970년대에 양복을 해 입은 것을 사비로를 해입었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고 한다.

새빌 로우 거리는 유서가 깊다. 용인에도 새빌 로우 거리가 있다. 영국의 새빌 로우 거리만큼은 아니어도 용인군 시절에 대단한 양복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던 유서 깊은 양복점 거리가 있다. 1970~1980년대의 용인 중앙시장 근처가 바로 그곳이다. 이곳에 22개의 양복점이 성업을 이뤘다고 하니 용인의 새빌 로우 거리가 아니겠는가.

맞춤 양복점의 쇠퇴는 용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 90년대 후반 정도가 되면 대부분 자취를 감춰버린다. 용



수십년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재봉틀, 가위 등의 도구와 1980년대에 문화라사 홍보용으로 제작한 옷술. 김종학 대표는 당시 극장 홍보는 물론, 전화국 축전을 창안해 제안했고, 몸소 고객관리에 활용하기도 했다.(문화라사 김종학 대표 소장 자료)

인 시가지에 '문화라사'와 '서울라사' 둘 정도만 남아 있었다. 현재는 '문화라사'만이 유일하게 남아 과거 번영을 대변하면서 묵묵히 수제 맞춤 양복점의 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용인 유일의 양복점 문화라사 김종학 대표를 통해 본 맞춤 양복점 호황기

현재 용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맞춤 양복점인 문화라사 김종학(78) 대표는 65년 오랜 시간을 맞춤

양복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소중한 장인이다. 남들이 다들 양복점 문을 닫고 업종 전환을 했지만 김종학 대표만큼은 유일하게 남아 맞춤 수제 양복의 자존심과 문화라사의 간판을 지켜내고 있다. 양복 인생에 단 한 번의 빈틈이 없었다.

1945년 해방동으로 용인 김량장동에서 태어난 김종학 대표는 군대 3년과 제도 등 양복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울에서 잠시 머물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용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용인 토박이다.

15세 소년 시절에 용인의 태흥양복점을 통해 입문, 서울에 상경해 문화복장학원을 마치고 서울 양복점에서 잠시 서울 디자인과 패션, 손바느질을 익힌 후 17세에 과감히 고향 용인으로 복귀, 청한상가 내 백마사 취직을 시작으로 본격 양복일을 시작했다. 군대에서도 재단 일을 했다. 백마사는 세탁소였지만 당시 신사복, 학생복, 남방, 와이셔츠 등 양복점을 병행했고, 손이 빠른 김종학은 15분이면 남방 하나를 만들어 낼 정도여서 순식간에 20여개의 남방이 쌓였다. 이때 돈을 모아 창업을 할 수 있었다.

김종학 대표는 용인에서 두 번 오픈을 했다. 최초는 1965년 21세 때 백암에 차린 '문화양복점'이었다. 백암은 번두리였지만 전국 2위의 우시장이 열리던 부촌이었다. 이때는 군대 가기 전에 경험 삼아서 운영하던 시절이다. 그럼에도 연일 손님이 들끓었고, 특히 장날에는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만큼 성업을 이뤘다. 대 성공이었다.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상관없이 맞춤 양복에 대한 수요는 대단했다. 물론 서울의 잘 나가는 양복점 사장들이 감탄한 빼어난 솜씨였기에 가능했다. 당시 아쉽게도 군대를 가기 위해 '문화양복점'을 매각했다.

두 번째 개업은 군대 제대 해인 25세에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안에 차린 '문화라사'였다. '문화'라는 제호는 똑같지만 백암에 차렸던 것은 '양복점'이고, 김량장동에 차린 것은 '라사'다. '라사'는 원단까지 같이 취급을 하는 규모 있는 양복점을 말한다. 이때는 용인 중심가에서 당시 잘나가던 양복점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겨뤘다.

개업할 당시에 용인(처인구 지역)에 양복점이 10곳쯤 있었다. 그때만 해도 용인의 구시가지에는 지금처럼 상가들이 많지 않았다. 주변은 온통 논밭이었고, 초가집들도 있었으며 지금의 농협 자리에 있던 예식장이 그나마 큰 건물이었고 여관이나 다방, 한약방 등이 주로 있었다. 재래시장은 현 청한상가 자리에 있던 천주교 성당이 70년대 후반 인근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후에야 자리가 넓어져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금의 규모가 됐다.

그럼에도 처음 개업을 한 후 얼마나 양복점이 잘 됐는지 당시 양복점 직원 가족까지 25명을 먹여살릴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문을 열자마자 서울에서 이름을 날렸던 김종학을 알아보는 손님들이 밀려들었다. 개업 당시 대로변에 빈자리가 없어서 시장 안에 개업을 했지만 머지않아 1977년에 중앙시장 입구, 지금이나 당시나 용인에서 가장 핫한 자리인 시장약국 자리로 확장 이전할 수 있었다.

이전하니 더욱 문전성시를 이뤘다. 하루에 33벌까지 체촌(치수를 재는 것)을 했을 정도였다. 윈도우에는 가봉한 옷 20~30개를 걸어둘 빈 자리가 없어서 겹쳐서 걸어 놓았을 정도였다. 김종학 대표는 22개 정도 양복점이 성업을 이루는 가운데 양복점 사장들



농협옹인지지부 맞은편에 위치한 문화라사와 김종학 대표. 김종학 대표는 1966년 백암 문화양복점 시절에 창의적인 양복 디자인을 내놔 (사)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에서 기술인 정업소 인증패를 받았다. 이는 대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김종학 대표의 자부심이다.

의 단체인 대한복장협회의 기술자협회의 용인지역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1987년도에 건물주가 새롭게 건물을 짓는 바람에 김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처인가청 방향으로 150미터 정도 올라온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 지금까지 35년을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88년 올림픽 때까지는 양복점 운영이 어느정도 괜찮았다. 용인에는 80년대까지도 10대 소년들이 양복 기술을 배우고자 했을 정도였으니 본격 쇠퇴기는 90년대 들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양복점 일은 10대 소년들이 배웠다. 초창기에는 이문도 남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기성복이 활성화되고 기술자들의 월급이 인상되는 등 운영난이 가중되면서 양복점 업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야간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대신 맞춤 양복점 개업을 선택해 푸른 꿈을 실현한 김종학 대표. 현재 79세 나이가 무색하게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는 정확하고 맵시있는 바느질 솜씨로 3000여명의 고객을 유지하고 있다. 매일 아침 출근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생일을 맞은 고객에게 축전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정직, 정확, 신뢰, 성실, 봉사, 친절은 평생 변함없는 김종학 대표의 인생 모토다.

포은 정몽주 묘역으로 떠나는 역사 나들이

글·사진 | 김명수 _ 사진작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에 위치한 포은 정몽주(1337~1392) 선생 묘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곳이다. 싱그러운 한 여름에는 너른 잔디와 푸른 나무 그늘이 시원함을 주고, 하얀 눈이 덮인 한 겨울에는 햇살에 눈부신 고즈넉한 묘역이 더욱 빛을 발한다.





불사이군, 즉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을 죽음으로 실천한 정몽주 선생. 여기서 두 임금은 고려와 조선 두 왕조를 말하는 것으로 고려말의 대학자며 교육가였고 외교가였으며 정치가였던 정몽주 선생은 충절의 대명사다.

정몽주 선생 묘역은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평소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역사 공부를 할 겸 이곳을 찾는다. 자연 속 힐링까지 덤으로 얻어가는 코스로 남녀노소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요즘 같은 겨울에도 추위가 다소 누그러든 날에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잠시 흰 눈길을 산책 하는 것도 좋다.

정몽주 선생은 역사 교과서는 물론 수많은 사극에 등장해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훗날 왕위에 올라 조선의 3대 태종이 된 이방원의 ‘하여가’에 답한 정몽주의 ‘단심가’도 정몽주라는 이름만

큼 유명하다.

묘역을 올라가는 입구에는 고려에 대한 죽음의 충절을 노래한 ‘단심가’가 새겨진 커다란 시비가 세워져 있다. 조선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과 창업에 공이 큰 이방원이 반대편에 서 있던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고 회유하기 위해 지은 ‘하여가’에 대한 답이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 백번 고쳐 죽어
백설이 진토 되어 낮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묘역 입구에는 단심가와 나란히 또 하나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바로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백로가’이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새오나니
 청강에 고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정몽주는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간신이나 역신의 무리와 어울리지 않고 충절의 인물로 성장했다.

묘역 입구에 세워진 홍살문 안쪽으로 들어서자면 선죽교를 재현해 놓은 듯 아담한 다리가 있다. 선죽교는 정몽주가 이방원이 시킨 조영규에 의해 철퇴에 맞고 피살됐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문수산 자락 낮은 언덕 위에 정몽주 묘가 자리하고 있다. 원래 정몽주 선생의 묘는 개성 풍덕군에 있었다. 1406년 3월, 고향인 경상북도 영천으로 천묘를 하던 중 행렬이 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이르자 명정이 바람에 날려 지금의 묘역에 떨어지면서 이곳에 모셨다고 전해진다.

정갈한 묘는 곡담과 봉분, 병풍석과 난간석이 둘러있고, 상석, 향로석, 문인석, 무인석, 석양을 비롯한 석물들이 잘 조성돼 있다. 묘표와 신도비도 있다. 신도비는 우암 송시열이 썼다. 신도비의 글귀는 선생의 높은 학덕과 충절을 기리는 내용이다.

원래 단출한 무덤이었는데 1972년 경기도문화재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면서 현재 모습으로 정비됐다. 선생의 묘역은 천묘하면서 조선 조정에서 사패지로 내려진 것으로 영일 정씨 포은공파의 종





산이다. 아들 손자를 비롯해 25세손까지 이 묘역 안에 잠들어 있다.

정몽주 선생은 영일 정씨다. 영일 정씨의 관향은 경상북도 영천~포항 일원이다. 영천은 명문가로 이름 높은 영일 정씨 집성촌을 이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일 정씨 문중을 대표하는 인물은 단연 포은 정몽주 선생이다.

원래 포은은 용인과 무관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포은은 용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됐다. 포은의 묘소가 용인시 모현읍에 있기 때문이다. 포은이 용인 땅에 묻힌 이후 영일 정씨 문중 포은공파 직계손은 대대로 용인 땅에 묻혔다. 태종이 모현 일대를 포은의 후손에게 하사하면서 용인은 정몽주 선생과 깊고도 오랜 인연을 맺게 됐다. 모현은 충신을 사모한다는 뜻이며, 포은과의 인연으로 인해 용인은 충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포은 신화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 되면서 비롯됐다. 충과 효를 통치의 근간으로 한 조선은 유교 국가의 표상이 될 인물이 필요했다. 삼봉 정도전을 척살하고 태조 이성계를 퇴위시키며 권력을 장악한 태종 이방원은 정통성이 필요했다. 태종 이방원은 정도전을 역사에서 지우고 그 빈자리를 대체할 상징적 인물로 정몽주를 선택했다. 정몽주는 태종 이방원에 의해 불멸의 충신으로 상징화되고 조선 왕조를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가 됐다.

포은 묘역을 둘러보면서 이석형(1415~1477)의 묘를 빼놓을 수 없다. 정몽주 묘 옆에 잘 꾸며진 포



하나의 묘의 주인공은 정몽주의 손서(孫壻:손녀의 남편)인 저현 이석형의 묘다. 이석형은 조선 최초로 세가지 과거에서 장원급제해 삼장원으로 불린 천재다.

이석형의 묘는 원래 정몽주의 묘가 될 자리였다. 명정이 바람에 날려 떨어진 곳이 바로 이석형의 묘자리였다. 한눈에 천하명당임을 알아본 지관과 상주들은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고향으로 갈 것 없이 이 자리에 모시자”고 결정하고 광증을 봤다. 그런데 이석형에게 출가한 포은의 손녀가 밤새 물을 퍼다가 광증에 부었다. 자신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줄 요량이었다. 다음날 물이 흥건한 광증을 보고는 정몽주 선생을 그 옆에 모시게 됐다.

이석형의 부인 정씨의 지성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이후 연안이씨 문중에서는 줄줄이 천재가 탄생했다. 삼정승 8명, 대제학 7명, 청백리 6명 등 조선조 오백년동안 250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했다. 후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영일정씨 문중에서는 연안이씨와의 혼인을 금했다고 한다.

정몽주 묘역은 정몽주와 얽힌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풍성하게 펼쳐지는 곳이다. 풍경을 감상하면서 나들이를 떠나보자.

경남 함안 편

아라가야를 품은 함안

이미경 _ 경남 함안 답사 참가자

오늘 전국역사 문화기행은 경남 함안군이다.

알고 있는 함안이라는 곳은 평범한 시골 마을이고 역사적으로도 딱히 알려진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일까? 처음 참가하는 답사라 살짝 긴장감과 함께 기대감을 갖고 일출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룬 시간 출발해 함안으로 달려갔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들른 곳은 무진정이다.



무진정

무진정은 중종 37년(1542)에 무진 조삼선생이 후진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지은 정자로서 선생의 호를 따 무진정이라 하였다.

조삼 선생은 1489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곧 이어 즉위한 연산군이 폭정을 하자 문과를 단념하고 학문에만 전념하다 나중에 중종이 즉위하자 성균관에 입학했다.

조삼 선생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과거에 응하기 위해 일찍 뜻을 세우고 독서에 전념하고 있었던 어느 날 아침 종이 밥상을 들여놓았으나 밥상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글만 읽고 있었다. 종이 할 수 없이 밥상을 치워 갔다. 점심밥상도 깨닫지 못하니 종이 또 밥상을 치워 갔다. 해가 지니 허기가 나므로 종에게 아침밥상을 재촉하니 종이 사실대로 말하자 크게 웃으며 글에만 전념하다 몰랐다고 했다 한다. 이와 같이 서책 이외의 것에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삼 선생이 많은 책들을 읽었을 무진정은 앞면 3칸, 옆면 2칸의 건물구조이며 팔작지붕 기와집으로 정자의 가운데 칸은 온돌방이 아닌 마루방이 바닥에서 기둥을 세워 만든 누마루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꾸며진 조선 전기의 정자 형식이다.

무진정 앞에는 연못이 있는데, 세 개의 인공 섬을 만들고 섬에 영송루를 지어 돌다리로 연결해 운치 있는 경치를 자아내고 있으며 매년 4월 초파일에 전통 불꽃놀이가 열린다.

조선 선조 때 함안 군수가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살기 편안함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후 조선후기에도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매년 4월 초파일에 복을 부르고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함안 낙화놀이를 한다.

참나무 숯가루를 한지에 싸서 땀기머리처럼 엮은 것을 '낙화봉'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줄에 매달아 저녁 무렵 불을 붙이면 숯가루가 꽃가루처럼 연못 위로 흩날리는 불꽃놀이 이다.

바람이 불면 불꽃이 더 흩날려 장관을 이룬다.

얼마 전 사극 드라마에서 밤을 환하게 밝히며 떨어지는 불꽃이 눈에 남았었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관일 것 같다.

연못을 따라 한 바퀴 거닐다 보면 부자쌍절각이 보인다.

생육신의 한 사람인 조려의 5대손이자 이곳에 정자를 세운 조삼의 증손자인 조준남의 효행과 그 아들인 조계선의 충절을 함께 기리기 위해 숙종 32년(1706) 왕명으로 세워진 정려각이다.

정려는 충신, 효자, 열녀 등이 살던 집이나 마을 입구에 정려문이나 정려각을 세워 기념하는 것이다.

각은 정려를 받은 사실을 기록한 현판이나 비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님의 권위에 따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고 한다.

연못을 거닐다보니 조선시대 선비의 여유에 취해 걸었던 탓인지 맨 마지막으로 탑승해 다음 답사지인 말이산 고분군으로 출발했다. .

말이산 고분군은 함안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다.

함안은 아라가야의 옛 도읍지로 변한의 작은 나라



말이산고분군

였을 때부터 신라에 멸망하는 6세기 중엽까지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가야는 시기에 따라 크게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구분된다. 기원 전후부터 4세기 대까지를 전기가야라 하는데 주도국은 철 생산과 교역을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이다.

그 다음 5세기부터 대가야의 멸망시기인 562년까지는 후기가야로 주도국은 고려의 대가야와 함께 함안의 아라가야라 할 수 있다.

아라가야는 현재의 함안을 중심으로 창원, 진주, 의령의 일부를 포함할 정도로 광활한 분지와 넓은 해안을 영토로 하였다.

북쪽에는 남강이 낙동강과 만나고, 남쪽에는 진동만이 있어 내륙과 해상으로 진출하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은 아라가야가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4세기 전후에 더욱 성장한 아라가야는 5세기 무렵에는 말이산에 고총고분을 조성할 정도로 정치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후 여러 가야국들을 대표하여 백제, 신라, 일본 등과 외교활동을 주도하였다.

강대했던 아라가야를 말해주는 유적이 말이산 고분군인데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 아라가야의 대표적 유적이다.

말이산은 머리+산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우두

머리의 산'을 의미하는데, 이를 보아 말이산의 어원이 아라가야의 왕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함안박물관 뒤에 있는 말이산은 함안의 가야분지에 위치해 있고 해발 40~70m의 나지막한 구릉이며 고분군의 면적은 52만㎡로 단일 고분유적으로서는 국내 최대급이다.

고분군은 구릉의 중심과 능선에 열을 지어 서 있어 보고 있으면 '산위의 산'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고분군을 올라가는 길은 뒷동산 산책로 같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천천히 걷다 보면 고분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완만한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경사면에는 중소형의 고분군이 3~4기씩 모여 있고 1기씩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 기의 둥근 봉분이 모여 있어 풍경이 볼수록 신기하고 멋지다.

중소형 고분군이 이어진 능선을 따라 올라간 산 정상에는 대형 봉토분이 조성되어 있는데, 봉토분이란 시신과 부장품을 묻는 장소를 흩이나 돌로 쌓아 규모를 크게 만든 무덤이다.

그 중 대형의 봉토분은 아라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중반부터 6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말이산 고분군에는 대형 봉분 1~37기를 함안과 군이 번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도 발굴 조사를 통해 밝혀진 133기를 포함해 고분이 187기나 된다.

그러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1000여 기의 고분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니 아라가야의 성대함을 짐작케 한다. 산 정상에 올라서면 대형 고분군과 함께 아래에 펼쳐진 중소형 고분군들이 눈

에 들어온다.

잠시나마 아라가야에 와 있는 듯 착각이 드는 것도 잠시 고분군 반대편에는 학교와 아파트, 건설현장 등 현대식 건물이 있는 함안 읍내가 보여 순간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한 듯하다. 말이산 고분군은 시대를 넘나드는 곳이랄까? 묘한 기분이 든다.

이렇듯 현재는 무수한 과거들의 연결선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산 정상에서 넓게 펼쳐진 고분군을 한 바퀴 돌며 산책하고 내려와 고분군 아래 위치해 있는 함안박물관으로 향했다.

1500년 전의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말이산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1917년 일본 학자에 의해 발굴조사 된 후 처음으로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1986년 국립창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조사되었다. 함안박물관은 말이산 고분군 200여기의 고분에서 출토된 말 갑옷을 비롯해 말갈춤, 꾸미개, 철제 무기류, 토기종류와 장신구 등 수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우선 박물관 야외광장에는 아라가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로 전시되어 있는데, 불꽃 문양이 들어간 탑 모양이 아라가야의 대표 토기인 불꽃무늬 토기를 형상화해 박물관 중앙에 자리해 있다.

또 고인돌과 선돌, 집모양토기, 10배 크기로 조형된 수레바퀴모양 토기, 사슴모양 토기, 연꽃 등이 전시되어 있다. 토기의 문화의 발달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모양의 토기들이다.

그 중에 연꽃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함안 성



함안박물관



봉황장식 금동관
출처 : 함안박물관



불꽃무늬 토기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산산성을 발굴 조사하던 중, 연못에서 옛 연꽃 씨를 수습하였다.

그 중 두 알을 측정해 본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 고려시대의 연꽃 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씨앗의 싹을 틔우기 위해 씨담그기를 하였고, 세 개의 알을 싹 틔우는데 성공한 후 분갈이 등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은 끝에 2010년 7월 첫 연꽃이 피어났다.

그 이름을 아라 흥련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함안이 고려시대에도 여전히 과거 융성했던 아라가야의 옛 땅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700년을 견디고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면 1층에는 책들과 휴게 공간이 놓여 있다. 2,3층 전시실에는 선사시대유물인 굽개와 찍개, 빗살무늬 토기, 옥 장신구, 화살촉, 돌칼들도 전시되어 있고 아라가야 멸망 이후인 통일 신라까지의 유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다.

아라가야의 역사표도 보인다.

신라에 의해 멸망되기 전까지 오래된 나라로 다양한 문명이 발달한 왕성한 나라였다는 것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유물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로 봉황장식 금동관이다.

말이산 45호분에서 출토 되었는데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을 통틀어 처음 발견된 형태의 관으로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봉황을 표현한 점과 아라가야와 고구려와의 연관성이 높은 5세기 초에 만들어진 고분출토품이라는 점에서 고구려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 만들어진 유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 불꽃무늬 토기다.

불꽃무늬 토기는 함안박물관의 외부에 건축물로 표현했을



별자리가 새겨진 덮개돌
출처 : 함안박물관

정도로 함안의 상징이 되는 토기다. 불꽃무늬 토기는 기원 후 5세기 대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유행한 함안 양식 토기의 한 종류로 화염형 투창토기라고도 불린다.

토기의 발달은 아라가야 도공들의 기술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토기를 생산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강의 범람으로 퇴적된 고운 점토를 쉽게 구 할 수 있었고, 남강과 낙동강 등의 물길을 이용하여 영남 각지에 토기를 손쉽게 공급 할 수 있었다.

굽다리 부분의 불꽃처럼 생긴 구멍이 있는 게 특징이며 함안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 마산, 창녕, 김천, 거창, 합천, 산청, 경주, 부산, 김해, 울산에서 출토 되었으며 일본 긴키지역에서도 출토 되어 아라가야의 주변 국가의 정치, 문화적인 대외관계를 추적하는 근거가 된다,

불꽃무늬 토기 종류에는 굽다리접시, 굽다



말 갑옷
출처 : 함안박물관

리향아리, 손잡이 그릇, 그릇받침, 문양뚜껍이 있으며 사슴, 집, 수레바퀴, 오리, 말, 등잔모양을 한 성형 토기들도 아라가야 토기의 왕성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아라가야는 ‘토기의 나라’로 일컬을 정도로 토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세 번째는 별자리가 새겨진 덮개돌 천문개석이다.

말이산 13호분에서 190개 이상 흠이 있는 덮개돌인데, 이 흠은 아라가야의 별자리로 판명되었다.

뚜껍돌에 새겨진 별자리는 여름철 남쪽하늘에서 볼 수 있는데 현대 별자리로 보면 전갈자리와 궁수자리 등 125개 별자리가 새겨진 덮개돌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대 별자리가 발견된 사례는 25군데의 고구려 고분 벽화가 전부였다.

말이산 13호분의 별자리는 고구려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유일한 자료로 13호분이 만들어진 5세기 후반에 아라가야가 최전성기를 누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말 갑옷이다.

말이산 고분군 발굴을 통해 발견되어 이 무덤의 이름을 마감총으로 지었다.

1500년 전 철갑기병은 즉, 철갑을 입은 가야 무사와 말이므로 오늘날 탱크와 같다.

국내 최초의 완벽한 형태의 말 갑옷으로 말을 타는데 필요한 여러 장식들이 온전한 상태로 발굴 되었는데 발견된 사연이 드라마틱하다.

1992년 현충일에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지나던 고교생 신문 배달 소년의 눈에 웬 철 조각이 보였다.

평소 사학과 출신 신문지국장의 합안은 아라가야

의 중심지니 어떤 유물이 발견 될지 모른다는 말을 누누이 들었던 터라 소년은 철 조각을 들고 지국으로 달려갔다.

이를 본 지국장은 깜짝 놀라 현장에 가서 흩어진 철 조각을 보고 국립창원문화재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동기생의 도움으로 연구사가 바로 파견되었다.

비늘모양의 갑옷 쇠조각이 펼쳐진 장면을 본 연구사는 공사현장의 포크레인 작업이 재개하기 전 공사를 중단시켜 말 갑옷이 원형 그대로 보존 되었다.

이분들의 발 빠른 대처가 아니었음 공사로 인해 파손되고 말 갑옷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총 440~453개의 형태가 다른 조각을 연결해 길이 226~230cm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머리, 목, 가슴, 몸통 부분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를 갖춘 말 갑옷이다.

보호하는 부위에 따라 조각의 크기가 다르며, 갑옷을 잇기 위해 줄을 꿰는 구멍도 아주 미세해 아라가야의 우수한 기술을 엿볼 수 있다.

덕분에 우리는 아라가야가 중장기병을 갖춘 막강한 나라였고 철기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뛰어난 유물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유물들로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함안박물관을 돌아본 후 마지막 답사지 무기연당으로 향하였다.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 연당으로 함안 고택 주씨 고가는 후손이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

이 정원은 조선 영조 4년(1728) 이인좌 난 때의 병을 일으켜 난을 진압한 국담 주재성 선생의 덕을 기리기 위해 관군들이 건립하였다.



무기연당

국담 주재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운동서원을 세운 주세붕 선생의 종손자로 이인좌가 반란을 일으켜 호남까지 진출하려고 하자 이에 맞서 함양 일대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관군과 합세하여 난을 진압했으며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쓰며 보냈다.

충신정려와 효자정려가 있는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인 감은재가 보이며 서재로 사용하였고 사랑채 안쪽으로 일자형 안채와 조상님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데 남부지방 양반집 구조로 지어져 있었다.

감은재 맞은편 한서문으로 들어가면 무기연당이 보이고 왼쪽에는 하환정, 풍욕류가 있고, 오른쪽에는 충효사와 영정각이 있다.

우선 연당을 보면 네모난 모양으로 돌담을 쌓아 올렸는데 ‘국담’이라 하고 그 안에 원형의 당주를 쌓아 석가산을 만들었는데 ‘양심대’라 하였다. 이것은 성리학 사상의 기본인 천원지방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하늘은 둥그랗고 땅은 네모나다는 나타낸 것이다.

집의 기둥도 4개, 바퀴도 4개, 논, 밭도 사각으로 땅에 닿아 있는 것은 사각으로 보고, 하늘에 있는 태양, 달, 별은 원으로 성리학을 상징하는 땅과 하늘의 연결고리가 천원지방사상으로 보고 연못에 소우주를 담아 놓은 것이다.

양심대에는 수령 300년 가까이 된 소나무 한 그루가 높은 기상과 절개를 보여준다.

하환정은 반란을 평정한 공로가 있는 주재성에게

조정에서 벼슬을 내리자 ‘세상살이를 어찌 벼슬 따위와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국담 선생의 소박한 마음이 담겨 있으며, 풍욕류는 ‘바람에 몸을 씻는다’는 의미로 선비의 기상과 고상함을 표현하고 있다.

무기연당은 소우주를 담고 있었고 벼슬을 떠나 자연과 함께 하고픈 국담 주재성 선생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 이었다.

무기연당을 끝으로 함안 기행은 마무리 되었다.

답사를 끝내고 나니 함안을 시골 마을로만 알고 역사적으로 딱히 알려진 것이 없다고 기억했던 게 미안해진다.

앞으로 함안은 조선시대 정원에는 선비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며, 조선시대 양반들의 기품과 여유를 볼 수 있는 곳이고 아라가야의 찬란함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기억할 것이다.

아라가야는 고대 국가로서 삼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억 속에 아라가야의 강대했음은 기억하지 못했다.

다녀온 후 글로 정리해 보니 아라가야의 위상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함안은 그 위대함을 잘 품고 있었다.

현재 말이산 고분을 포함한 가야 고분군 7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대 가야를 대표하는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최종 등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라가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세계 유네스코 등재 소식을 함안 군민들과 함께 기다리며 아라가야를 만나게 해 준 용인문화원에 감사드린다.

제18회 포은문화제 성료



본 문화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모현읍 능원리 포은 선생 묘역 일대에서 제18회 포은문화제를 개최했다.

용인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포은문화제는 첫날 고유제와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로 막을 올렸다.

둘째 날에는 정몽주 선생 추모제례, 기념식뿐 만 아니라 각종 국악공연(버꾸춤, 김영임, 태평무), 초청공연(가수 유금덕, 이강수, 전영록)으로 축제에 흥을 돋구었다. 또한 KBS 역사저널 신병주 교수 초청 강연, 가곡 합창제, 용구놀이 공연이 펼쳐졌다.

뿐만 아니라 소무대에서는 포은골든벨, 버스킹 공연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체험부스, 먹거리장터 등을 운영하며 행사장을 구경 온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3일간 경기도청소년백일장, 경기도청소년사생대회, 포은학당이 행사장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셋째 날에는 제18회 전국한시백일장, 제7회 용인민속예술제가 개최되었으며 중요무형문화제58호 김대균 선생의 줄타기 공연을 끝으로 행사는 막을 내렸다.

제24회 경기도민속예술제 - 용인시청소년연희단 우수상 수상 -



용인시 대표로 참여한 ‘용구놀이 중 하손곡 두레농악’(용인시청소년연희단)이 경기 31개 시군이 참가한 제24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하손곡두레 풍물놀이는 용인시 수지구 하손곡마을(현재 동천동)에서 연행되었던 것이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세월의 흐름으로 유실되었다가 2014년에 복원이 되었다.

경기도민속예술제는 특정 지역에 모든 참가팀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각 지역으로 심사위원을 파견하여 생생한 시연 모습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편 용인시청소년연희단은 우수상 수상과 함께 2023년도에 우수전통놀이지원금을 받게될 예정이다.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학술 세미나



지난 11월 16일,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용인 2대 3부자’ 독립운동 가문 역사 발굴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의 날 추념식과 뮤직 다큐 ‘3대에 걸친 만주 독립군 이야기-오광선 가문’ 제작 발표회도 진행되었다.

학술세미나는 △1주제 : 일제 사료를 통해 본 3.28 용인 독립만세 운동 △제2주제 : 흥재설 가문 2대의 민족운동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김명섭 단국대 박사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제2주제는 김태근 용인학연구소장의 발표로 진

행이 되었다.

발표 후, 2부에서는 김창희 머내여지도 대표의 진행으로 각 주제 발표자들과 김상수 시의원, 황미상 시의원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80여 명이 참여해 후원회비를 바탕으로 매년 다양한 용인독립운동 알리기와 선양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사업회 후원 및 회원가입 문의 : 용인 문화원 ☎031-324-9600

‘합창으로 하나되는 용인문화원’ - 용인문화원 합창단&실버합창단 합동 정기연주회 -



본 문화원 합창단(회장 정현숙, 지휘 권희준, 반주 한지혜) 과 실버합창단(회장 이량, 지휘, 신정우, 반주 장윤선)은 지난 11월 23일(수) 용인시청 마루홀에서 합동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용인문화원’을 개최하였다. 실버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각 합창단 지휘자의 특별공연이 이어졌으며 뒤를 이어 용인문화원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뿐만아니라 파에온 그룹(Paeon Group)의 초청 공연으로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마지막으로 두 합창단의 연합 합창을 끝으로 연주회는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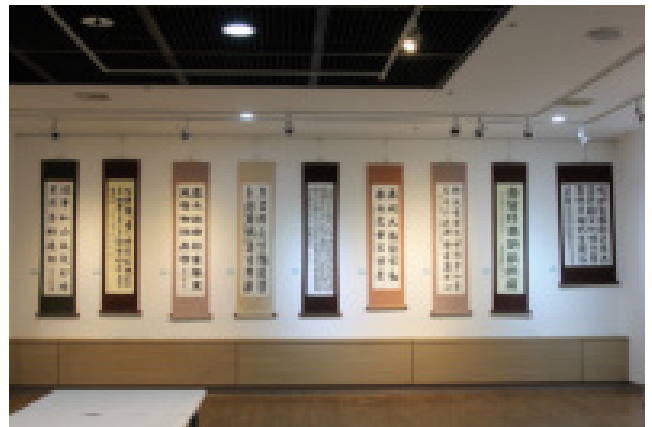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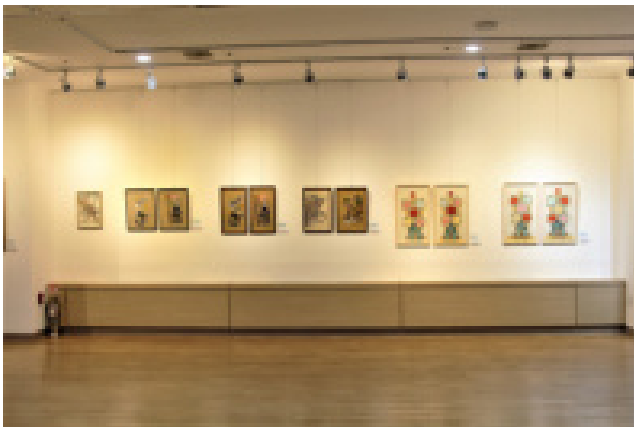
다양한 합창, 공연 등을 선보인 두 합창단은 공연장을 가득메운 관객들의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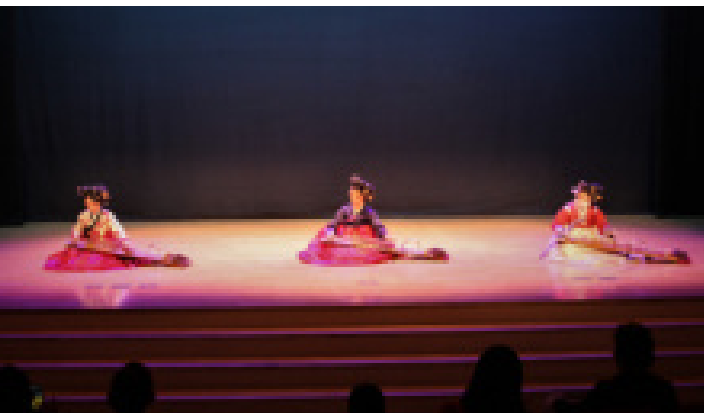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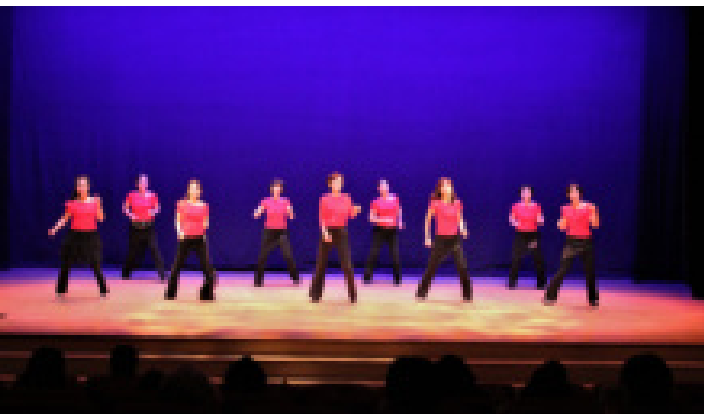
이번 합동 정기연주회 공연 영상은 유튜브 ‘용인문화원’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원 합창단은 매주 월, 금 10:00~12:00, 실버합창단은 매주 월, 금 13:00 ~15:00에 용인문화원 실기연습실에서 운영된다.

입단문의 : 용인문화원 ☎031-324-9600

제13회 우리문화한마당 성황리 마쳐





용인문화원 시민문화대학 16개 교실 수강생들이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기량을 선보이는 '제13회 우리문화한마당'이 11월 29일(화)부터 12월 3일(토)(5일간) 문화예술원 3층 마루홀과 전시실에서 열렸다.

시민문화대학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문화학교가 새롭게 개편되어 운영된 프로그램이며 제13회 우리문화한마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만에 개최되었다.

문화예술원 2층 전시실에서는 수묵화조화, 수채·아크릴화, 유화, 민화, 캘리그래피, 한시, 보태니컬아트, 서예반 등 8개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원 임직원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시회 컷팅식에 이어 가야금, 한국무용, 실버댄스스포츠, 경기민요, 라인댄스 등 5개 교실의 공연단체 발표회가 펼쳐져 마루홀을 찾은 관객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한편 2022 시민문화대학은 우리문화한마당을 끝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내년 3월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개강할 예정이다.

제6회 대한민국 규방문화대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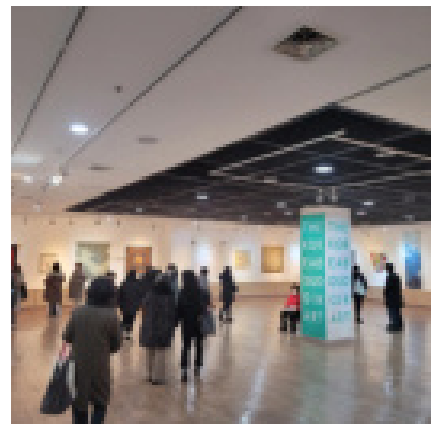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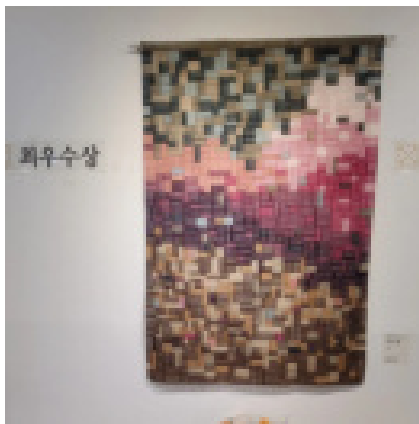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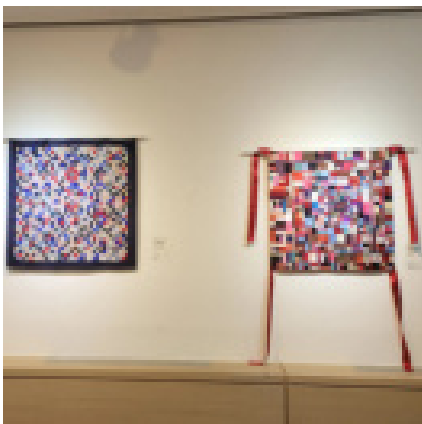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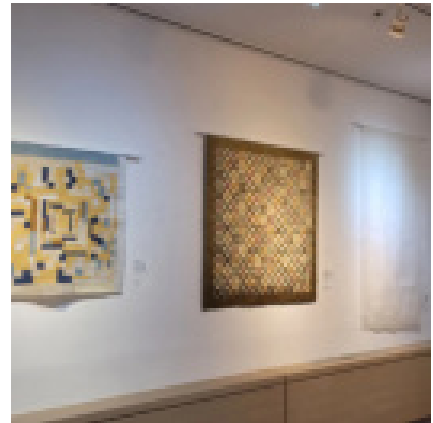


본 문화원 부설 규방문화연구소(소장 변인자)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용인시청 문화예술원 전시실에서 제6회 대한민국규방문화대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제6회 규방문화대전에서는 44점이 접수되어 1,2차 심사를 통해 총 42점이 수상을 하였으며 이은미씨(쪽빛 숨결) 대상을 서소영(오월), 임보름(숲)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공모전에서 수상한 42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규방문화연구소는 2010년 개설한 본 문화원 부설연구소로서 조선시대 여성들의 내실문화에 뿌리를 둔 정통 규방공예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기관이다.



‘용인 고려백자 요지의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학술대회’ 개최



본 문화원은 지난 12월 22일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 고려백자 요지의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2년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용인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도자기를 제작했던 곳일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근 1000년의 역사속에 만들어졌던 70개의 기가 남아 있는 곳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영미 경기도박물관 책임연구사, 이서현 용인시 학예연구사, 강진갑 역사문화콘

텐츠연구원장이 용인 서리 가마터 출토 백자의 특징, 서리 고려백자요지 정비사업 운영 현황과 방향, 도자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다.

뒤를 이어 김기섭 경기도박물관장, 김금향 경기도사편찬 위원, 박용규 용인서리고려백자연구회장, 박은선 용인시의회 의원, 흥원의 안성맞춤박물관 학예연구사가 토론에 참여하여 고려백자를 어떻게 문화 콘텐츠로 개발 할지, 더 나아가 지역의 도자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토론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용인시청소년수련원에 공로상 및 표창장 수여



용인문화원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청소년 수련원은 상호 긴밀한 업무 공유 및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지난 8월에 업무협

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 12월 21일 심언택 원장은 <용인시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공로상과 서민재 직원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2년 하반기 전국역사문화기행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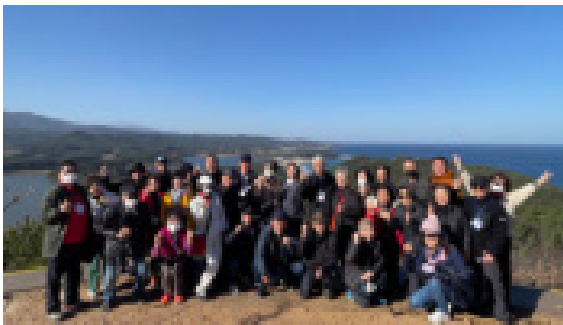
제144차 전라북도 익산시 백제의 도읍지, 익산 미륵사지를 찾아서..

- 일시 : 2022년 9월 24일(토)
- 코스 : 미륵사지, 쌍릉, 표옹 송영구 묘소,
삼정승소나무, 연동리 석불좌상



제145차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 문명의 타임 캡슐, 아라가야의 고분을 만나다

- 일시 : 2022년 10월 22일(토)
- 코스 : 말미산고분군, 방미산마애불, 고려동유적지,
주세붕 묘역



제146차 강원도 고성군 평화와 생명의 땅, 한반도 통일을 꿈꾸다

- 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 코스 : 청간정, DMZ박물관, 건봉사, 화진포,
통일전망대



제147차 경기도 화성시 고대 해상외교 루트, 당항성

- 일시 : 2022년 12월 17일(토)
- 코스 : 용릉, 건릉, 용주사, 제부도 매바위,
제암리 독립기념관, 우리꽃식물원

참가자 모집 2023 전국역사문화기행

◎ 전국역사문화기행 안내

구 분	내 용
참가비	문화위원 30,000원 / 일반시민 40,000원
참가조건	용인시민
접수방법	매월 1일 오전 9시 인터넷 접수 (1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접수)
문화원 제공	버스, 중식, 입장료, 해설사, 간식, 여행자보험 등
문의	☎ 031-324-9600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7:00)

◎ 월별일정

회차	답사일	답 사 지	세 부 일 정
148	01.27(금)	구리 · 남양주	아차산 대성암, 동구릉, 석실마을(김상헌, 김상용 묘, 김육 신도비), 남양주 궁집, 광해군 묘, 사릉
149	02.17(금)	충남 서천	문헌서원, 한산모시관, 이상재 생가, 비인오층석탑, 동백정, 춘장대 해변
150	03.17(금)	전북 진안	마이산(마이봉-은수사-탑사-금당사), 이산묘, 천황사, 운일암 · 반일암
151	04.21(금)	경남 함양	함양상림, 학사루, 개평한옥마을, 청계서원, 남계서원, 광풍루, 농월정, 거연정, 군자정
152	05.19(금)	강원 원주	치악산 태종대, 원천석 묘역, 구룡사, 금표비, 강원감영, 박경리문학관
153	06.16(금)	부산광역시	범어사, 해운대, 태종대, 감천문화마을, 동래읍성, 이기대 등 (1박2일)
154	07.21(금)	경남 산청군	남사마을, 성철스님 생가, 목면시배지, 산천재, 내원사, 구형왕릉
155	08.18(금)	강원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 갑둔리오층석탑, 마의태자 유적, 박인환 문학관
156	09.15(금)	전남 여수	여수 흥국사, 오동도, 진남관, 돌산대교, 향일암(영구암)
157	10.20(금)	충남 홍성	한용운 생가, 김좌진 생가, 이응노 생가, 홍주의사총, 성삼문 유허지
158	11.17(금)	경북 안동	제비원, 태사묘, 병산서원, 하회마을, 부용대, 옥연정사
159	12.15(금)	인천광역시	인천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인천근대박물관, 송도센트럴 파크

※ 상기 일정은 문화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